



2020 한국 1인가구 보고서

Korea One-person Households
Report 2020

정인 | 오상엽



C·O·N·T·E·N·T·S

[요약]

01 한국 1인가구의 현황

02 1인 생활 의향과 1인생활의 장·단점

1. 1인 생활의 동기와 만족도, 결혼 의향
2. 1인 생활의 어려움과 우려

03 1인가구의 성향과 생활 방식

1. 1인가구의 성향과 가치관
2. 1인가구의 생활 행태, 코로나19의 영향

04 1인가구의 주거와 소비

1. 1인가구의 주거 현황
2. 1인가구의 소비 생활

05 1인가구의 금융 니즈 및 행태

1. 금융자산·대출 보유 현황
2. 투자·결제수단 이용 현황
3. 은퇴 및 미래준비 성향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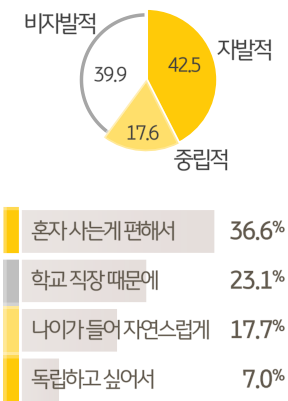
2020년 한국은 1인 가구 600만 시대에 돌입하여 100명 중 12명이 1인 가구로 살고 있으며 1인 생활자의 고령화 현상과 함께 최근 10년간은 1인 가구로 진입하는 20대 이하의 증가가 두드러짐

한국 1인 가구 현황 2020년 한국의 1인 가구 수는 약 617만 가구로 가장 주된 가구유형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으며 국민 100명 중 12명이 1인 생활을 하고 있다. 한국의 1인 가구는 향후 5년간 매년 약 15만 가구씩 증가하면서 인구 감소 시점 이후에도 전체 가구수 증가를 이끌 것이며, 2047년에는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1인 가구 비율이 3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1인 가구 또한 고령화와 수도권 집중 현상에서 예외는 아니며, 독신 만혼 경향의 심화와 함께 이혼이 증가하면서 1인 생활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연령대별로는 70세 이상 여성 1인 가구가 가장 많으나 최근 20년간의 1인 가구 증가는 경제활동 연령대의 남성이 주도하였다. 2010년대에는 남녀 모두 30·40대보다 20대 이하 1인 가구의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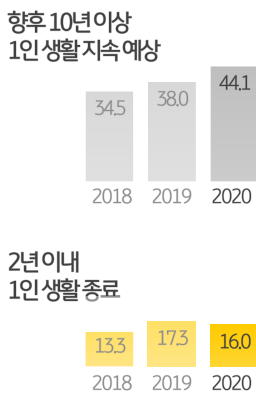
본인의 의지로 1인 생활을 자발적으로 시작하고 장기간 지속하려는 의향이 높아졌으며 결혼 의향이 하락하는 등 1인 생활이 생애의 한 단계에서 거치는 삶의 방식으로 확고하게 자리잡고 있음

1인 생활의 동기, 만족도, 결혼 의향 직장·학교 등 비자발적 계기가 많았던 과거와는 달리 올해 조사에서는 자발적으로 1인 생활을 시작한 경우가 더 많았다. 1인 생활을 선택한 본인의 의지를 우선시하는 모습은 삶의 주도권을 강하게 의식하는 가치관으로 연결되어 본 조사 전반에 걸쳐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1인 생활 지속의향도 전년도에 비해 상승하였는데 남성보다는 여성이 1인 생활을 장기간 계속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1인 가구로 오래 지낼수록 1인 생활이 장기간 지속되리라고 예상하는 경향이 있다. 1인 가구의 결혼 의향은 전년도에 비해 하락했는데 특히 30대 남성과 20대 여성의 하락폭이 컸다. 1인 생활에 대해 약 60%가 만족감을 표시했는데 남성보다는 여성의 만족도가 높으며 전체적인 만족도는 주거 만족도에 크게 좌우되고 있다. 1인 가구는 시간적 여유를 통해 다양한 여가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단체활동 참가자는 많지 않은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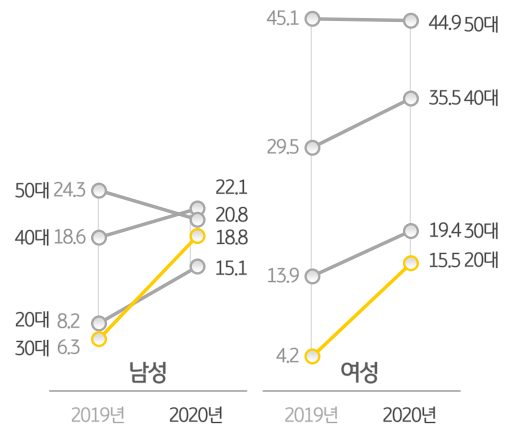
1인 생활 시작동기 (%)



1인 생활 지속기간 예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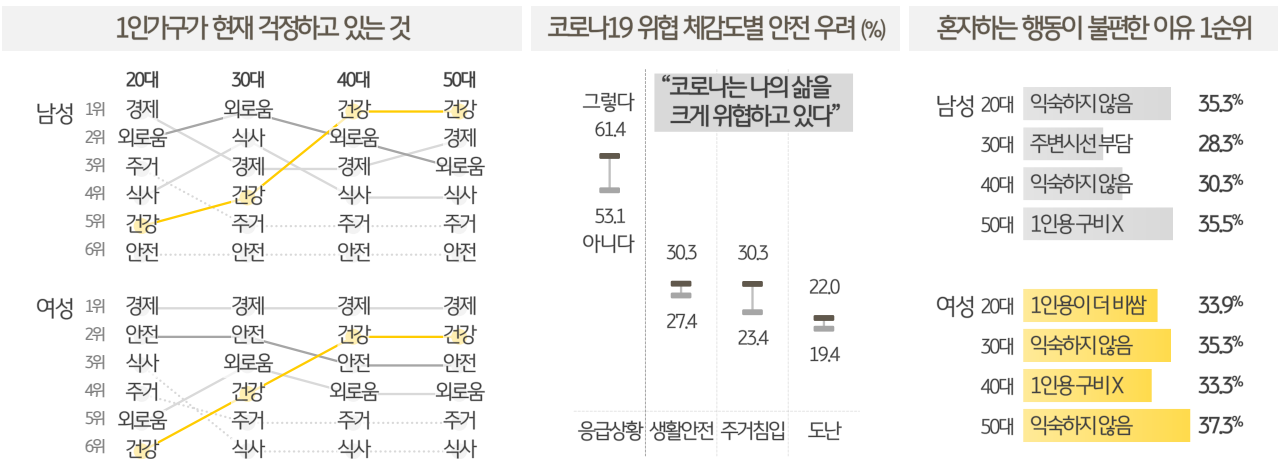


결혼할 의향이 없는 1인 가구의 비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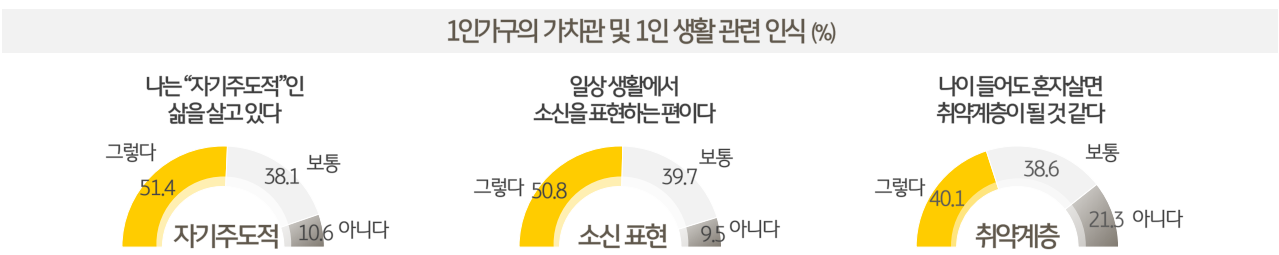
1인 가구는 **경제활동 지속 여부**를 가장 우려하고 있으며 1인 생활에 좀 더 익숙해지며 과거에 비해 **생활 불편이 감소**하는 모습도 보이나 코로나19 이후 **안전·위험에 대한 걱정**은 증가하였음

1인 생활의 고충 1인 생활을 하며 가장 걱정하는 것은 경제활동 지속 가능 여부이다. 전반적으로 생활에 대한 걱정은 과거에 비해 낮아졌으나 안전·위험 염려는 증가하였고 여성만이 아니라 남성의 안전 우려도 높아졌다. 전년도에는 남성은 ‘외로움’을 가장 큰 걱정으로 꼽았으나 올해는 ‘건강’이 더 우선순위를 차지하는 등 코로나19 이후 관심사가 달라졌음을 볼 수 있다. 경제적으로 가장 큰 걱정은 은퇴자금과 주택자금 마련인데, 연령대 및 1인 생활 지속의향에 따라 걱정 수준과 주변의 지원 정도에 차이가 있다. 전반적인 안전 우려 상승에도 치안 관련 세부 항목별 걱정은 감소하는 등 상황이 개선되고 있으나 주거 침입에 대한 여성 1인가구의 걱정 수준은 여전히 매우 높다. 혼자 하는 데 불편함을 느끼는 행동은 과거에 비해 줄어들어 1인 단독 행동 방식이 더욱 확고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불편 사유로는 1인을 위한 서비스 부재, 1인용이 더 비쌌음을 지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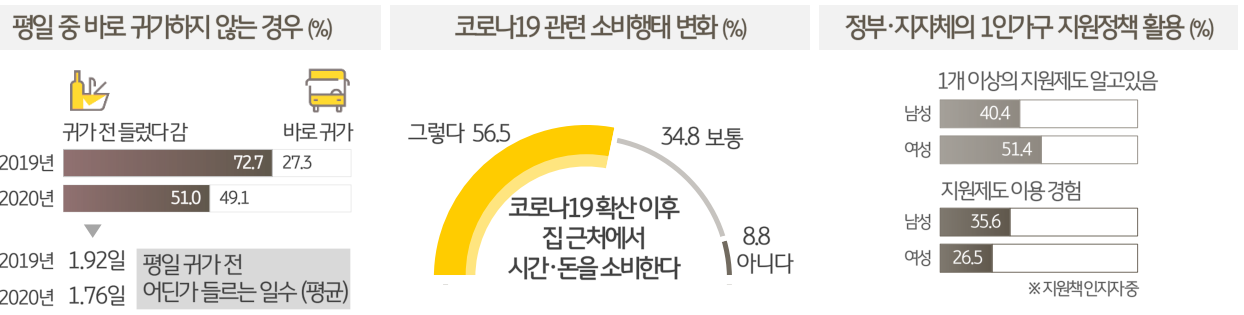
1인가구의 다수가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이끌어가는 **자기주도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소신 표현**으로 드러내는 경우가 많으나, 1인 생활에 대해서는 **자신감과 불안감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

1인가구의 가치관 ‘외로움’은 1인가구가 겪는 가장 큰 심리적 어려움이지만 가장 남들에게 듣고 싶지 않은 말이기도 하다. 다수의 1인가구에게서 자기주도성이 강하게 드러났는데 특히 여성에게서 이러한 현상이 뚜렷하다. 일상 생활에서 소신을 표현하는 1인가구의 상당수가 불매운동이나 청와대 청원 등으로 행동에 옮겼다. 이러한 자기주도 성향 강화에도 불구하고 1인 생활에 대한 불안감도 함께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 삶의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지원과 서비스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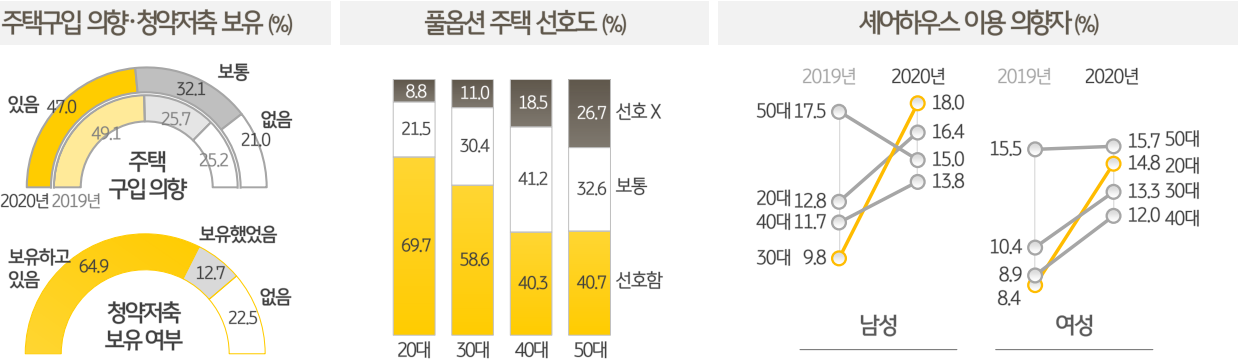
코로나19의 영향으로 1인가구의 개인화 성향이 가속되고 전년과 달리 일과 후 다른 곳으로 가기보다는 바로 귀가하여 집 근처에서 시간과 돈을 소비하는 경향이 강해졌으며 근무형태 변화 등으로 인해 생활 패턴이 재구성됨

1인가구의 생활 행태·코로나의 영향 1인가구의 여가생활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실외 활동이 크게 줄어들고 집에서 할 수 있는 행동들로 바뀌면서 사회적 관계지향 활동 또한 감소하여 1인가구의 개인화 성향이 더욱 심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과 후 시간을 혼자 활용할 수 있는 1인가구는 전년도에 일과 후 다양한 활동을 보여주었으나 올해는 바로 귀가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음주나 대중 이용시설 방문이 크게 줄어들었으며 코로나의 위협을 체감하면서 상당수가 집 근처에서 시간과 돈을 소비하였다. 재택근무 시행으로 생활 패턴이 바뀐 경우도 많으며 일부 1인가구들은 임금 축소 등을 겪으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였다. 한편 약 45%의 1인가구가 정부·지자체의 1인가구 지원정책을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1인가구들의 절반 정도가 주택구입 의향이 있으며 구입 예상금액은 전년도에 비해 상승하였음. 아파트 외 주택의 경우 주거 시설에 따라 생활 만족도 차이가 큰 편이며 다수가 거주지 안전 확보를 위한 자구책을 실행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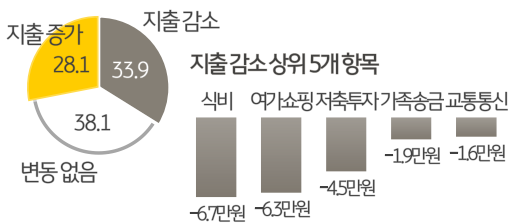
1인가구의 주거 조사 대상 1인가구들의 거주주택 소유형태는 월세·전세·자가의 순으로 절반 정도가 주택구입 의향이 있으며 주택 구입 예상금액은 전년에 비해 상승하였다. 1인가구도 청약저축 가입률은 높은 편이나 가점 부족 등을 우려해 청약신청에는 신중한 편이다. 아파트 외 주택에 사는 1인가구들이 혼자 이용 가능한 주거시설은 면적에 따라 차이가 크데, 주거 시설 여부는 생활 만족도와 상관관계가 높은 편이다. 20·30대 1인가구는 일정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풀옵션을 선호하며 다수의 1인가구가 거주지 안전 확보를 위해 방범장치를 설치하는 등의 자구책을 실천에 옮기고 있다. 한편 본 조사에서 그 동안 선호도가 높지 않았던 셰어하우스 이용 의향이 올해는 상승하였으며 1인가구는 공유주택에서 다양한 생활편의를 제공받고 싶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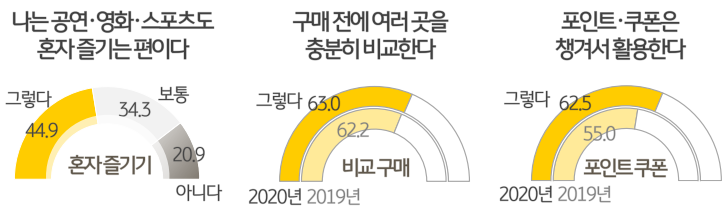
디지털화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생활품 온라인 구매**가 크게 늘었으며, 1인가구의 **합리적 소비 성향**은 전년도에 이어 더욱 강화되었음. 전년도보다 **혼자 식사**하는 경우가 증가하였으며, 끼니 중 상당수를 대충 때우기도 함

1인가구의 소비생활 1인가구는 소득의 절반을 생활비로 쓰고 있으며 식비와 주거비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코로나 19 확산 이후 소비가 감소한 1인가구의 경우 식비, 여가쇼핑, 저축·투자 순으로 지출을 줄였다. 올해는 전년도에 비해 온라인 구매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1인가구 라이프스타일에 부합하는 구독서비스 및 렌탈 이용 의향이 높은 편이다. 이와 함께 1인 라이프를 겨냥한 상품·서비스가 다양해지면서 1인 특화 상품 이용 경험과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다. 1인가구의 합리적 소비 지향성은 전년도에 이어 더욱 강화되었으며 중고거래 등도 활발히 이용하는 편이다. 올해 조사 대상 1인가구들은 전년도에 비해 혼자 밥을 먹는 경우가 증가하였고 총 끼니 중 30%를 대충 때우고 있다. 또한 전년도에 비해 가정간편식 이용이 증가하고 식당에 갈 때 '1인을 위한 배려' 외에도 '손님이 많지 않은 곳'을 선호하는 등 코로나19는 1인가구의 식생활에도 영향을 주었다.

코로나19 확산 전후 월 소비지출액 변동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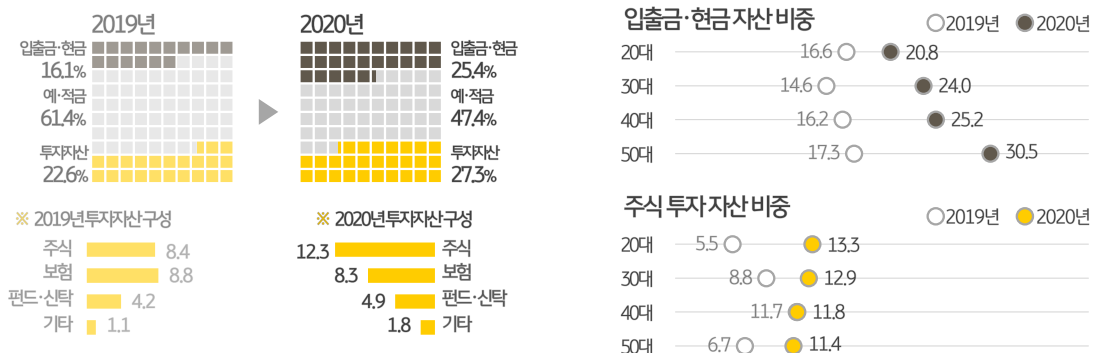
1인가구의 소비행태, 소비 관련 인식 (%)



1인가구의 금융자산은 전년도에 비해 **예·적금 비중이 하락**하고 **현금과 주식 등 투자자산 비중이 상승**하는 등 구성 상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으며, 코로나19 확산 이후 금융상품을 **재예치하지 않고 생활비로 사용**하는 경우가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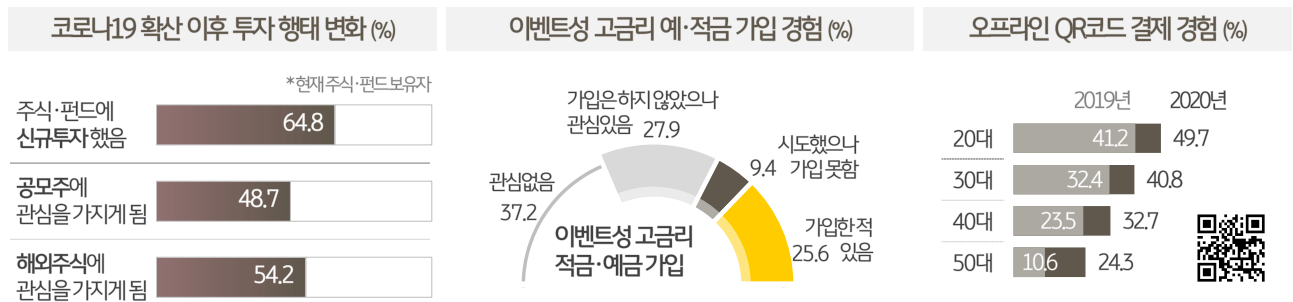
금융자산·대출 보유현황 1인가구의 금융자산은 코로나19로 인한 현금성 자산 수요 증가와 최근 높아진 투자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듯 예·적금 비중이 하락하고 투자 자산과 입출금·현금의 비중이 증가하였다. 이와 함께 금융상품을 해지 후 재예치하지 않고 현금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절반을 넘었다. 젊은 연령층의 경우 주식 신규 투자 의향이 높은 편이다. 한편 조사 대상의 약 40%가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년보다 대출자 비중은 소폭 하락하였다.

1인가구의 금융자산 종류별 보유 비중 (%)



올해는 1인가구들 또한 **주식**을 중심으로 **투자**에 관심이 높았으며 이벤트성 예·적금과 보험 상품에도 관심을 보였음. 간편함을 무기로 **페이 서비스**가 주요 결제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는 가운데 **QR코드 결제** 경험도 크게 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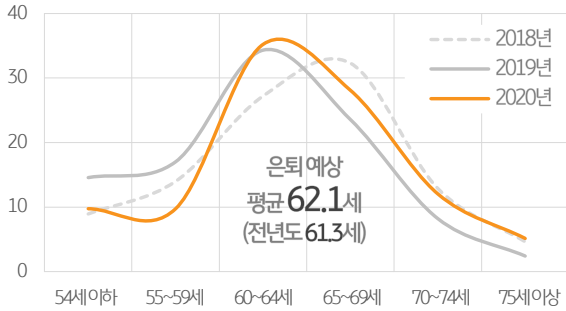
1인가구의 투자, 결제수단 이용 현황 올해는 주식·펀드에 신규투자하고 공모주나 해외주식에 관심을 보이는 등 1인가구의 투자에 대한 관심이 전반적으로 높아졌고 코로나19로 인한 시장의 변화를 기회로 생각한 경우도 많았다.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벤트성 예·적금에도 관심이 많았으나 한정 판매로 가입하지 못하거나 소액이라 관심이 없다는 의견도 일부 있었다. 1인가구들은 건강과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다양한 보험상품들에 가입하는 한편으로는 4명 중 1명이 1년 내 보험을 해지·실효한 경험이 있는데 주요 사유로는 보험료 납입 부담을 들었고 일부는 1인가구 입장에 맞는 보험이 아니어서 라는 이유를 들었다. 지출에 사용하는 결제수단은 여전히 신용카드가 다수이나 사용비중은 계속 줄어들고 있으며 페이 서비스 이용이 크게 성장하였다. 올해는 QR코드 결제 경험도 크게 늘었는데 코로나19 이후 결제 외의 용도로도 QR코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늘면서 QR코드 활용 확산의 토대가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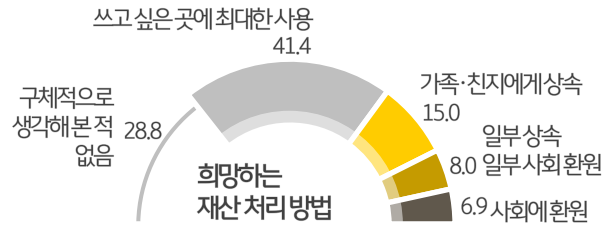
1인가구는 은퇴를 위해 약 **5억 7천만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매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투자·저축액의 약 **60%**를 모으고 있음. 결혼 미약향 1인가구의 경우 **향후 재산 처리방법**을 구체적으로 생각한 적 없는 경우가 많음

1인가구의 은퇴 및 미래준비 1인가구는 평균 62세에 은퇴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여성은 남성보다 약 23년 빠른 은퇴를 예상하고 있다. 은퇴 준비수준은 전년과 유사하여 준비도가 향상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30대는 준비를 시작한 경우가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였다. 1인가구는 은퇴를 위해 약 5억 7천만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평균 22%를 준비하고 있는 반면 준비자금이 전혀 없다는 응답자도 16%에 달했다. 1인가구는 은퇴에 대비하여 매월 123만원의 투자·저축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실제 투자·저축액은 약 74만원으로 60%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은퇴 자금 준비 수준은 소득 구간별 차이가 큰 편으로 저소득 구간은 기본적인 생계 비용 충당 후 저축 여력이 여전히 부족한 상태이다. 다만 전년도보다 1인가구의 저축액은 소폭 상승하였다. 은퇴자금 준비 방법은 예·적금이 다수이나 전년도에 비해 투자상품과 보험으로 준비한다는 응답이 증가하였으며, 다인가구에 비해 연말정산 공제 항목이 적은 1인가구의 다수가 연금저축이나 IRP 등으로 공제 혜택을 받으며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 한편 결혼 미약향 1인가구의 경우 향후 재산을 상속보다는 “쓰고 싶은 곳에 최대한 사용”하겠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외에 구체적인 재산처리 방법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경우가 다수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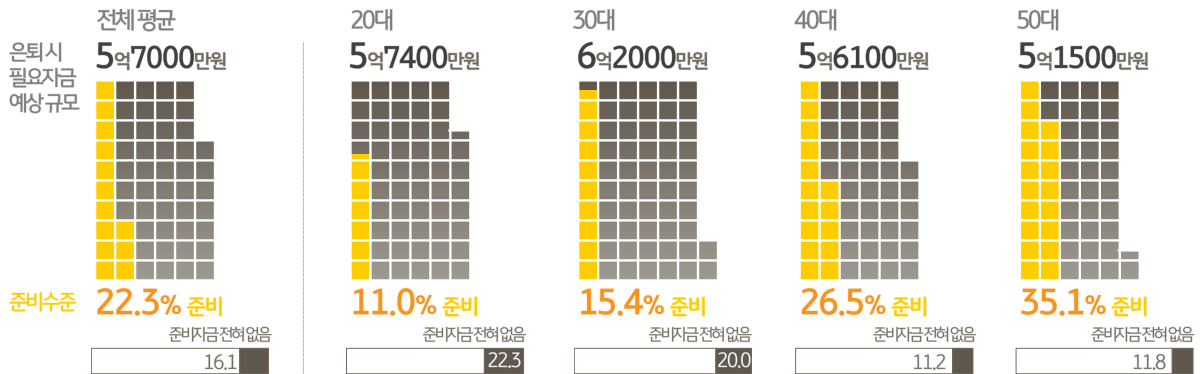
1인가구의 은퇴 예상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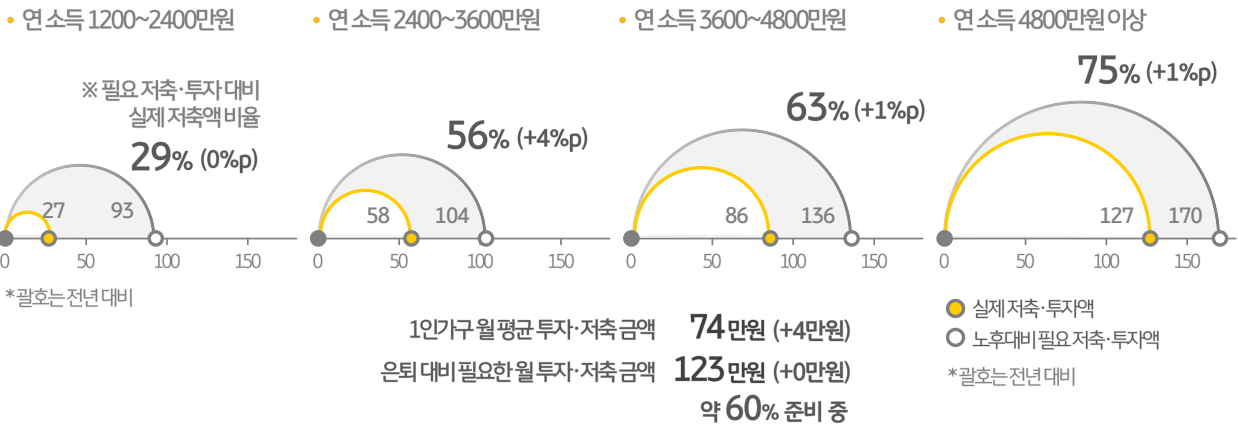
결혼 미야향 1인가구의 희망 재산처리 방법 (%)



1인가구의 은퇴 시 필요한 예상자금, 현재 준비수준



은퇴 대비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저축·투자액과 실제 저축·투자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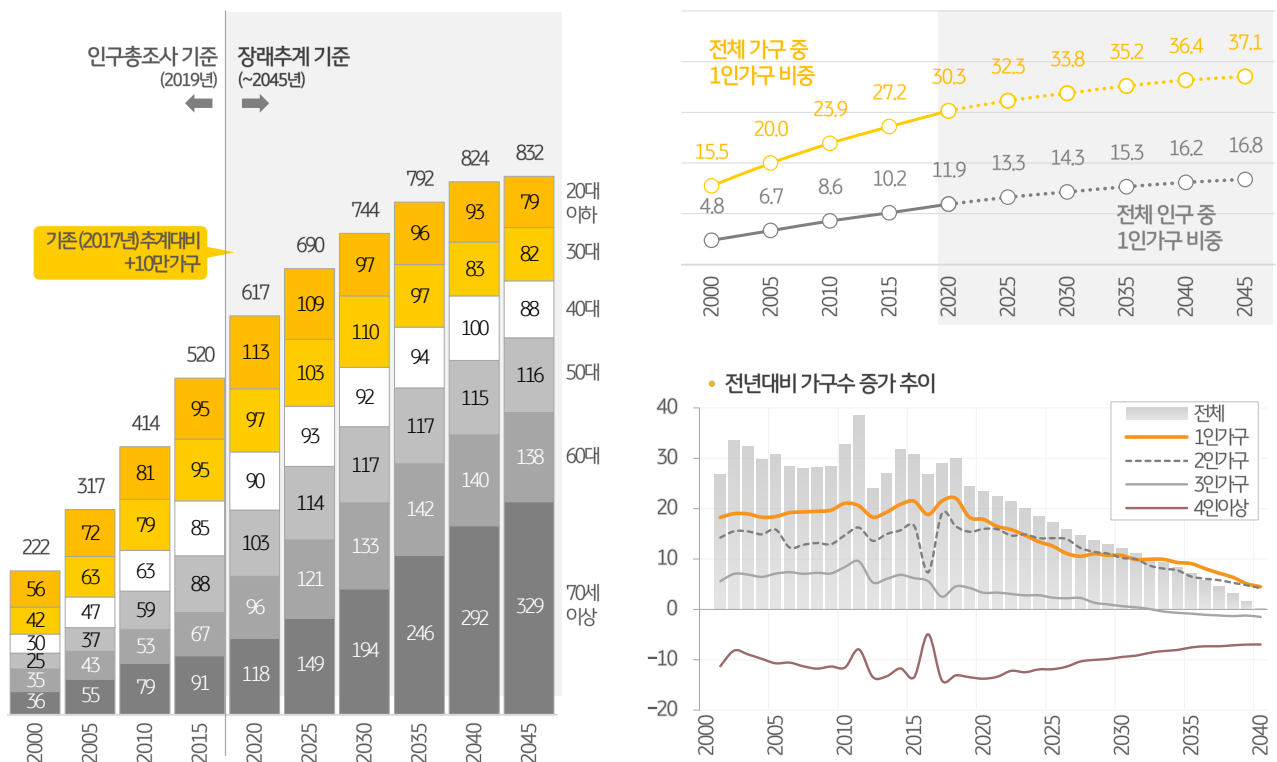


01 한국 1인가구의 현황

2020년 한국은 1인가구 600만 시대에 돌입하여 한국인 100명 중 12명이 1인가구로 살고 있음. 1인가구 증가는 기존 예상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인구 감소 이후에도 1인가구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

- 2020년 한국의 1인가구 수는 약 617만 가구로 성장하여 1인가구 600만 시대가 열렸으며(통계청 2019 장래가구추계 기준), 1인가구는 가구수 기준으로 한국의 가장 주된 가구유형으로 자리잡은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전년도 한국 1인가구 보고서의 통계청 장래가구추계(2017년)에도 1인가구 600만 돌파를 예상하였으나 최근 추계에서는 약 10만 가구가 더 증가한 것으로 추정
- 1인가구수 추정치는 장래가구추계 때마다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1인가구 증가와 관련된 사회적 요인들의 영향이 매년 좀 더 강하게 작용되고 있음을 보여줌
- 한국의 전체 가구수에서 1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30%이며 한국인 전체 인구 기준으로는 100명 중 12명이 1인가구로 살고 있음(2020년 현재). 1인가구는 향후 한국의 인구감소 예상 시점(2029년) 이후에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

그림01 한국 1인가구의 규모와 성장전망, 전체 가구수 중 1인가구의 비중 (단위: 만가구, %)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장래가구추계 2019, 총인구규모예상은 중위추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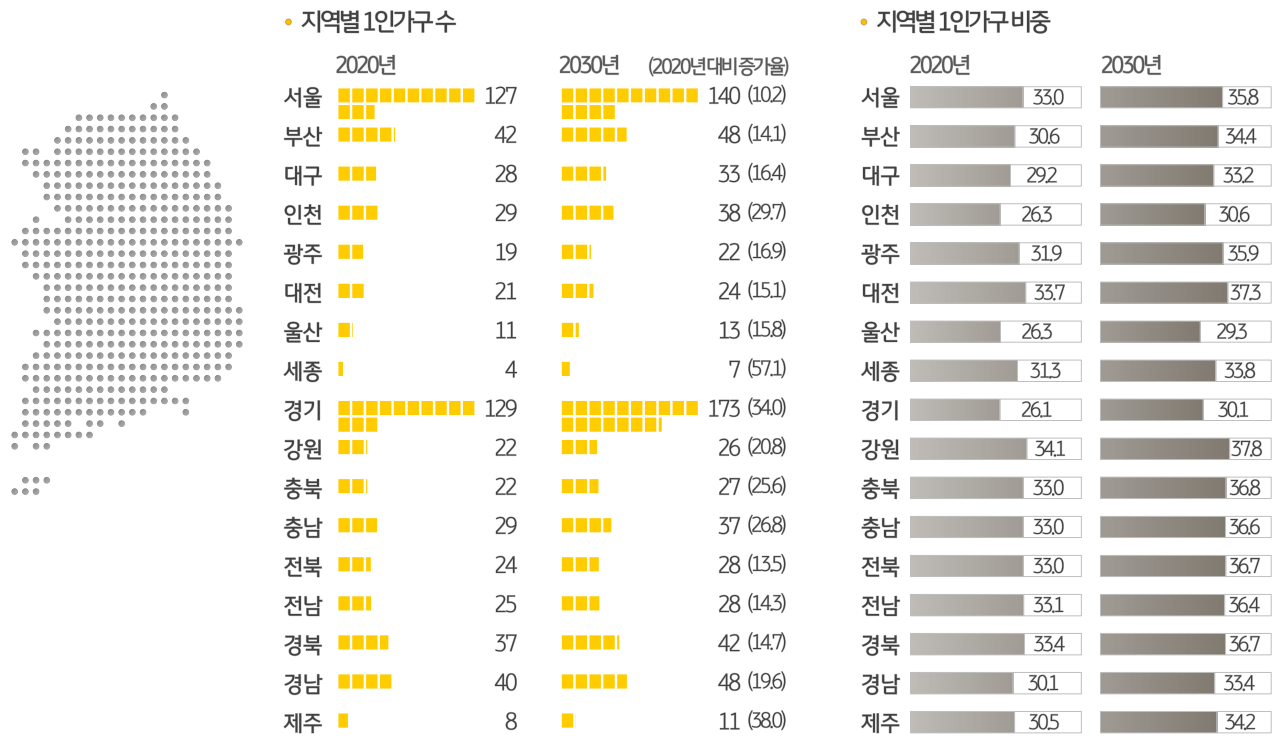
1인가구의 증가는 한국의 전체 가구 수 증가를 견인하고 있으며 향후 5년간 **매년 약 15만 가구**의 1인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한국 1인가구의 약 46%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으며, 1인가구의 **수도권 집중 현상**도 심화될 것으로 전망

- 1인가구의 고령화 또한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2020년에는 50대 이상의 1인 가구 비중(약 51%)이 40대 이하의 비중을 넘어섰으며 2045년에는 50대 이상이 약 70%, 70세 이상이 약 40%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전망
- 한국의 인구증가율 감소 및 2029년 이후 인구 축소 예상에도 불구하고 가구수는 2040년경까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전체 가구수 증가를 이끌어 온 것도 1인가구의 증가로, 4인 이상 가구수의 감소와 대조됨
- 인구만이 아니라 한국의 가구수 증가가 멈춘 후에도 1인가구수는 2046년까지 증가가 예상되는데, 향후 5년간 매년 약 15만 가구의 1인가구가 늘어날 것으로 추정
- 지역별 분포를 보면 서울(127만 가구)과 경기도(129만 가구)에 각각 전체 1인가구의 약 20%가 살고 있는 등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46.3%(285만 가구)가 거주
- 장래가구추계에 따르면 10년 후인 2030년 수도권 거주 1인가구 수는 351만 가구,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7.2%로 상승이 예상되는 등 수도권 집중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며, 1인가구 증가 요인의 가속화에 따라 수도권 거주 비중 또한 현재 추정치보다 더 높아질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

그림02 지역별 1인가구 규모 및 전체 가구에서의 비중

(단위: 만가구, %)



(자료: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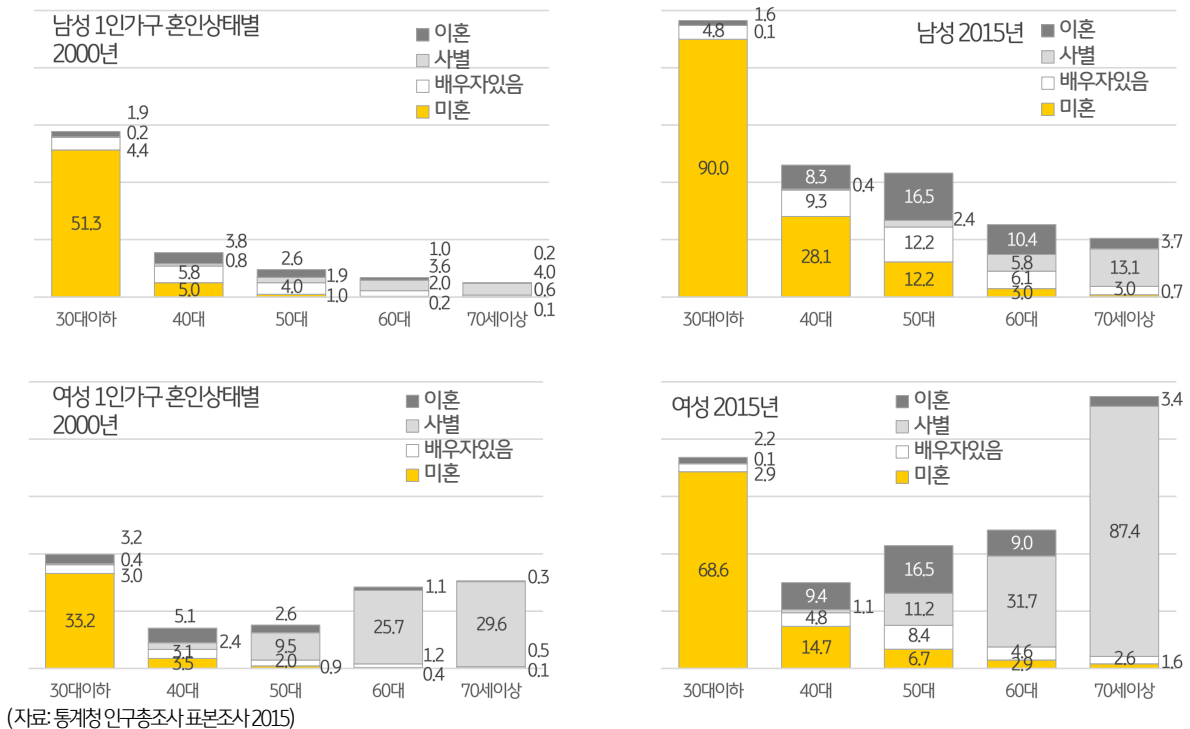
경기도의 1인가구는 향후 10년간 44만 가구 증가할 것으로 예상. 2020년 전국 다수 지역에서 1인가구 비중이 30%를 초과하였으며, 2047년에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모두 3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

40대 이하 1인가구의 대다수가 미혼 상태이며, 40대 이후에는 이혼으로 인해 1인 생활을 하는 경우가 증가

- 서울의 1인가구는 2030년까지 13만 가구가 증가하고 전국 1인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소폭 하락할 것으로 보이나, 경기도는 동 기간 중 44만 가구가 증가하고 비중도 23.3%으로 높아지는 등 1인가구의 급증이 예상됨
- 향후 10년간 1인가구 증가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자체는 세종(57.1%) 제주(38.0%) 경기(34.0%) 인천(29.7%) 충남(26.8%) 충북(25.6%)의 순
- 장래가구추계 기준 2020년 1인가구 비율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강원도(34.1%)이며, 인구주택총조사(2019년) 기준 1인가구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대전(33.7%)
- 2010년에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1인가구 비율이 30%를 넘는 곳이 없었으나 2020년에는 경기·울산·인천·대구 4곳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30%를 초과
- 2030년에는 울산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1인가구 비율이 30%를 넘을 것이며 2047년에는 17개 시도에서 모두 1인가구가 가장 주된 가구유형이 될 전망
- 1인가구의 연령대별 혼인상태를 보면 30대 이하에서는 독신·만혼 경향, 여성 고령층은 사별이 1인 생활의 주요 원인임을 알 수 있으나 40~60대의 경우 과거와 비교하면 '이혼'으로 인해 1인가구가 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03 1인가구의 혼인상태 변화 (2000~2015년)

(단위: 만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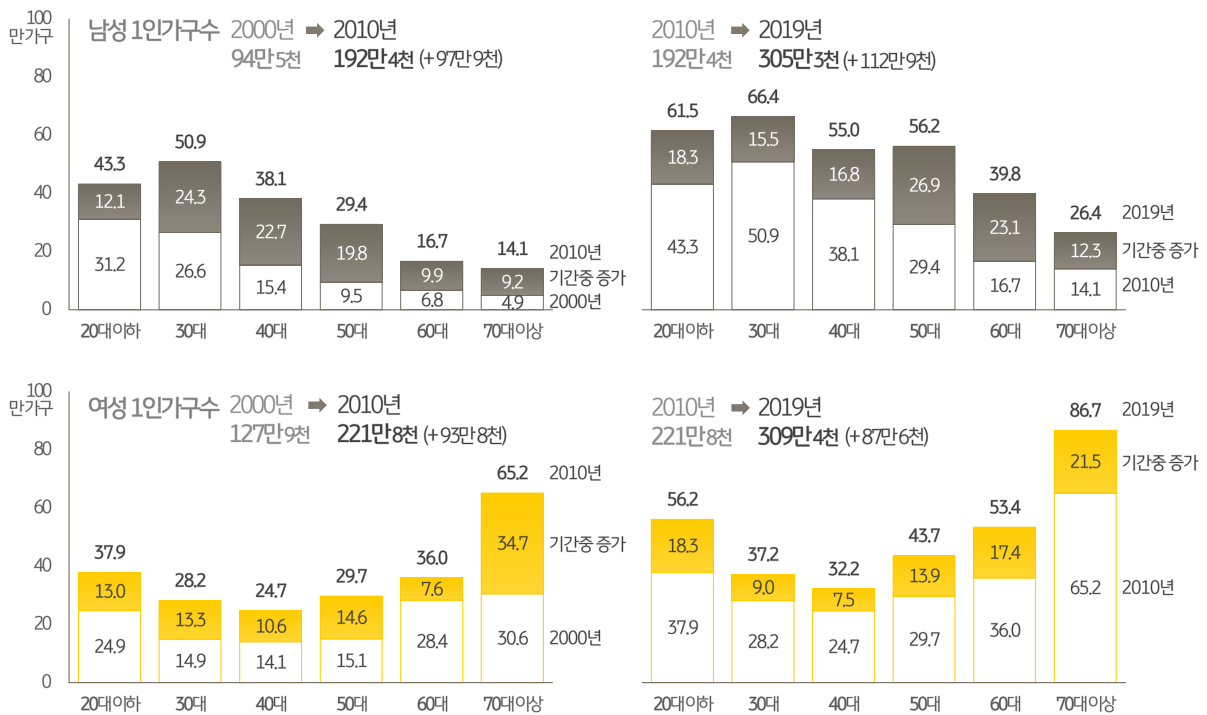


연령대별로는 70세 이상 여성 1인 가구의 규모가 가장 크며 최근 20년간 1인 가구 규모 증가는 2000년대는 남성 30·40대, 2010년대는 남성 50·60대가 주도하였음. 2010년대에는 남녀 모두 20대 이하 1인 가구 증가가 두드러짐

- 성별·연령별 증가 패턴을 보면 2000년에는 남성(94만 5천가구, 비중 42.5%) 보다 여성(127만 9천가구, 57.5%) 1인 가구 비중이 더 높았으나 2019년에는 남성(305만 3천가구, 49.7%)과 여성(309만 4천가구, 50.3%) 간의 차이가 크지 않으며, 통계청은 2047년에는 남성 1인 가구 비중이 여성 1인 가구 비중을 추월할 것이라고 전망
- 10년 단위 연령대별 증가를 보면 2010년에는 경제활동기인 20대~40대는 남성이, 이후에는 여성 1인 가구가 더 많았으나 2019년에는 50대에도 남성 1인 가구 수가 여성보다 더 많으며 60대에서 남녀 1인 가구간 규모 격차도 상당히 축소되었음
- 70대 미만에서는 2000~2010 기간 중 남성 30대·40대가, 2010~2019년에는 남성 50대·60대가 1인 가구 증가를 주도함. 10년간 연령대 상승에 의한 인구 효과를 감안하더라도 50대 남성 1인 가구의 증가폭은 두드러진 편임
- 70세 이상은 여전히 여성 1인 가구 규모가 남성을 압도함. 2000~2010년에는 70세 이상 여성 1인 가구 규모가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이후에도 높은 증가세를 유지
- 2010~2019 기간 중 남녀 모두 20대 이하 1인 가구 규모가 30·40대보다 더 많이 증가한 점에도 주목. 이들은 학업·직장이 계기가 되는 경우가 많으나 이후에도 1인 가구 생활을 유지하거나 자발적으로 1인 가구로 진입하는 경우가 늘고 있음

그림04 한국 1인 가구의 연령대별 증가 (2000, 2010, 2019년)

(단위: 만명)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19)

02 1인 생활 의향과 1인 생활의 장·단점

1. 1인 생활의 동기와 만족도, 결혼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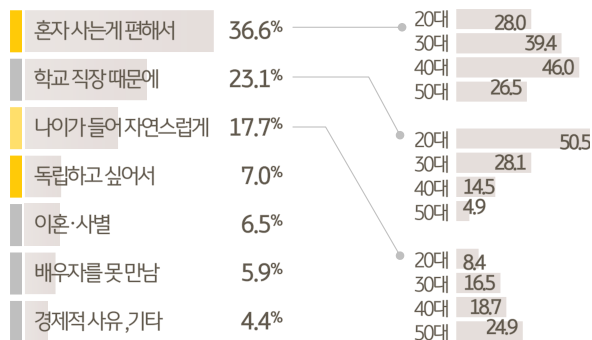
자발적으로 1인 생활을 시작하는 경우가 전년도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1인가구”는 생애의 한 단계에서 경험하게 되는 삶의 방식으로 확고하게 자리잡아가고 있음

- 금년도 조사에서는 과거에 비해 자발적으로 1인 생활을 시작했다는 응답이 높아졌으며 독립적인 경우를 포함하면 과반을 넘고 있는데, 이는 과거 비자발적인 요인에 의해 1인 생활을 시작한 경우가 절반 이상이었던 것과 크게 대조
- 1인 생활 계기가 완전히 자발적 의지만으로 형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1인가구들이 스스로의 의지를 가장 우선시하는 흐름이 감지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본 조사 다른 문항에서도 지속적으로 발견
- 연령대별로는 20대는 학교·직장 때문인 경우가 절반을 넘고 있으나 30·40대부터는 혼자 사는 게 편해서 1인 생활을 시작한 경우가 더 많으며, 1인 생활의 시작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경우도 전년도에 비해 높아짐
- 1인 생활 지속의향 또한 절반 이상이 지속할 것이라고 밝혀 전년도에 비해 상승하였으며 전년도보다 소폭 하락한 20대를 제외하고 전 연령대에서 상승하였음. 특히 올해는 기존에 1인 생활 지속의향이 낮은 편이었던 50대의 1인 생활 지속의향 상승폭이 큰 것으로 조사됨

그림05 1인 생활 시작동기 (단위: %)



* 1순위 응답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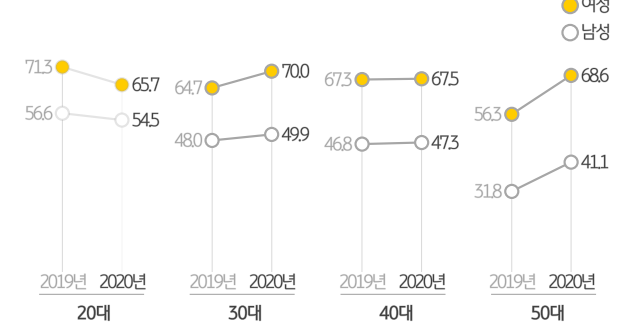


(n=2000)

그림06 1인 생활 지속의향 여부 (단위: %)

	없음	보통	1인 생활 지속 의향 있음
2019년	11.6	35.7	52.7
2020년	8.2	35.6	56.2

※ 1인 생활 지속의향 있음 (성별·연령별)



(n=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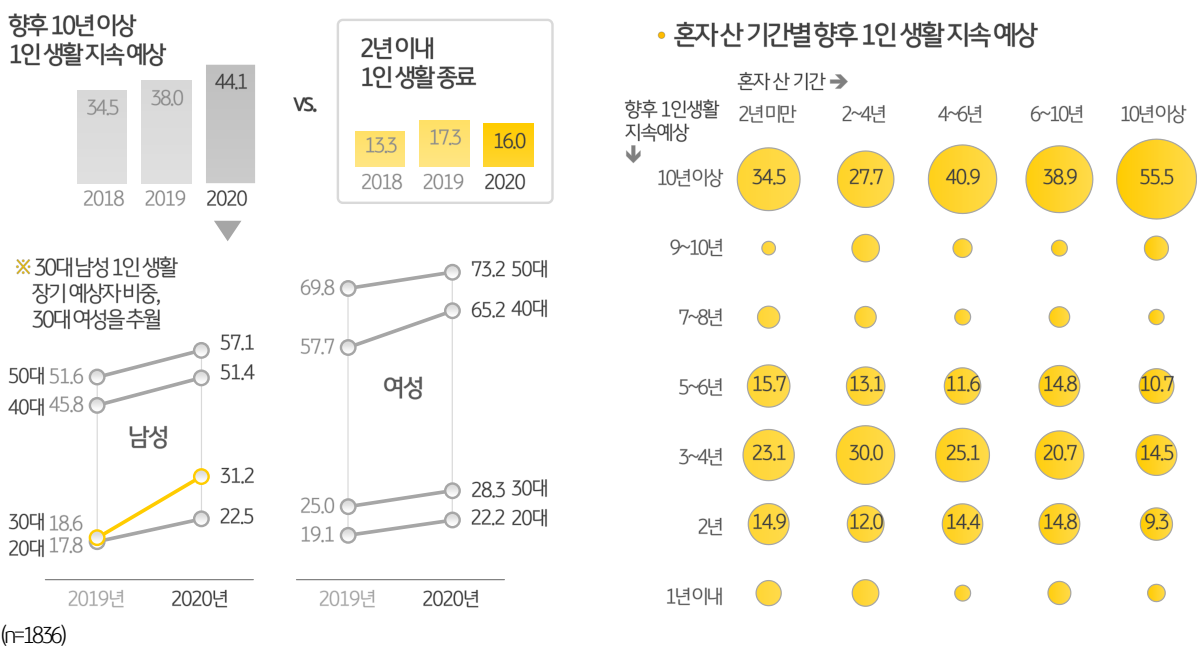
1인 생활을 유지하려는 의향 및 장기간 1인 생활 유지 예상자 비중 모두 전년도보다 상승하였으며, 여성이 남성보다 1인 생활을 장기간 지속할 것으로 예상

- 과거 조사에서는 연령대가 높아지면 1인 생활 지속의향도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는데, 남성은 올해도 동일한 흐름을 보여주나 여성의 경우 과거와 달리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1인 생활 의향이 더 높아지거나 거의 변동이 없는 점에도 주목
- 1인 생활 지속의향자 비율은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낮아지지만 장기간(10년 이상) 1인 생활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는 비율은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올해는 경향 자체는 동일하나 전년도에 비해 모든 연령대에서 장기간 1인 생활을 예상하는 응답자 비중이 상승
- 40·50대 여성의 장기간 1인 생활 예상자 비율이 남성보다 훨씬 높은 것은 전년과 동일함. 다만 30대 남성의 경우 장기간 1인 생활 예상자 비중이 전년도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30대 여성을 소폭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 향후 추이에 주목
- 한편 2년 이내 1인 생활을 마칠 것 같다고 예상한 경우는 전년도에 비해 소폭 하락
- 1인 생활을 한 기간이 4년 미만인 경우는 향후 1인 생활을 지속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기간도 4년 미만 정도인 경우가 많았으나, 1인 생활 기간 4년 이상인 경우를 기점으로 10년 이상 혼자 살 것 같다고 예상한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 특히 1인 생활을 10년 이상 한 그룹의 경우는 향후에도 10년 이상 1인 생활을 지속할 것 같다고 응답한 경우가 55%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남

1인가구로 오래 지낼수록 1인 생활이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음

그림07 1인 생활 지속기간 예상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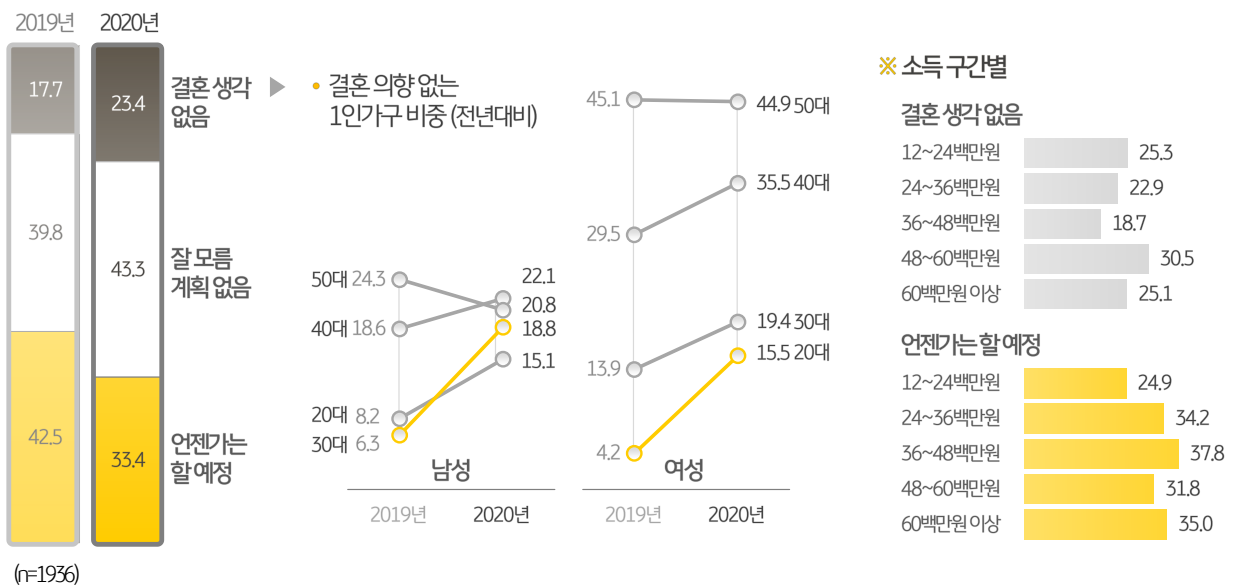


1인가구의 **결혼 의향**은 전년도에 비해 **하락**했으며, 특히 **30대 남성과 20대 여성** 1인가구의 결혼 의향이 낮아짐

- 올해 조사에서는 결혼에 대해 유보적인 응답(잘 모르겠다·계획 없다)이 가장 많이 나왔으나 “결혼 생각이 없다”고 응답한 1인가구의 비중이 전년도에 비해 상승하였으며 “언젠가는 결혼하겠다”는 응답자 비율도 약 9%p 감소하면서 전반적으로 1인가구의 결혼 의향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 성별로는 여성의 결혼 의향이 남성에 비해 여전히 낮은 편이며, 40대 이상의 경우는 남녀간 결혼 의향 수준 차이가 크게 벌어지고 있음
- 50대의 경우 결혼할 생각이 없는 경우가 많으나 전년도에 비해 그 비중은 소폭 감소한 반면, 다른 모든 연령대에서는 결혼할 생각이 없다는 응답이 증가
- 전년도에 결혼할 생각이 없다는 응답자 비율이 가장 낮았던 30대 남성과 20대 여성의 결혼 의향 감소폭이 큰 것이 눈에 띄는데, 전년도에는 20대 여성은 남성보다 결혼할 생각이 없다는 응답자 비중이 낮았으나 올해는 20대 남녀가 거의 동등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음
- 30대 남성은 전년도 대비 증가폭이 전 연령대에서 가장 두드러지고 있으며 앞서 장기간 1인 생활 예상자 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과도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
- 소득 규모가 증가할수록 결혼 의향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나 48백만원~60백만원 구간에서는 오히려 결혼 의향이 줄어들고 있어 1인가구의 소득 규모와 결혼 의향이 완전한 비례 관계 보다는 좀 더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이 있음을 암시

그림08 1인가구의 결혼·재혼 의향

(단위: %)



결혼 의향이 없는 이유로 남성은 경제적 부담, 여성은 결혼을 하고 싶지 않다는 응답이 많았음

결혼에 대해 생각해 본 경우와 그렇지 않은 응답자의 예상 결혼 비용 규모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결혼의향이 없는 이유로 남성 1인가구는 경제적 부담, 여성은 결혼하고 싶지 않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마음에 드는 배우자가 없다는 의견이 많았음
- 여성 1인가구는 결혼하고 싶지 않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마음에 드는 배우자가 없음 등을 꼽았으나 남성과 달리 경제적 요인을 말한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음
- 남성과 여성 모두 안정된 가정을 갖고 외롭지 않기 위해서 결혼을 생각하고 있으며, 특히 결혼 의향이 있는 여성의 경우 안정된 가정을 원하는 응답이 절반을 초과
- 결혼의 장애물로서 경제적 요인을 좀 더 살펴보기 위해 결혼 비용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는지 질문한 결과, 결혼할 생각이 있다는 응답자와 결혼 의향이 없거나 생각해 본 적 없는 응답자 간에는 상당한 금액 차이가 있음이 나타남
- 본 문항은 결혼 후 육아나 결혼 생활에 필요한 추가적 경제 부담을 포함하여 질문한 것은 아니나, 결혼에 필요한 경제력을 감안할 때 좀 더 구체적인 접근과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한편 결혼 예상비용에서 가장 큰 부담은 주거 비용으로, 결혼 의향이 있는 경우 나아인 경우 모두 전체 비용의 약 80%가 주거 비용으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

그림 09 1인가구의 결혼·재혼 의향 이유, 예상 결혼 비용 (단위: %)

• 결혼 의향 없는 이유

남성	
① 경제적으로 부담됨	28.9
② 마음에 드는 배우자 없음	24.8
③ 결혼하고 싶지 않음	17.5
④ 배우자·자녀 구속이 싫음	13.5
⑤ 결혼·재혼시기 놓침	12.8
⑥ 부모 부양, 기타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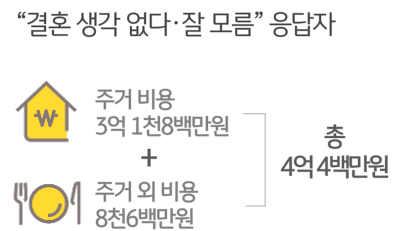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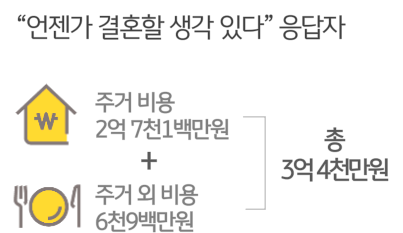
여성	
① 결혼하고 싶지 않음	31.6
② 마음에 드는 배우자 없음	30.6
③ 배우자·자녀 구속이 싫음	21.6
④ 경제적으로 부담됨	7.7
⑤ 결혼·재혼시기 놓침	6.1
⑥ 부모 부양, 기타	2.4

• 언젠가는 결혼하려는 이유

남성	
① 안정된 가정을 갖고 싶음	35.0
② 외롭지 않기 위해	23.4
③ 더 행복해질 것 같아서	21.4
④ 2세를 기르고 싶어서	10.0
⑤ 때가 되면 당연함	7.3
⑥ 혼자 벌기에 부담되어서	1.8

여성	
① 안정된 가정을 갖고 싶음	57.3
② 외롭지 않기 위해	15.5
③ 더 행복해질 것 같아서	12.6
④ 때가 되면 당연함	4.9
⑤ 혼자 벌기에 부담되어서	3.9
⑥ 2세를 기르고 싶어서	1.9

※ “만약 결혼한다면” 예상 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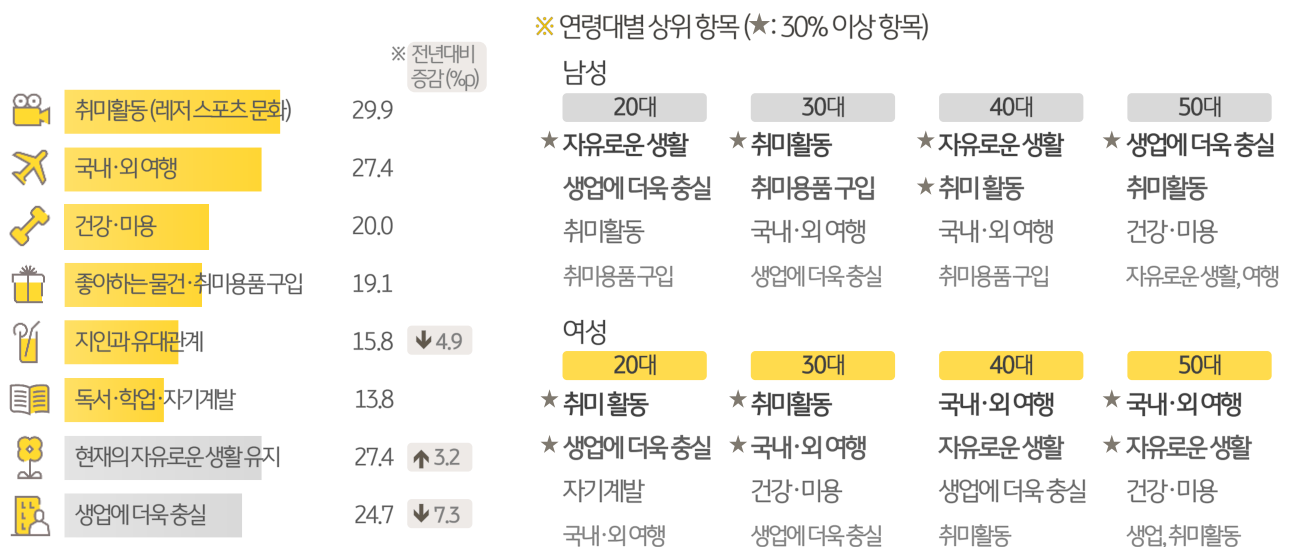
(결혼의향 없는 경우 n=129, 결혼의향 있는 경우 n=646)

결혼 생각이 없는 1인 가구는 시간과 비용을 취미활동과 여행에 좀 더 사용하고 있으며, 전년도에 비해 생업에 충실하겠다는 의견은 줄어든 반면, 자유로운 생활을 유지하겠다는 의견이 소폭 상승함

- 결혼 생각이 없는 1인 가구는 전반적으로는 전년도와 유사하게 취미나 레저, 여행, 스스로를 위한 활동에 좀 더 시간과 비용 등 여력을 쏟아 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정 소득이 있는 미혼자들의 생활과 관련한 사회적 인식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세부 항목별로는 전년도와 다른 경향도 발견되는데, 전년도에 가장 많았던 “생업에 더욱 충실”하겠다는 의견이 상당폭 하락하고, “지인과 유대관계” 응답자 또한 줄어들었음
- 반면 “자유로운 생활을 유지”하겠다는 응답은 소폭 증가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등이 응답에 일부 영향을 준 것이 아닐까 추정
- 연령대 별로는 20대와 50대가 생업에 더욱 충실하겠다는 의견이 높은 편이며, 20대 남성의 경우 자유로운 생활을 유지하고 싶다는 응답이 많은 반면, 20대 여성의 경우 구체적인 취미나 생업 활동, 자기계발을 하고 싶다는 경우가 많아 대조
- “국내·외 여행”의 경우 조사 시점에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던 상황임에도 대부분의 연령층에서 여전히 예전과 같이 높은 응답 비중을 보였으나, 20대 남성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 비중을 보임

그림10 결혼 대신 비용·시간을 할애하는 분야

(단위: %)



(n=1290, 1+2순위)

약 60%가 1인 생활에 만족감을 표시했으나 전년도에 비해 만족도가 소폭 감소하였으며, 공간·여가 만족도에 비해 경제적 만족도는 낮은 편임. 1인 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주거 만족도에 크게 좌우되는 것으로 나타남

- 1인 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여전히 높은 편이나 전년도보다는 소폭 감소하였으며, 생활 분야별 만족도 또한 전년도와 동일하거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1인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공간·환경적 만족도와 여가 측면의 만족도의 절대적 수치는 여전히 높은 편이나 전년도보다 만족도의 하락폭이 큰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19 확산 이후 1인 생활의 장점이 일부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
- 금년도 조사자들의 전체적 만족도는 전 연령대에서 소폭 하락하였으나, 50대 여성의 경우 전년도 대비 유일하게 만족도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생활 전반의 만족도는 소득 및 주거 만족도와 관련성이 높는데, 특히 주거 상태에 만족하고 있는 경우 1인 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가 74%에 달한 반면 주거 상태 불만족자의 생활 만족도는 이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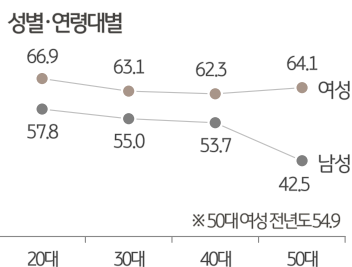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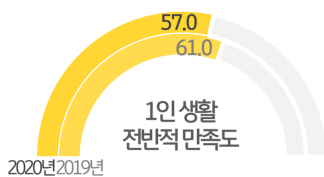
경제력 부족 이유로는 소득 부족과 주거 및 생활비 부담 등을 들고 있어 1인 생활을 위한 공간과 시간 확보를 위해 상당한 경제적 희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1인 생활은 생활에 필요한 대부분의 것을 직접 챙겨야 하며 특히 1인 생활 초기에는 주거 환경이 여유롭지 못한 경우가 많음에도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는 충분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여 1인 생활로 인해 소모되거나 필요한 시간 공간보다 1인생활을 통해 확보한 여유가 만족도에 더 크게 작용
- 다만 ‘돈’은 부족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는데, 원인으로는 또래보다 “소득이 부족”하고 “주거 비용·생활비 부담”이 크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다수였으며, 남성의 경우 “체계적으로 금전관리를 못해서”라는 의견이 여성보다 높게 나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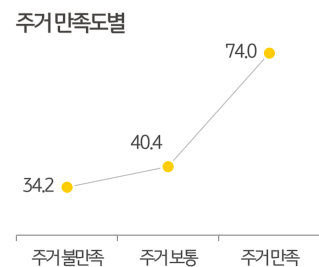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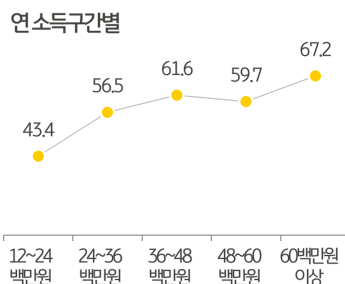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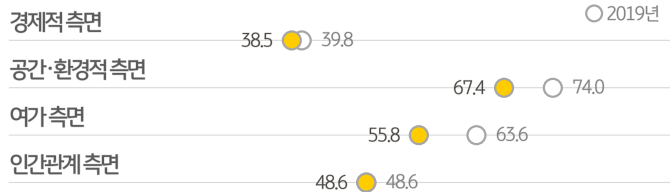
그림11 1인 생활의 분야별 만족도

(단위: %)

• 1인 생활 “만족한다” 응답자



(n=2000)



1인가구는 시간적 여유를 활용하여 다양한 여가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가 동호회나 소모임, 종교 등의 단체활동에는 참가하지 않고 있음

- 조사 대상 1인가구들은 최근 2년간 참여하고 있는 단체활동이 “없다”는 응답이 63%를 차지했으며, 27%는 동호회나 소모임에 참여한 적이 있음
- 종교활동을 하고 있다는 응답은 11.3%에 그쳐 한국의 종교인구 구성비와 크게 차이가 나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는 “단체활동”에 중점을 두고 질문했기 때문으로 보이며, 한편으로는 1인가구는 종교 활동도 단체보다는 개인적 행위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닐까 추측
- 반면 단체활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한 1인가구 중에는 정기적으로 온·오프라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동호회의 경우 절반 이상이, 종교 모임도 네 명중 한 명은 꾸준히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 참여하는 동호회·소모임은 남성은 스포츠 관련이 가장 많았으며, 여성은 여행과 스포츠 외에도 스터디, 토론, 음악, 요리 등의 모임에 참여자가 골고루 분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12 1인 생활을 하며 부족한 것과 이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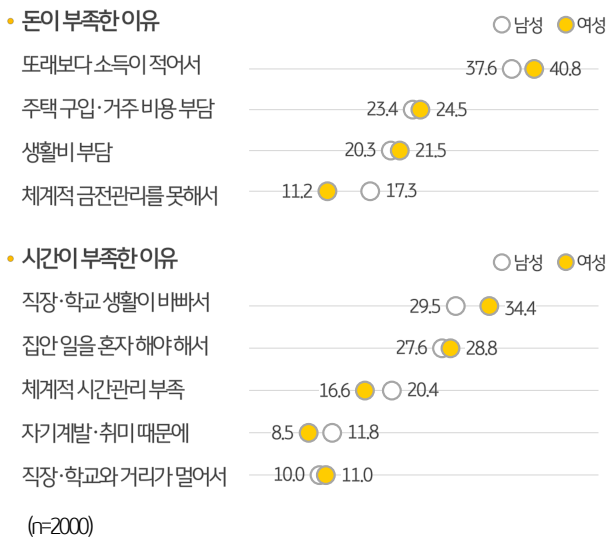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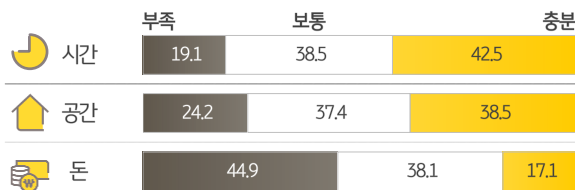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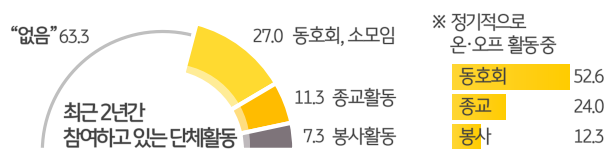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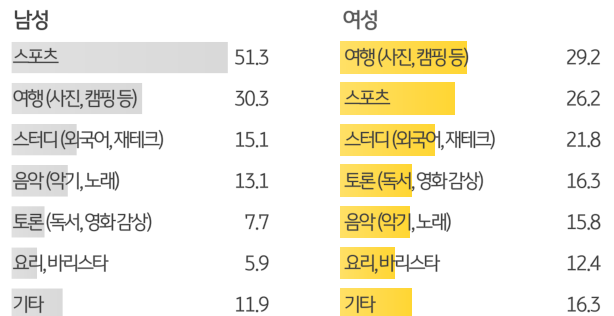


그림13 단체·종교 활동 참여 여부 (단위: %)



• 참여 동호회·소모임 종류



(n=2000,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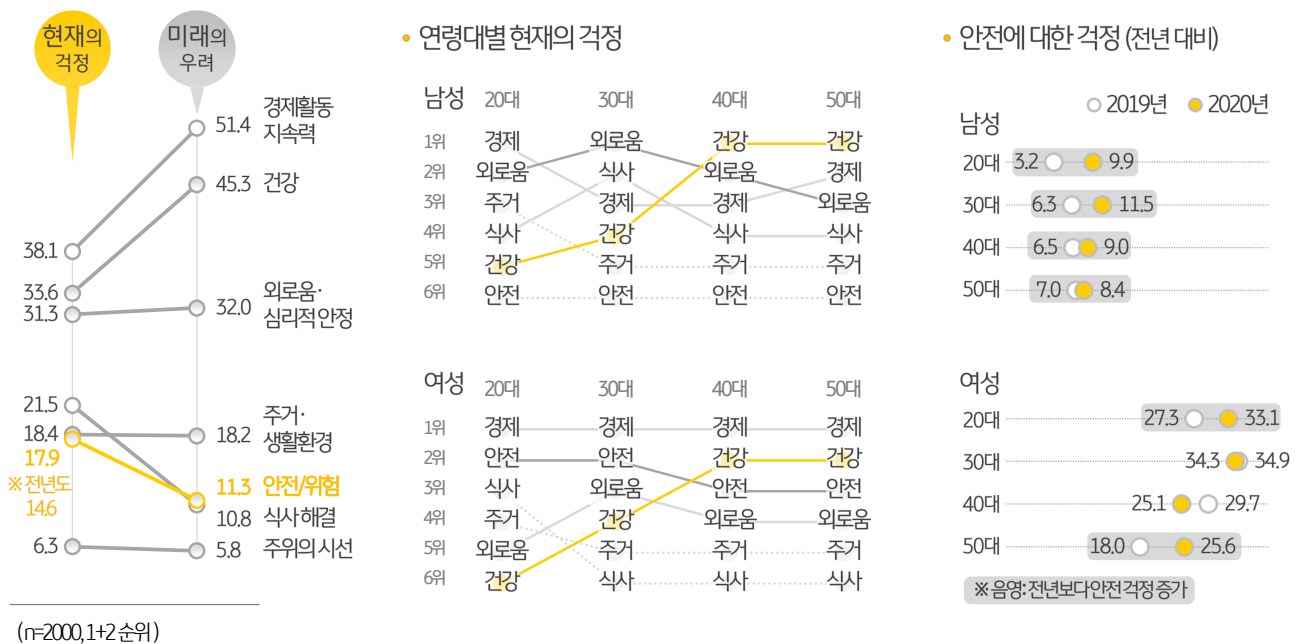
2. 1인 생활의 어려움과 우려

1인가구의 가장 큰 우려는 **미래 경제활동 지속 가능 여부**이며, 우려 수준은 전년도보다 대부분 낮아졌으나 **코로나19 이후 안전·위험 걱정**은 증가하였으며 여성만이 아니라 남성의 안전 우려 수준도 높아짐

- 1인가구들의 경제력, 건강, 외로움에 대한 걱정 수준은 여전히 상당히 높은 편으로, 특히 현재보다는 미래에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지 우려가 더 큰 편
- 다만 전년도에 비해 1인 생활의 걱정·어려움 수준은 대다수 항목에서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발적으로 1인 생활을 선택한 경우가 증가하고 1인 생활의 만족도 수준이 유지되고 있는 것과 맥락을 함께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현재의 걱정 중 유일하게 전년도에 비해 걱정이 늘어난 분야는 안전·위험으로, 안전·위험은 이제까지는 주로 여성 1인가구의 걱정거리였으나, 금년도에는 남성 1인 가구 전 연령대에서도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점이 눈에 띈
- 이러한 결과는 코로나19 상황이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연령대별 현재의 걱정 우선순위에서 남성 40·50대는 전년도에는 “외로움”을 가장 큰 걱정거리로 꼽았으나, 올해는 “건강”이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
- 여성은 전 연령을 통틀어 경제력이 현재 가장 큰 걱정거리이나 올해는 20·30대는 “안전”, 40·50대는 “건강”에 대한 우려가 이슈로 부상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이후 상황 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임

그림14 1인 생활의 걱정거리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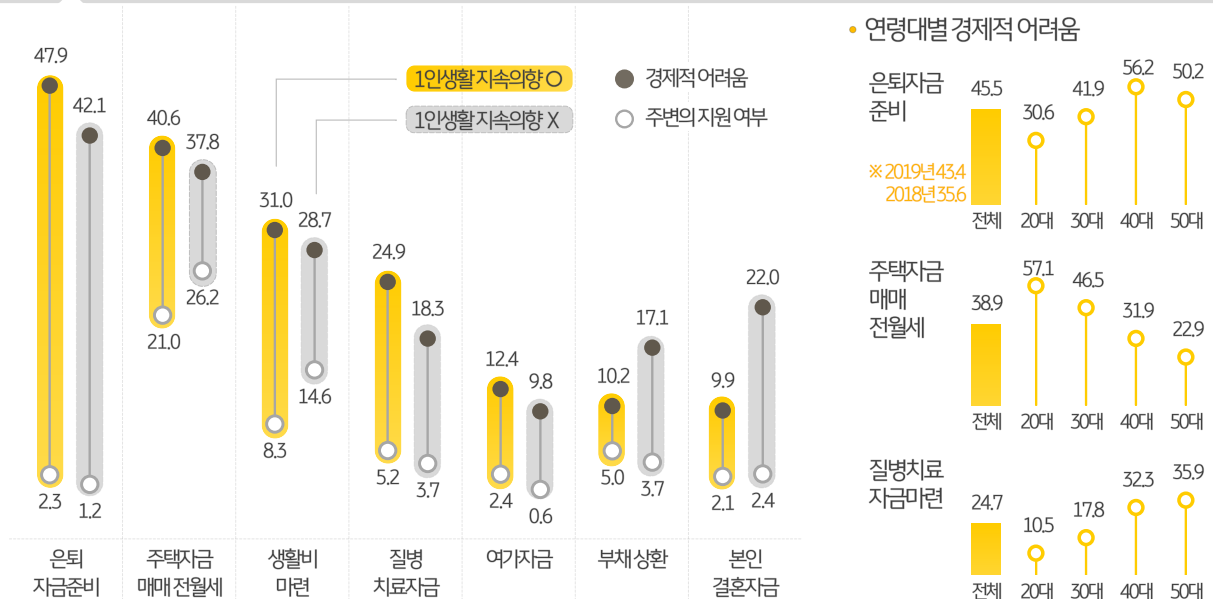
1인가구는 경제적으로 **은퇴자금** 준비, **주택자금** 마련, **생활비** 마련, **질병 치료자금**의 순으로 걱정을 하고 있으며, 1인생활 지속 의향에 따라 경제적 걱정 수준과 항목에 차이가 있음

- “은퇴자금 준비” 걱정은 과거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가장 많은 1인가구의 경제적 고민을 차지하고 있는데, 1인가구의 생활 우려가 예년에 비해 일부 완화되는 경향에도 불구하고 은퇴자금 준비 걱정은 매년 더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대별로 보면 40대는 은퇴자금 준비 걱정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반면, 20·30대는 주택 매매·전월세 자금 걱정이 크며 50대의 경우 은퇴자금과 함께 질병치료 자금마련이 해결해야 할 큰 문제로 꼽힘
- 향후 1인 생활을 지속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도 경제적 우려 수준이 다른데, 대부분의 항목은 1인 생활을 계속 이어가려는 그룹의 걱정이 큰 반면, 부채와 결혼자금에 관해서는 1인가구 생활 지속의향이 없는 그룹에서 걱정이 큼
- 과거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경제적 어려움 해결에 주변의 지원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특히 은퇴자금 준비는 우려 수준도 높지만 지원 또한 거의 없는 수준. 다만 주택자금 마련에 한해서는 가족·주변의 지원을 활용하는 경우가 어느 정도 있으며 생활비 지원도 소폭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1인가구가 **생활상 어려움**을 겪는 분야는 전년도와 유사하나, **남성은 과거보다 1인 생활에 좀 더 익숙**해지고 있는 경향이 관찰

- 생활상 어려움은 여성 1인가구보다는 남성이 좀 더 어려워하는 분야로, 남성은 식사와 청소, 여성은 주거환경 수리와 집구하기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점은 전년도 조사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15 1인 생활의 경제적 우려 항목 및 주변 지원 활용 현황 (단위: %)



(1인생활 지속의향자 n=1123 1인생활 지속의향없음 n=164, 1+2 순위)

1인가구는 대부분의 **생활상 어려움**은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나 식사 마련이나 세탁물 처리 등에서 일부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여 생활상의 부담을 덜고 있는 모습도 관찰

- 다만 남성 1인가구는 전년도에 비해 식사와 청소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응답자 비율이 낮아진 반면, 여성의 경우는 전년도와 큰 변동이 없거나 일부 더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응답자가 증가하고 있음
- 이는 남성 1인가구의 증가라는 최근 1인가구 인구구성 변화에 따라 남성들도 과거보다는 1인 생활에 적응하고 있는 경우가 늘어난 영향으로 보임
- 생활상의 어려움은 최대한 혼자 해결해보려고 하고 있으며 연령대가 낮을수록 검색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외에도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문의하는 등 비교적 적극적으로 다른 이들의 힘을 빌려서 문제를 해결하려 함
- 생활상의 어려움을 구매나 서비스 업체를 통해 해결하려는 경우는 음식물·반찬이나 세탁물 처리 정도 외에는 아직 일반화되어 있지는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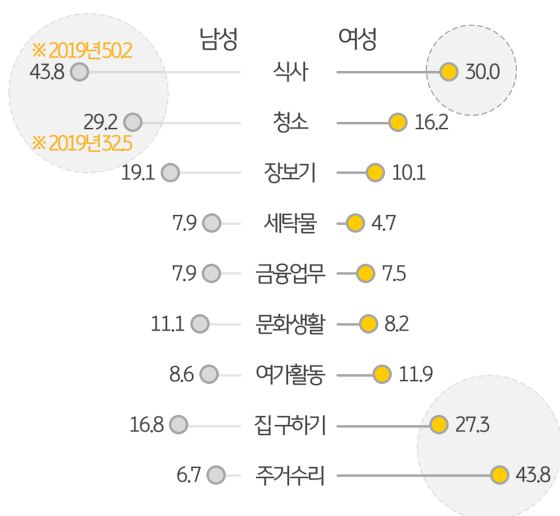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안전**에 대해 좀 더 민감해진 부분도 있으나, 안전에 관련된 개별 항목들에 대한 우려는 **과거에 비해 완화**됨

- 1인 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안전과 관련된 우려는 전반적으로 예년에 비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주거침입이나 도난 등 치안과 관련된 분야에 대한 걱정은 하락하고 있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남
- 다른 항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안전에 관한 관심 자체는 증가하였음에도 구체적인 개별 항목을 제시했을 때의 걱정 수준은 점차 낮아지면서 안전 우려사항이 “없다”는 응답도 전년보다 소폭 상승함

그림16 1인 생활상의 어려움과 해결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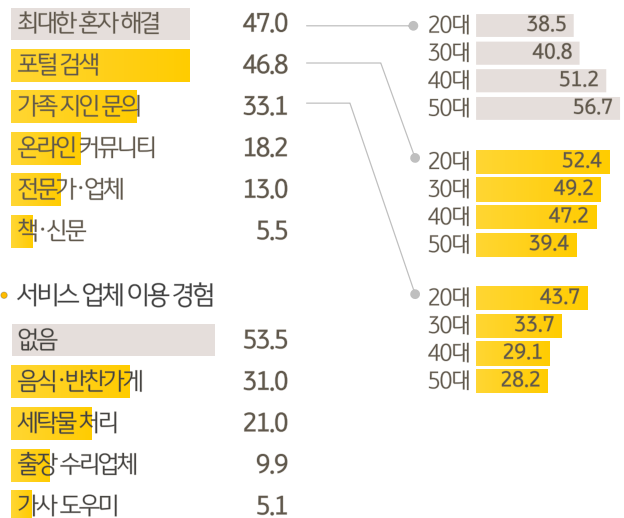
(단위: %)

• 생활상의 어려움



(n=2000)

• 해결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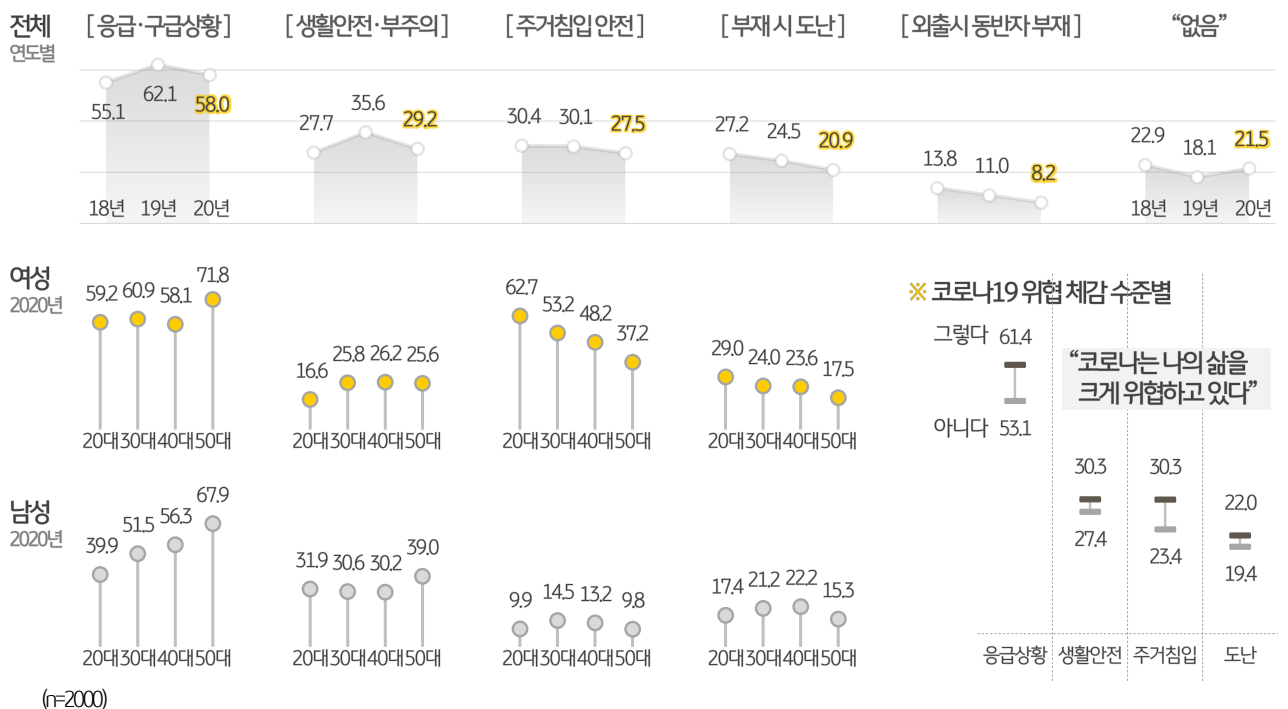
치안 우려가 과거에 비해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거침입**에 대한 **여성 1인가구의 걱정** 수준은 여전히 매우 높음

코로나19의 위협을 크게 체감하고 있는 경우 생활상 **안전에 대한 우려** 또한 더욱 크게 느끼고 있음

- 여성의 주거침입 안전에 대한 걱정은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20대 여성의 경우 도난 위험에 대한 체감도도 여전히 낮다고 할 수 없는 수준
- 한편 응급 구급상황에 대한 걱정과 생활안전 걱정은 2019년보다는 완화되었으나 2018년보다는 소폭 높은 수준이며, 특히 생활안전 걱정은 여성보다도 남성 1인가구가 더 많이 염려하고 있음
- 응급상황에 대한 걱정은 주거하는 곳에서 혼자 있는 경우가 많은 1인가구가 가장 걱정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이후 보건·질병 예방에 관심이 많아진 영향 또한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코로나19의 위협 체감도 그룹별로 생활 안전에 대한 우려 정도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항목에서 코로나19 위협을 크게 느끼는 그룹이 안전에 대해서도 좀 더 걱정하고 있으며, 특히 응급상황에 대한 걱정은 양 그룹간 격차가 비교적 큰 편임
- 응급상황에 대한 우려는 상대적으로 고연령대인 50대 남녀 1인가구에서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어 이들은 가족 외에도 응급상황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안전망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은 것으로 보임

그림17 1인 생활 관련 안전에 대한 우려

(단위: %)



혼자 하는 데 불편함을 느끼는 행동으로 여성은 여행, 남성은 문화생활을 많이 꼽았으나, 불편을 느끼지 않는다는 응답이 전년도보다 상승하여 1인가구의 1인 단독행동 방식이 더욱 확고해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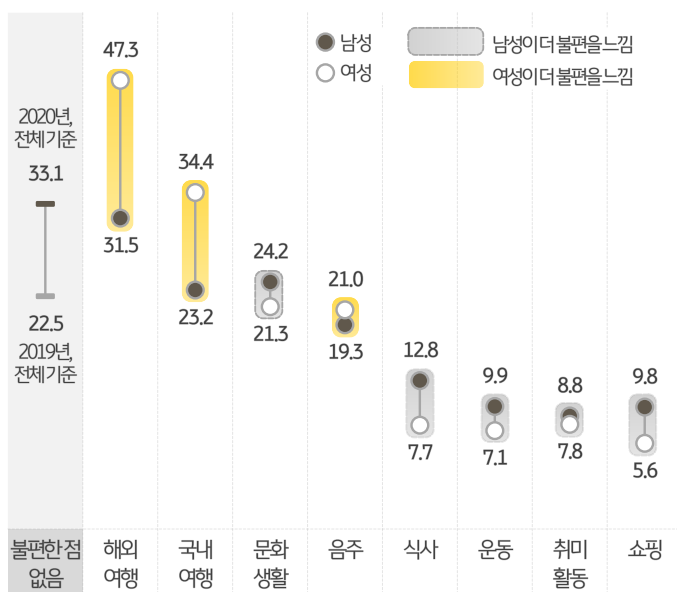
혼자 하는 행동이 불편한 이유로 1인을 위한 서비스 부재, 1인용이 더 비싼 경우를 지적한 응답자가 증가

- 전년도에 비해 혼자 하는 데 불편을 느끼는 행동이 없다는 의견이 크게 상승하였음. 한편 여성 1인가구의 상당수가 여가 활동으로 여행을 꼽고 있음에도 다른 한편에서는 혼자 여행하는 것에 불편을 느끼는 여성도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문화생활 또한 다른 문항에서는 1인가구들은 혼자 즐기려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상당수의 남성 1인가구에게 있어서 문화생활은 아직도 혼자서 하기에는 어색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도 함
- 식사나 운동 취미활동 쇼핑 등 일상활동을 혼자 하는 것에 불편을 느끼는 1인가구는 상대적으로 소수이지만 남성의 경우 여전히 이러한 일상을 혼자 하는데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여성보다 많이 나타나고 있음
- 불편을 느끼는 행동이 없다는 응답이 전년도에 비해 상승한 것과 마찬가지로 혼자 하는 행동이 불편한 이유로 익숙하지 않다는 것을 꼽은 경우는 줄어든 반면, “1인용이 구비되지 않음” “1인용이 더 비쌌” 등 제공되는 서비스 자체가 부족하거나 불만이라는 점을 이야기하는 1인가구가 늘어났음
- 특히 20대 여성은 1인용이 더 비쌌을, 50대 남성은 1인용 서비스가 구비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남

그림18 혼자하기 불편한 행동과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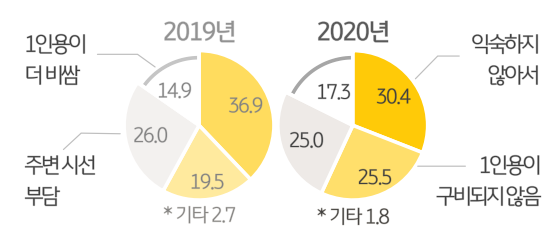
(단위: %)

• 혼자하기 불편한 행동



(n=2000, 복수응답)

• 혼자하는 활동이 불편한 이유



※ 혼자하는 활동 불편 이유 1순위

연령대	성별	1인용이 더 비쌌	주변시설 부담	익숙하지 않아서	1인용이 구비되지 않음
20대	남성 1인가구	35.3%	28.3%	35.3%	1.1%
20대	여성 1인가구	33.9%	28.3%	35.3%	1.1%
30대	남성 1인가구	35.3%	28.3%	35.3%	1.1%
30대	여성 1인가구	33.3%	28.3%	35.3%	1.1%
40대	남성 1인가구	35.3%	28.3%	35.3%	1.1%
40대	여성 1인가구	33.3%	28.3%	35.3%	1.1%
50대	남성 1인가구	35.3%	28.3%	35.3%	1.1%
50대	여성 1인가구	37.3%	28.3%	35.3%	1.1%

03 1인가구의 성향과 생활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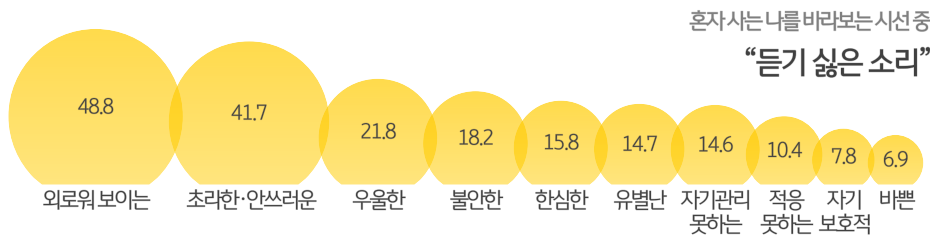
1. 1인가구의 성향과 가치관

외로움은 1인가구가 겪는 가장 큰 심리적 어려움이지만 동시에 **가장 듣고 싶지 않은 말**이기도 하며, 남들에게 초라하고 **우울**하게 보이고 싶지 않다는 응답이 많음. 남성은 **“자기관리 못하는”**, 여성은 **“유별난”** **“불안해 보이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컸음

- 1인가구가 가지고 있는 자아상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자아상으로 “자유로운” “편안함”을, 부정적인 자아상으로는 “외로워 보이는” “정적인” 등을 꼽음
- 올해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지우고 싶은 이미지나 듣기 싫은 소리를 추가로 질문한 결과 “외로움” “초라한”이 가장 많이 선택되었으며, “우울한”도 상당수의 1인가구가 듣고 싶지 않다고 말하고 있어 1인가구에 대한 정서적인 접근에서 고려할 필요
- 한편 “남들에게 듣고 싶지 않은 말”은 가장 두려워하고 피하고 싶은 상태를 말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각 연령대별 반응을 살펴보면 전체 12위인 “외로워 보이는” “초라한”을 제외하면 남성 30~50대는 “우울함”을 많이 꼽고 있어 정신건강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계층이 있을 것으로 보임
- 이와 함께 남성은 “자기관리 못한다”는 말도 듣고 싶어하지 않았는데, 특히 20대 남성은 “자기관리 못하는” “적응 못하는” 등을 꼽아 이들이 처한 경쟁적 환경을 시사
- 여성 1인가구는 “유별나고” “불안해 보이는” 것을 싫어하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 1인가구가 처한 환경에서 접하는 무신경한 반응에 대한 반작용이 아닐까 추정

그림19 1인 생활을 하는 나를 바라보는 시선 중 지우고 싶은 이미지

(단위: %)



연령대별 듣기 싫은 소리 3~6위 (1위 “외로워 보이는”, 2위 “초라한” 제외)

남성	연령대				여성	연령대			
	20대	30대	40대	5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자기관리 못하는	우울한	우울한	우울한	우울한	우울한	유별난	불안한	불안한	
우울한	불안한	불안한	한심한	불안한	우울한	유별난	우울한	우울한	
적응 못하는	자기관리 못하는	한심한	자기관리 못하는	자기관리 못하는	불안한	한심한	유별난	유별난	
유별난	한심한	자기관리 못하는	유별난	한심한	한심한	우울한	한심한	한심한	

(n=2000, 1+2+3 순위)

다수의 1인가구가 1인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이끌어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이와 같은 **자기 주도적 가치관이 소신 표현**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증가

- 1인가구의 가치관과 관련된 질문을 던진 결과 전반적으로 다수의 1인가구에서 “자기 주도성”이 강하게 드러났으며, 남성보다는 여성에게서 이러한 현상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남
- 자기주도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응답한 1인가구가 절반을 넘었고 아니라고 응답한 경우는 10% 정도에 불과하였으며 일상생활에서 소신을 표현하는 편이라는 질문에 대한 동의·비동의도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남
- 가치관에 맞으면 어느 정도 불편을 감수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하는 비율도 절반에 육박하고 있으며,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중시한다는 의견도 상당히 높은 편
- 대중화되지 않은 ‘다른’ 생활 방식에 대한 인정이나 배려와 관련, “비건(완전 채식주의)”에 대한 인정은 동의·비동의 수준 차이가 다른 질문들에 비해 크지 않았음
- 반면 다수의 1인가구가 놓여있는 환경과 가까운 “비혼족”이라는 선택에 대한 인정은 질문 들 중에서 가장 많은 동의율을 얻어 앞서 문항에서 결혼 의향이 없는 1인가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나온 결과와 동일한 흐름을 보여줌
- 남성 1인가구도 전반적으로 자기주도적 가치관에 동의하고는 있으나 동의 응답자 비중은 여성보다는 낮은 편이며, 남성 20대는 소신 표현과 비혼족의 삶, 남성 40대는 비건에 대한 인정 질문에 동의하지 않는 비중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남

그림 20 1인가구의 자기주도적 가치관 경향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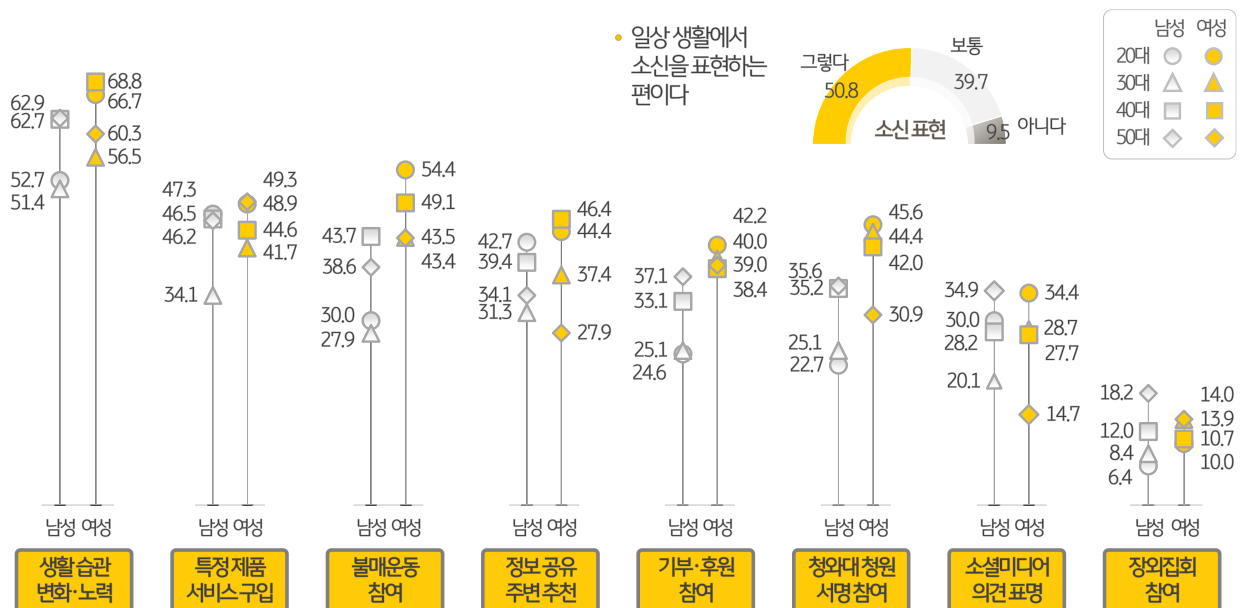


일상 생활에서 소신을 표현하는 1인 가구의 상당수가 **생활습관 변화 노력**, 특정 제품 구매, **불매운동**, **정보 공유**, **기부·후원**, **청와대 청원** 등을 통해 소신을 행동으로 옮김

- 앞서 본 바와 같이 다수의 1인가구들의 삶에서 “혼자 하는” 활동이 늘어나고 이에 점차 익숙해지면서 개인화 경향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나, 1인가구들의 소신 표현 성향이 강화되면서 ‘나’와 관계된 것이거나 혼자서도 쉽게 행동에 옮길 수 있는 행위들에 대해서는 소신을 직접 행동으로 옮기는 모습도 다수 보여주고 있음
- 소신 표현을 하는 1인가구 중에서 환경보호 실천과 같이 추구하는 가치와 부합하는 방향으로 기존 생활 습관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한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특정 기업·서비스를 응원하거나 성토했기 위해 소비자로서 행동에 옮긴 경우, 직접 기부나 후원을 한 경우도 비교적 높게 나타남
- 또한 관련 정보를 공유하거나 주변에 추천하고 청와대 청원 등에 참여하거나 소셜 미디어에 의견을 쓰는 등 인터넷·모바일 환경 위주로 소신을 표현하는 1인가구들도 상당수이나, 장외집회에 참여했다고 응답한 1인가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
- 남녀별로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는 소신을 행동으로 옮기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20·30대는 여성이 남성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행동함
- 연령대별로도 남녀의 행동에 차이가 나타나는데 여성은 50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소신을 행동으로 옮긴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남성은 20대가 다른 연령대보다 소신 표현 행동자가 적은 편임

그림 21 추구하는 가치·소신 표현을 위해 취한 행동

(단위: %)



(소신 표현자 n=1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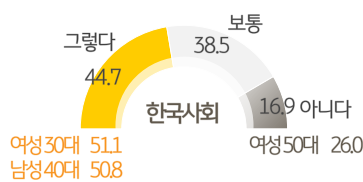
1인가구의 라이프스타일 관련 인식은 **자신감과 불안함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으로, 스스로 삶을 이끌어간다는 **자기주도성향 강화**에도 불구하고 **삶의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자원과 서비스의 필요성을 체감하고 있음

- 1인가구들은 “현재 한국사회는 다인가구보다 1인가구로 사는 게 편리하다”는데 약 45%가 동의했음. 다만 여성 50대의 4명 중 1명(26.0%)은 여기에 동의하지 않고 있어 1인 생활의 만족도와는 별개로 생활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임
- 1인가구로 사는 게 편리하다는 인식에도 불구하고 절반을 넘는 1인가구가 “사회·경제적으로 1인가구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부족하다”고 말함. 여성 30·40대가 여기에 동의하는 경우가 많으며, 남성 20대는 동의하지 않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 “계속 혼자살면 사회·경제적으로 취약계층이 될 것 같다”에는 약 40%가 동의함. 인접한 연령대인 30대와 20대 간의 인식차이가 눈에 띄는데, 30대는 동의 비중이 가장 높은 반면, 20대는 좀 더 희망적인 견해를 가진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외로움·우울감 해소를 위한 상담 참여 의향”에는 동의·보통·비동의 간에 큰 차이가 없었음. 연령대나 상황에 따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으나 여성 20·30대는 동의 비율이, 남성 20대는 비동의 비율이 높아 남녀간 인식·행동 차이로 해석될 여지도 있음
- 젊은 연령대에서는 “웰다잉^{Well-Dying}”에 대한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며, 여성 40·50대는 10명 중 4명이 “고독사 기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반면 남성은 50대를 제외하고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낮은 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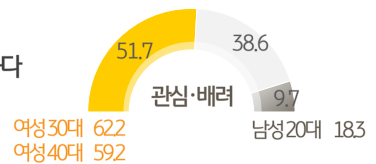
그림 22 1인가구 생활 방식과 관련된 인식 동의 수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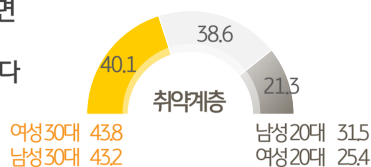
• 현재 한국사회는 다인가구보다 1인가구로 사는 게 편리하다



• 사회·경제적으로 1인가구에 대한 관심·배려가 부족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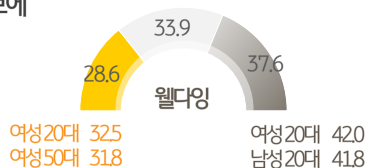
• 나이 들어도 혼자살면 사회·경제적으로 취약계층이 될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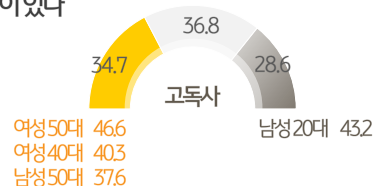
• 외로움·우울감 해소를 위해 커뮤니티나 상담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



• 웰다잉 Well-Dying 정보에 관심이 있다



• 고독사 기사에 관심이 있다



(n=2000, 연령대별 표시는 그렇다/보통/아니오 중 가장 높은 응답비율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평균보다 높게 응답한 경우를 표시)

2. 1인가구의 생활 행태, 코로나19의 영향

1인 생활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여가 활동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온라인 쇼핑과 독서**가 부상하는 등 과거보다 **집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의 비중이 늘었으며, 남성보다는 **여성**이 **다양한 여가 활동**을 즐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1인가구들이 여가활동으로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은 TV·모바일 영상 시청(70.5%)이며, 가장 손쉽게 접할 수 있기에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좀 더 많이 이용하는 등의 차이는 있으나 전 연령대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응답 비중을 보여줌
- 전년도에는 ‘영화관’ ‘번화가 쇼핑물 걷기’ 등 집 밖에서 하는 행동의 비중이 높았으며, 특히 여성들은 집 밖·관계지향적 활동의 비중이 높았으나, 올해는 “최근 1년간”이라는 전제에도 집 밖 활동의 비중이 줄고 집 안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여 코로나19가 여가활동에 큰 변화를 가져왔음을 짐작해 볼 수 있음
- 특히 “온라인 쇼핑”도 여가활동의 관점에서 문항에 추가한 결과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TV·모바일 시청 다음으로 많이 꼽혔으며, 전년도에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지 않았던 ‘독서’가 급부상한 점에도 주목
- 남성 20·30대에서는 ‘게임’이 다른 여가활동을 압도하는 비중을 보여주고 있으며, 남녀 20·30대에서는 ‘홈 트레이닝’ 비중이 증가하였음. 또한 여성을 중심으로 ‘식물 기르기’도 상대적으로 주목받음. 전반적으로 같은 연령대끼리 비교하면 남성보다는 여성이 다양한 분야의 여가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23 최근 1년간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여가활동 (TV·모바일 영상 시청 제외) (단위: %)



코로나19 확산 전 1인가구들이 많이 하던 **실외 활동**들의 상당수가 **줄어들면서** 1인가구의 **행동 방식도 크게 변화**하였고, 특히 1인가구와 사회를 이어주는 **관계지향적 활동의 감소**가 눈에 띄면서 **개인화 경향**이 가속화되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추정

- 2020년초부터 코로나19의 확산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시되고 비대면 방식이 큰 흐름이 되면서 사회 구성원 전체의 행동 양식에 큰 변화를 가져온 것과 마찬가지로 1인가구의 행동 양식 또한 바뀌고 있음
- 1인 생활이 익숙한 1인가구의 경우 이미 실내 활동 위주의 생활을 하던 경우도 많아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 무리없이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줄어들게 된 다수의 행동들이 1인가구 입장에서는 사회와 자신을 연결해주는 관계지향적 행동에 가까운 것들이 많았다는 점에서 향후 이들의 개인화 경향이 더욱 가속화되는 계기로 작용하지 않을까 추정
- 실외·집 밖 행동 중 가장 많이 감소한 행동은 전년도와 올해 조사에서 1인가구의 여가활동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극장·공연장 방문’으로 나타남
- 이와 함께 ‘오프라인 지인모임’을 자제하는 분위기도 많았으며, ‘가족·친인척 방문’도 크게 감소하였음. ‘등산’이나 ‘학원 문화센터’는 상대적으로 덜 감소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기존에 해당 활동을 했던 1인가구의 비중과 연관시켜 고려하면 해당 활동자 중에서는 상당폭 감소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음
- 연령대별로는 40·50대는 ‘국내여행’을 자제한 경우가 많았으며 남성 20대는 ‘헬스장 야외운동’, 여성은 ‘번화가 쇼핑물 걷기’ ‘맛집 탐방’ 등의 행동을 과거보다 줄였음

그림24 1인가구의 활동 중 코로나19 확산 이후 줄어든 활동 (코로나 확산 이전과 비교 시)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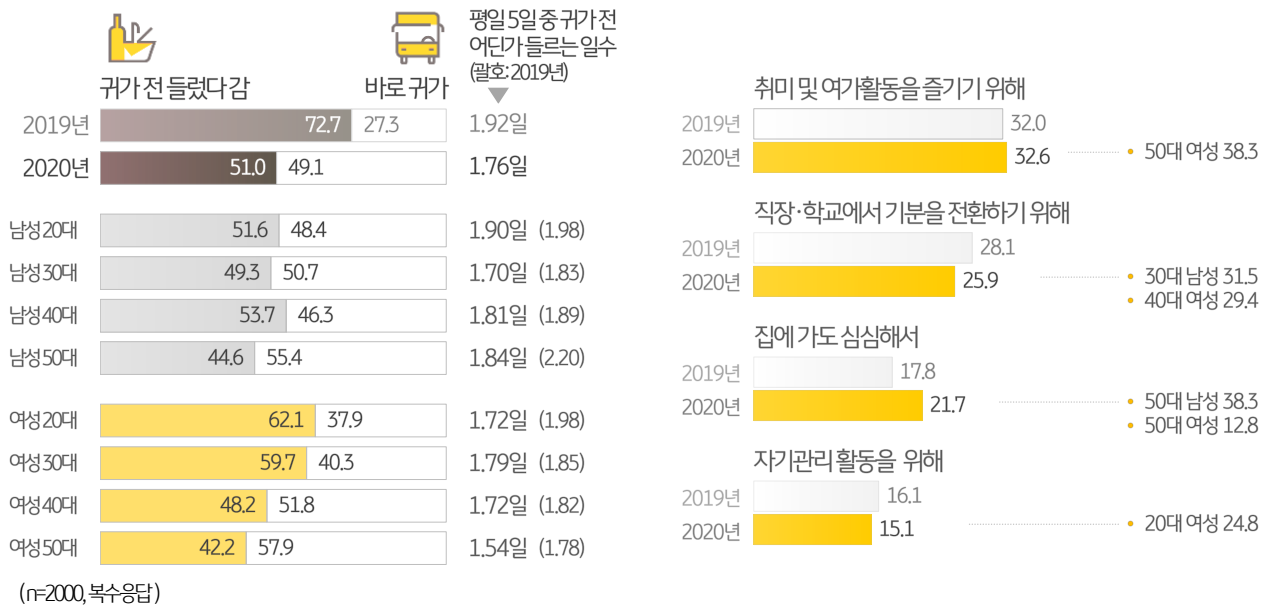
실내활동		실외·집밖활동		※ 연령대별 상위 항목 (극장·공연장, 오프 지인모임 제외, ★는 30% 이상)			
가족·친인척방문	21.6	극장·공연장	42.9	• 남성 20대 30대 40대 50대 헬스장야외운동 국내여행 ★국내여행 ★국내여행 실외취미활동 헬스장야외운동 번화가쇼핑물 번화가쇼핑물 국내여행 번화가쇼핑물 헬스장야외운동 가족친인척방문 맛집탐방 실외취미활동 가족친인척방문 헬스장야외운동			
실내취미활동	3.8	오프 지인모임	37.0	• 여성 20대 30대 40대 50대 ★번화가쇼핑물 ★번화가쇼핑물 ★국내여행 ★국내여행 ★맛집탐방 ★국내여행 ★번화가쇼핑물 ★가족친인척방문 국내여행 맛집탐방 가족친인척방문 맛집탐방 헬스장야외운동 헬스장야외운동 맛집탐방 번화가쇼핑물			
온라인쇼핑	2.5	국내여행	31.3				
TV, 영상·영화감상	2.5	번화가·쇼핑물걷기	26.9				
식물키우기	2.0	헬스장, 야외운동	24.2				
홈트레이닝	1.9	맛집탐방	23.3				
반려동물키우기	1.8	실외 취미 활동	19.9				
게임	1.8	드라이브·나들이	15.6				
독서	1.8	등산	9.0				
커뮤니티·SNS	1.7	학원·문화센터	6.7				

(n=2000, 복수응답)

‘워라벨과 일하는 방식의 변화’로 하루 일과를 마친 후 혼자 여가를 보내는 경우가 많은 1인 가구들은 **다양한 활동을** 추구하고 있으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바로 귀가**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행동 방식에도 변화가 발생

- 전년도에는 주중 평일에 바로 귀가하지 않고 식사 외의 목적으로 어딘가에 들르는 1인가구의 비중이 70%를 넘었으나, 올해는 절반 정도는 바로 귀가한다고 응답
- 바로 귀가하지 않는 경우 주중 5일 중 어딘가에 들르는 일수 또한 전년도 1.92일에서 1.76일로 줄어드는 등 코로나19 확산 이후 일과 후 행동 패턴에 변화가 발생
- 50대 남성은 전년도 조사에서 귀가 후 어딘가에 들르는 일수가 가장 많았으나 올해는 감소폭이 가장 두드러졌으며, 50대 남성·여성 모두 일과 후 바로 귀가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됨
- 여성은 연령대가 낮을수록 바로 귀가하지 않고 어딘가 들르는 경우가 많았으며, 남성의 경우 20대와 40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소폭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바로 귀가하지 않는 이유로는 ‘취미 여가활동을 즐기기 위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직장 학교에서 기분을 전환하기 위해’ ‘심심해서’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집에 가도 심심해서’ 응답은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였는데, 특히 50대 남성의 응답 비중이 높았던 반면 여성 50대는 가장 낮은 응답 비중을 보여 동일 연령대 남녀간 대조를 보여줌
- 하루 일과로 시간을 보내며 지친 자신에게 보상 성격의 시간을 주려는 의도로 보이는 ‘직장 학교에서 기분을 전환하기 위해’ 응답자는 여전히 비중이 높은 편이나, 전년도보다는 소폭 감소

그림25 평일 일과 이후 바로 귀가하지 않는 경우, 바로 귀가하지 않는 이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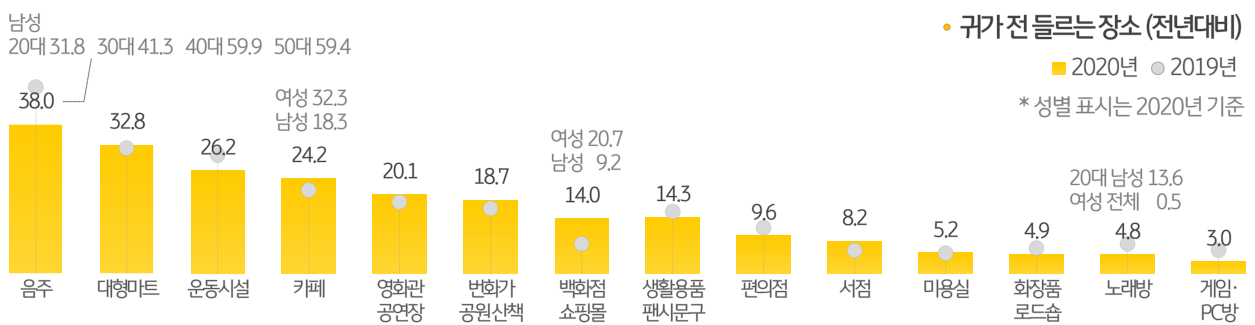


1인가구가 바로 귀가하지 않을 때 방문하는 곳은 '음주'와 관련된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 전년도에 비해 비중은 상당폭 감소하였으며, 코로나19의 위협을 크게 체감하는 그룹의 경우 대중 이용시설 방문을 좀 더 적극적으로 기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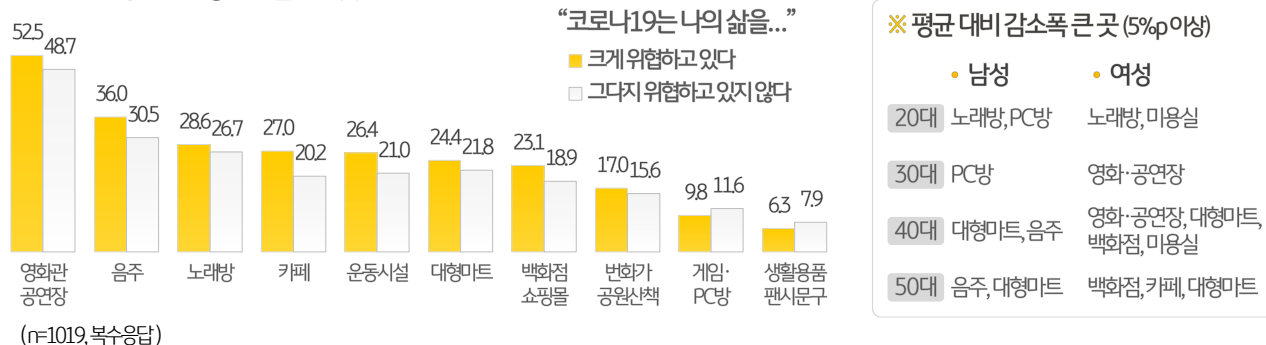
- 1인가구가 바로 귀가하지 않을 경우 식사를 제외하고 시간을 보내는 장소 상위은 '음주 관련' '대형마트' '운동시설' '카페' 등의 순으로 전년도와 유사하나, 음주와 운동 시설 응답자 비중은 상당폭 감소하는 등의 변화가 나타남
- 음주는 연령대별 차이가 큰 항목으로 남성 50대는 약 60%가 일과 후 음주를 위해 어딘가를 방문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 남성 20대는 50대의 절반인 약 32%만이 방문하고 있음. 카페, 백화점·쇼핑몰 방문 비중은 남녀간 차이가 큰 편으로 나타남
- 코로나19 확산 이후 방문 횟수가 가장 많이 줄어든 곳 또한 실외 활동 감소와 마찬가지로 '영화관·공연장'으로 나타났으며, 20대 남성의 경우 일과 후 노래방을 가는 경우가 상당수 있었으나 코로나19 확산 이후 방문이 상당폭 감소
- 코로나19의 위협을 크게 체감하는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대부분의 장소에 방문 빈도 감소폭이 좀 더 컸으며 대중 이용시설 방문 기피가 뚜렷했음. PC방은 방문 감소 상위에 오르지는 않았으나 주요 고객층인 남성 20·30대에서 평균보다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나 실제 방문 기피율은 더 높았을 것으로 추정

그림26 1인가구가 귀가 전 들렀다 가는 장소, 코로나19 확산 전후의 변화

(단위: %)



• 코로나19 확산 이후 방문이 감소한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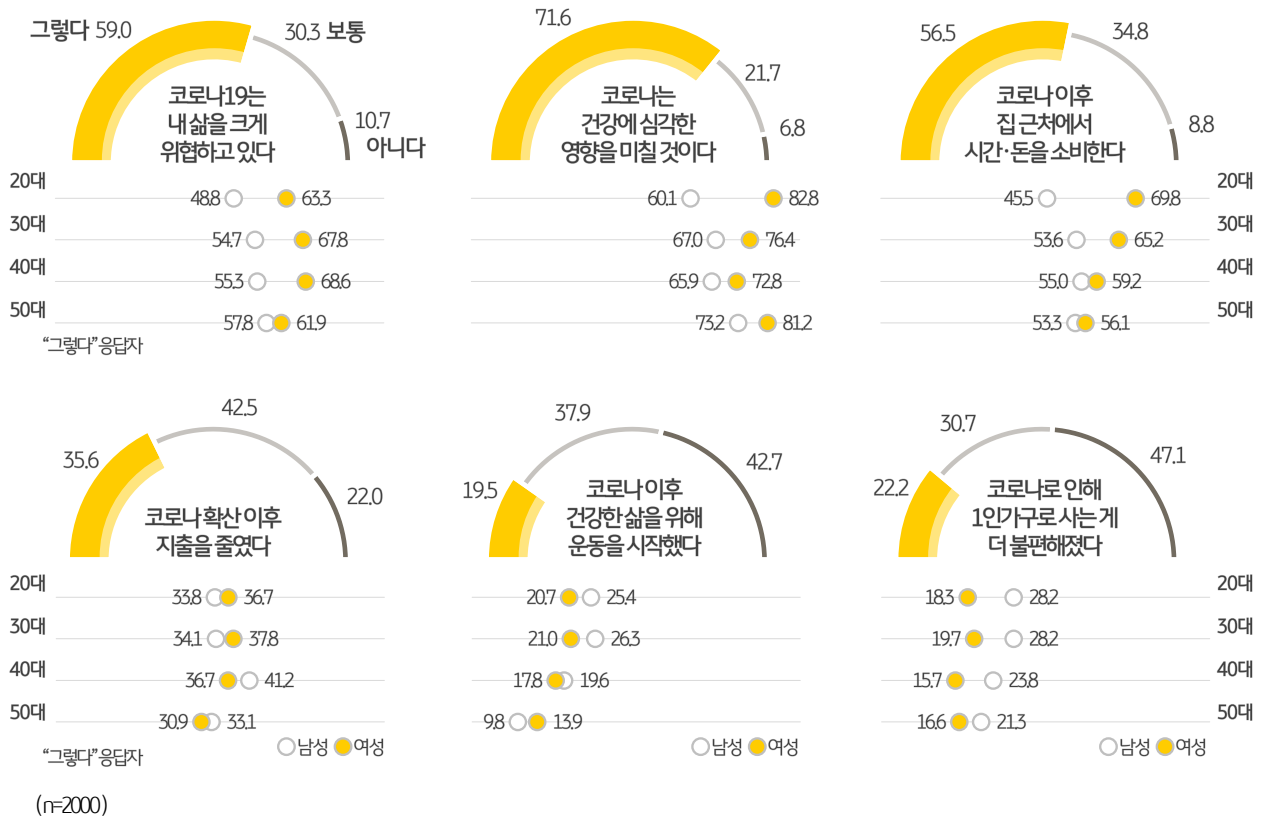
※ 평균 대비 감소폭 큰 곳 (5%p 이상)

연령대	남성	여성
20대	노래방, PC방	노래방, 미용실
30대	PC방	영화·공연장
40대	대형마트, 음주	영화·공연장, 대형마트, 백화점, 미용실
50대	음주, 대형마트	백화점, 카페, 대형마트

1인가구의 상당수가 **코로나19의 위험을 체감**하고 있으며, 코로나19의 확산 이후 **집 근처에서 시간과 돈을 소비**하는 경향이 강화됨

- “코로나19가 내 삶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에는 약 60%가, “코로나19에 걸리면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데는 약 70%의 1인가구가 동의했으며, 남성보다는 여성의 경각심이 더 큰 편
- 코로나19 확산 이후 집 근처에서 시간과 돈을 소비하는 현상에 대해 절반을 넘는 응답자가 그러한 경향이 있다고 응답했는데, 20대 여성은 약 70%의 가장 높은 동의를 보여준 반면 20대 남성은 유일하게 절반 이하만 동의하고 있음
- 코로나19 확산 이후 지출 규모를 줄였다는 문항에는 약 36%가 그렇다고 응답했는데, 특히 40대 남성의 응답자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코로나19 확산 이후 건강을 위해 운동을 시작했다는 문항에는 약 20%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20·30대 남성의 응답자 비율이 가장 높았음
-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1인가구로 사는 게 더 불편해졌다”는 여성보다 남성의 동의율이 더 높아,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이 여성보다 낮은 것과는 별개로 1인가구로서 사는 일상에 대한 어려움을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이 느끼고 있다는 앞서의 조사 내용과 연결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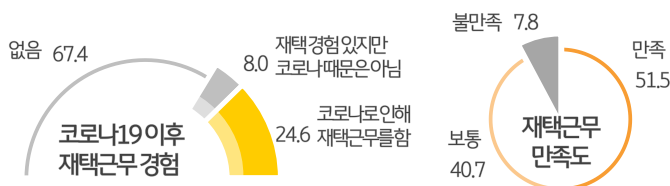
그림 27 1인가구의 코로나19 관련 인식 (단위: %)



1인 가구 네 명중 한 명이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를 경험하면서 이들의 생활 패턴이 재구성되고 있음. 한편 임시·일용직 종사자나 소득이 낮은 1인 가구들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임금 축소 및 근무형태 전환 등을 겪으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기도 함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많은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도입하면서 올해 약 25%의 1인 가구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실시된 재택근무를 경험하였으며, 8%는 코로나19와 무관하게 재택근무를 하였음
- 재택근무로 인해 1인 가구 직장인들의 생활 패턴도 재구성되고 있는데, 재택근무자의 경우 앞서 살펴본 일과 후 다른 곳을 방문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소비를 집 주변에서 하는 경향이 재택근무를 하지 않은 1인 가구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재택근무 경험자의 절반 이상이 재택근무에 만족하고 있는데, 특히 1인 가구는 출퇴근 시간 절약, 능률 향상, 개인 여가시간 증가로 자기 주도적으로 활용 가능한 시간적 여유가 늘어난 점이 재택근무에 대한 높은 만족도로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한편 코로나19 상황에서 고용 환경이 불안해지면서 채용 상태에 변화를 겪은 1인 가구들도 있었는데, 임금 축소, (비자발적) 무급휴직, 근무형태 전환(계약직, 파트타임 등), 비자발적 퇴사권유의 순으로 경험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기존에 소득이 낮았던 경우와 임시직·일용직 종사자의 경우 이러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19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1인 가구들에게 직접적인 충격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28 1인가구의 코로나19 확산 이후 재택근무·채용상태 변화 경험 (단위: %)



※ 코로나19 확산 이후 경험한 채용상태 변화

소득·채용형태별	임금 축소	비자발적 무급휴직	근무형태 전환	비자발적 퇴사권유
1200~2400만원	28.2	12.0	21.4	14.5
2400~3600만원	12.6	8.6	3.6	3.6
3600~4800만원	12.2	6.4	3.4	3.2
4800만원 이상	13.7	6.6	3.8	3.8
상용직근로자	16.3	10.8	4.8	4.5
임시직일용직	20.6	7.9	9.7	7.5

• 재택근무 만족 이유

출퇴근 시간 줄어 여유로움	44.0
주변 시선없이 일할 수 있음	43.0
육체적 피로를 줄일 수 있음	41.6
혼자 일하는 게 능률적	19.6
개인 여가시간이 많아짐	17.5
집의 근무환경이 좋음	15.8

• 재택근무 불만족·보통 이유

소통 어려워 능률 저하	45.6
집의 근무환경이 안 좋음	33.6
출퇴근이 일정치 않아서	23.4
집안일로 업무가 더 과중	23.0
온라인 감시 등이 불편	14.6
재택으로 씬쌈이가 더 늘어남	13.9

(전체 n=2000, 재택근무 경험자 n=565, 채용상태 변화 경험자 n=574)

1인가구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및 생활 편의 제공이 다양해지고 있는 가운데, 약 45%의 1인가구가 1인가구 지원 제도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들 중 30%는 실제 이용해 본 경험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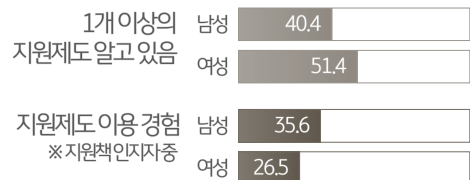
- 1인가구가 주된 가구형태로 부상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기존 다인가구 중심의 사회 구조가 크게 변화를 겪으면서 정부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1인가구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증가하고 있음
- 정부의 1인가구 지원 영역은 소득·돌봄, 주거, 안전, 사회적 관계망, 소비 분야에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절반에 가까운 1인가구들이 1인가구를 위한 지원책들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들어 보았다고 응답함. 다만 기존에 다인가구 중심 정책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아직까지 1인가구를 위한 지원책의 존재를 잘 모르는 1인가구들도 다수 있는 것으로 보임
-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지원책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지원책 인지자 중에서는 남성이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제도를 이용해 본 것으로 조사됨
- 청년 월세지원 등 주택자금지원과 일자리지원, 안전귀가 응급안전 알림 등은 상대적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실제 지원을 경험한 항목은 주택자금지원, 건강검진, 일자리 지원 순으로 나타남
- 정책에 대상 연령층이 있기도 하기 때문에 연령대별 이용 경험은 다르게 나타나는 데 20대 남성은 희망키움통장, 40대 남성은 생활교육 등을 많이 이용함

그림29 1인가구 관련 정부·지자체 지원 정책 인지여부, 활용 현황

(단위: %)



(전체 n=2000, 1인가구 지원정책 경험자 n=897)



※ 이용·경험자 많은 1인가구 지원정책 (연령대·성별)

20대 남성	30대 남성	40대 남성	50대 남성
주택자금	주택자금	생활교육	주택자금
건강검진	생활교육	취미커뮤니티	건강검진
희망키움통장	건강검진	일자리	일자리
20대 여성	30대 여성	40대 여성	50대 여성
주택자금	주택자금	일자리	일자리
안전귀가	건강검진	1인 생활지원	건강검진
건강검진	생활교육	건강검진	심리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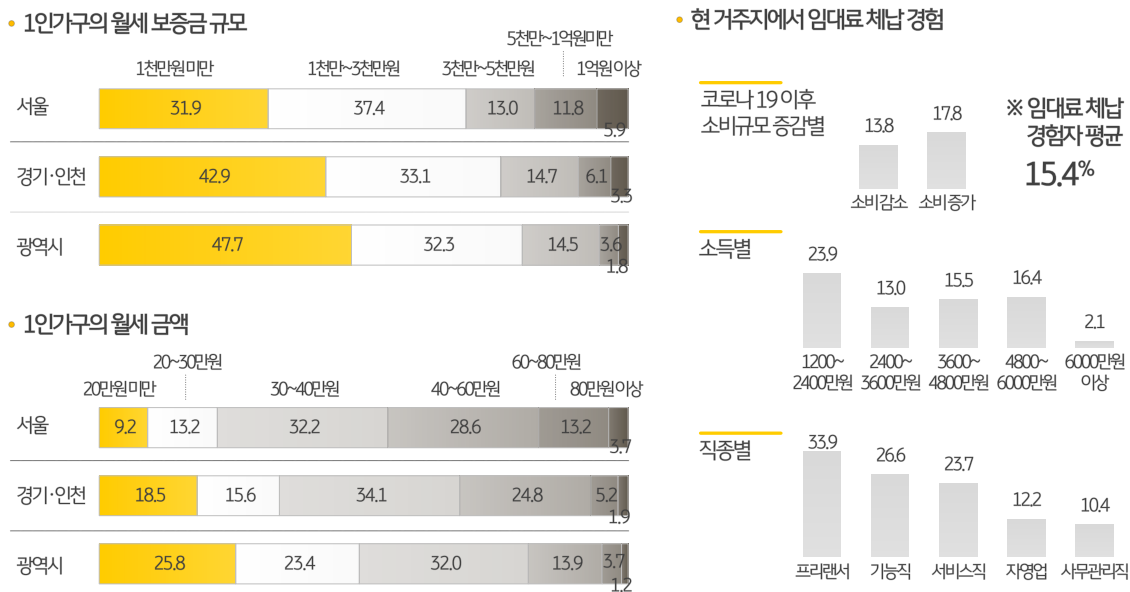
04 1인가구의 주거와 소비

1. 1인가구의 주거 현황

본 조사 대상 1인가구의 거주주택 소유 형태는 월세·전세·자가 순이며, 지역별로 차이는 있으나 월세보증금은 75%가 3천만원 미만, 월세금액은 90%가 60만원 미만임. 소득이 낮거나 수입이 불규칙한 직종의 1인가구는 임대료 체납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았음

- 본 설문조사 대상 1인가구들의 거주주택 소유형태는 월세가 약 40%, 전세가 32%, 자가 25% 수준으로, 60%를 상회하는 전체 가구의 자가소유율을 감안하면 1인가구는 자가소유율이 낮고 월세 거주자가 많은 편임
- 1인가구의 월세 보증금 규모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서울 경기·인천 광역시를 통틀어 약 4명 중 3명이 3천만원 미만, 약 90%가 5천만원 미만인 것으로 조사
- 월세 금액은 전체적으로 약 90%가 60만원 미만을 내고 있으나, 보증금에 비해 지역별 편차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서울의 경우 20만원 미만인 경우가 10%에 못 미치고 60만원 이상인 경우가 17%에 달하나, 광역시의 경우는 4분의 1 정도가 20만원 미만을 월세 금액으로 지불하고 있음
- 한편 월세 거주자 중 현 거주지에서 임대료 체납을 한 적 있는 경우는 전체의 15.4%이며, 코로나19 확산 이후 소비가 증가한 경우나 소득이 불규칙한 직종인 경우 상대적으로 체납 경험이 많았음. 소득별로는 연 2400만원 이하가 체납 경험이 많았으나 연 6000만원까지는 소득 증가와 체납경험 감소가 일치하지는 않음

그림 30 1인가구의 월세 보증금·월세 금액, 현 거주지에서 임대료 체납 경험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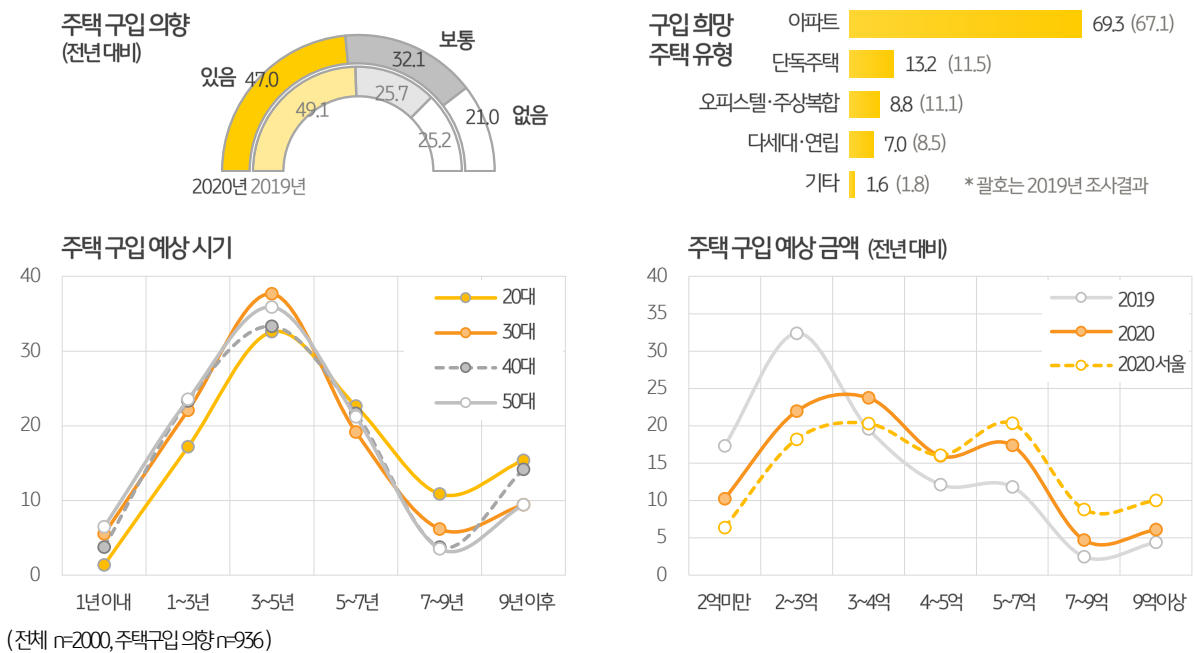
(월세 보증금 n=703, 월세납부자 n=787)

1인가구의 절반 정도가 주택 구입 의향이 있으며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전년도에 비해 높아졌음. 구입 희망 시기는 3~5년 이내가 많아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마련하려는 의향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올해 조사에서 주택 구입 의향이 “있다”는 1인가구의 비중은 전년도보다 소폭 하락 하였으나 여전히 47%가 구입을 희망하고 있으며, 의향이 “없다”는 비중은 줄어든 반면 “보통”이라는 의견이 상승하여 관망세 분위기도 증기한 것으로 보임
- 희망하는 주택 유형 또한 과거와 유사하게 ‘아파트’가 약 70%의 압도적인 선호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다른 유형의 주택 구입 희망은 미미한 편이나 전년도에 비해 단독주택에 대한 선호도는 소폭 상승함
- 주택 구입 예상시기로는 ‘3년 이후~5년 이내’가 35%로 가장 많았으며(전년도 31%), 전체의 약 80%가 7년 이내에 주택 구입을 희망하고 있음. 한편 약 25%의 1인가구가 3년 이내에 주택을 구입하고 싶다고 응답하여 좀 더 빨리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마련하려는 의향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추정
- 30대 1인가구는 ‘3~5년’ 내에 구입하고 싶다는 응답 비중이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으며 ‘9년 이후’는 적은 반면, 40대는 30대보다 구입 희망 시기를 더 늦은 시점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 경제활동의 주축인 두 연령대 간 인식 차이를 보여줌
- 주택 구입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은 ‘3~4억원’이 가장 많이 나오는 등 전년도에 비해 상승하였으며 서울의 경우는 ‘3~4억원’과 함께 ‘5~7억원’ 응답자 비중이 높았음

그림31 1인가구의 주택 구입의향 유형과 시기, 예상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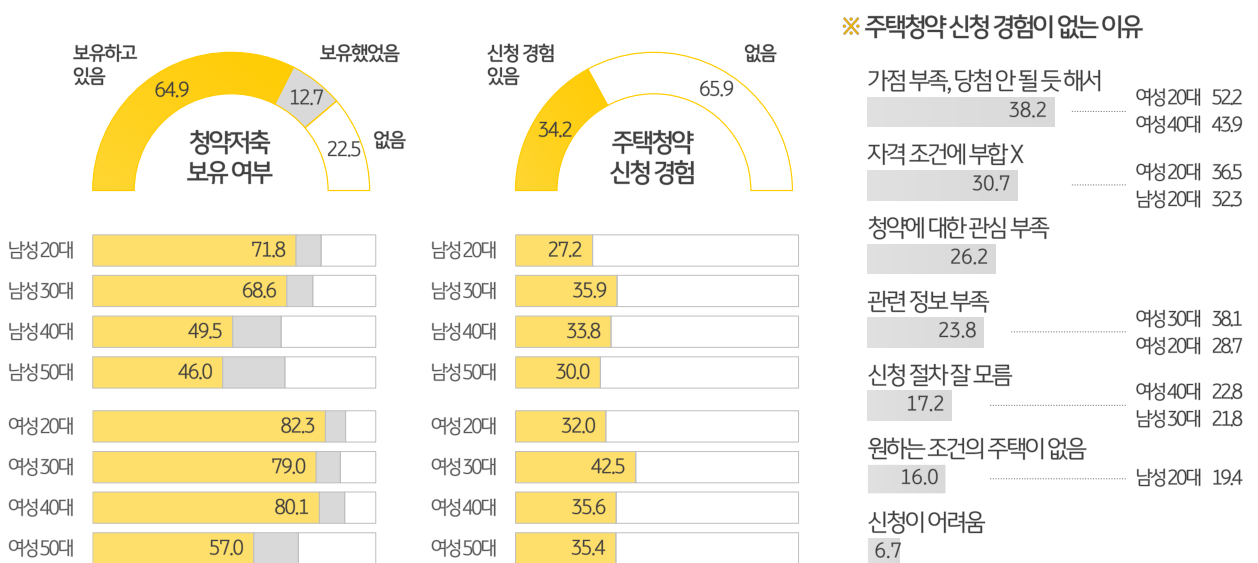
(단위: %)



1인가구의 70% 이상이 청약저축을 가입한 경험이 있으며 약 34%는 청약 신청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청약 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는 1인가구로서 “가점이 부족하여 당첨되지 않을 듯해서”, “자격조건에 부합하지 않아서”인 경우가 많았음

- 주택 분양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1인가구 또한 상당수가 청약저축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조사 대상 1인가구의 약 65%가 청약저축을 현재 보유하고 있으며, 과거에 보유한 경우까지 합치면 약 77%가 청약저축에 가입하였다고 응답
- 이러한 1인가구의 청약저축 가입·보유율은 정확한 비교는 어려우나 다인가구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추정
- 동 연령대에서는 남성보다는 여성의 청약저축 가입률이 높은 편이며, 여성 20~40대와 남성 20~30대는 모두 최소 70%를 초과하는 청약저축 보유율을 보여주고 있는 등 청약저축은 대다수 1인가구에게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할 상품으로 인식
- 주택청약을 신청한 경험이 있는 1인가구는 약 34%로 나타났으며, 연령대별로는 남녀 모두 30대가 가장 활발하게 청약을 신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청약 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로 가장 많이 언급한 것은 1인가구로서 “가점이 부족하여 당첨되기 어렵다고 생각해서”이며 특히 20대·40대 여성에서 높은 응답율을 보임. 또한 20대 1인가구의 다수가 “자격조건에 부합하지 않아서”를 이유로 들었음
- 여성 30대와 20대는 주택 청약관련 관련 정보가 부족해서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평균보다 높았으며 여성 40대·남성 30대는 신청절차를 잘 모른다는 응답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았음

그림 32 1인가구의 청약저축 보유여부, 주택청약 신청경험 (단위: %)



(n=2000, 청약신청경험 없는 경우 n=1317, 주택청약 신청경험 없는 이유는 1+2순위)

주거 편의가 상대적으로 잘 구비된 아파트 외의 주택에서 살고 있는 1인 가구가 **혼자 이용 가능한 시설**은 면적에 따라 편차가 나타나고 있으며, **거주시설 차이**에 따라 **생활 만족도** 차이도 큰 것으로 나타남

- 2019년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1인가구의 31.3%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음. 다음으로 다가구단독주택(24.1%), 일반단독(12.3%) 다세대주택(9.4%) 영업겸용 단독주택(8.9%)등에 거주하고 있어 아파트 거주율이 높은 편이나 여전히 다수의 1인가구는 아파트 외의 주택에서 살고 있음
- 아파트는 다른 주거형태에 비해 주거 편의 시설이 잘 갖춰진 편으로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1인가구는 대부분의 주거 편의 시설을 혼자 이용할 수 있으나, 다른 형태 주택에서 거주하는 경우 일부 주거 편의 시설이 부족한 편으로 나타남
- 아파트 외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1인가구의 주거 내 편의시설은 면적에 따라 구비 수준이 다른데, 샤워시설과 화장실, 하수도가 있는 부엌은 대부분이 갖추고 있으나, 거실이나 별도 방은 10평 이상, 다용도실은 15평 이상 주택인 경우에 절반 이상이 구비하고 있음
- 아파트가 아닌 경우는 면적이 상대적으로 넓더라도 발코니가 있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비상대피시설이 갖춰진 경우 또한 드문 편으로 나타남
- 1인생활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상대적으로 거주시설 구비 수준이 불만족자에 비해 높았으며, 남성보다는 여성 1인가구가 좀 더 거주시설이 갖춰진 곳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33 거주하는 곳에서 단독으로 갖춰져 있거나 혼자 이용 가능한 시설 (단위: %)

시설명	아파트 거주자	아파트외 거주자	아파트외 거주자 →						남성	여성	1인생활 만족	1인생활 불만족
			5평미만	5~10평	10~15평	15~20평	20~25평	25평이상				
샤워시설·욕조	90.4	82.9	71.6	86.0	85.1	82.5	78.9	84.4	80.0	87.0	87.2	72.3
수세식화장실	85.1	80.4	78.4	85.6	83.1	73.3	74.7	73.4	78.4	83.2	85.0	80.8
부엌(하수도)	84.8	78.5	71.6	83.9	82.3	74.1	73.2	68.8	74.1	84.6	84.3	74.6
거실	79.1	46.8	22.7	31.9	50.6	67.1	76.1	81.3	44.7	49.7	50.9	26.9
침실외 별도방	82.1	43.3	11.4	22.6	54.3	67.1	74.7	78.1	43.4	43.0	45.2	29.2
다용도실	70.1	41.3	21.6	34.5	44.9	53.5	53.5	59.4	39.9	43.4	46.4	33.9
발코니	67.7	18.3	5.7	15.0	18.9	23.7	28.2	29.7	18.0	18.8	21.9	10.8
비상대피시설	39.2	13.2	5.7	9.5	15.4	18.9	18.3	18.8	14.1	11.9	16.3	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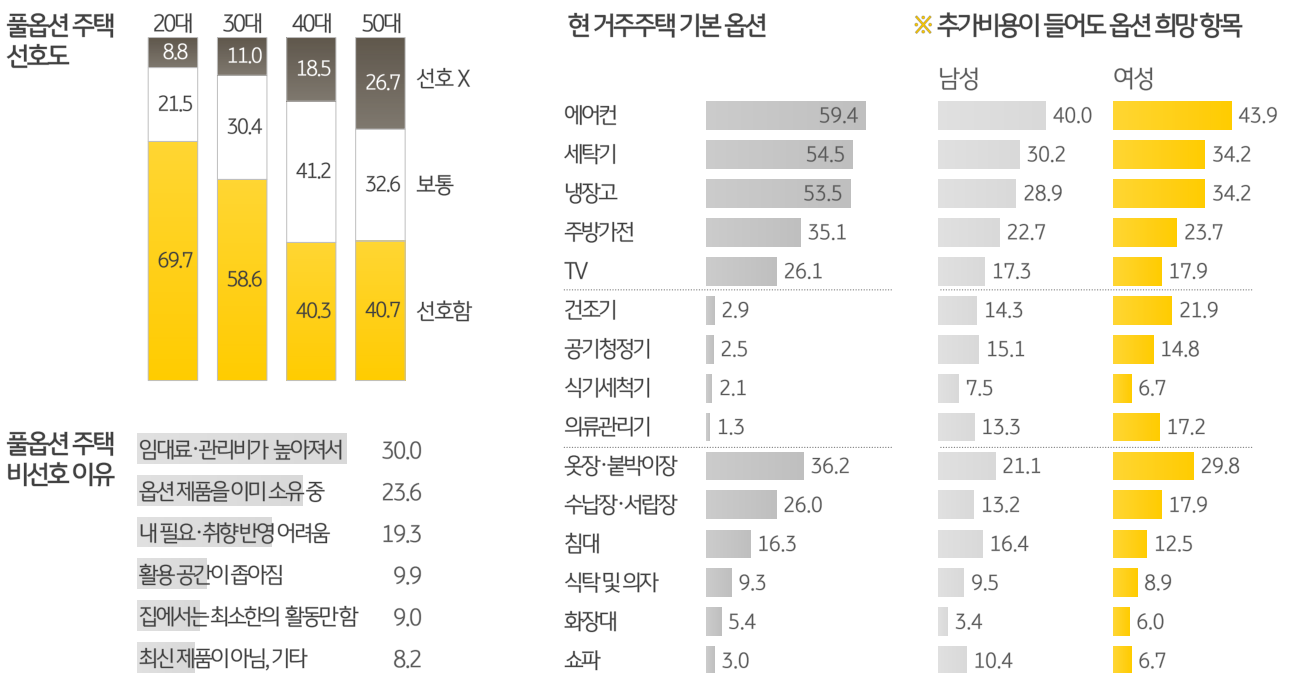
(아파트 거주자 n=659, 아파트외 거주자 n=1341)

거주 주택에 사전에 설치·제공되는 **옵션**에 대한 선호도는 연령대가 낮은 1인가구일수록 높게 나타났음. 옵션 중 **에어컨**은 필수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으며 **새로운 가전제품**들은 설치율에 비해 관심도가 높은 편임

- 아파트 외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1인가구는 “풀옵션 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비교적 높은 가운데 20대의 선호도가 압도적으로 높으며, 40·50대도 약 40%는 풀옵션을 선호한다고 응답
- 풀옵션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로는 “임대료·관리비가 높아져서”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이미 제품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나의 취향 반영이 어려움, 공간이 좁아짐, 집에서 최소한의 활동만 함 등의 순으로 응답
- 현 거주주택에 설치된 것으로는 에어컨이 가장 많았으며, 세탁기·냉장고도 50% 이상이 설치되어 있다고 응답. 가구로는 옷장·불박이장, 수납장 등이 설치된 경우가 많았으며, 기타 가구는 설치율이 높지 않은 편
- 추가비용에도 불구하고 옵션으로 설치되기를 희망하는 제품 또한 에어컨·세탁기·냉장고의 순으로 많았으며 옷장·불박이장과 건조기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도 비교적 다수였음
- 건조기·공기청정기·의류관리기·식기세척기는 현재 거주주택에 설치되어 있다는 응답은 거의 없었으나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가 남녀 모두에게 고루 나오는 등 이들 생활편의 가전에 대한 1인가구의 관심도를 반영

그림 34 1인가구의 옵션 주택 선호도 (아파트 외 거주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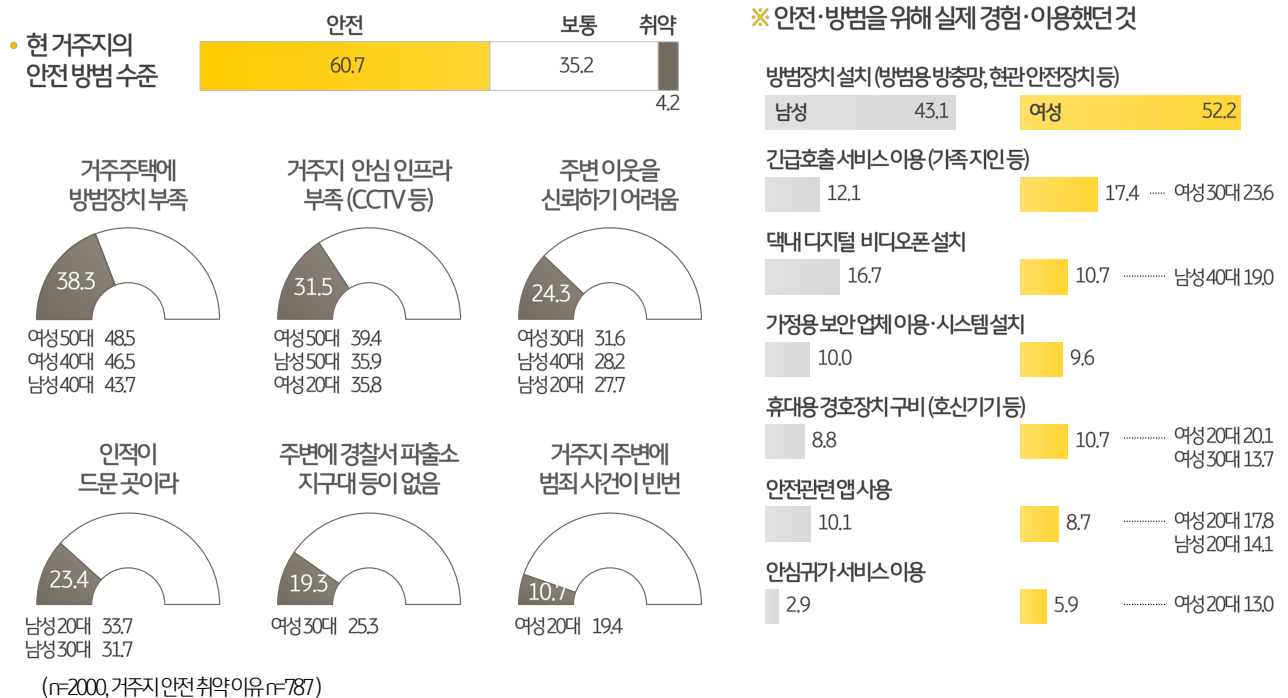


(아파트외 거주자 n=1341)

약 40%의 1인가구가 거주하는 곳의 **안전·방범 수준**이 보통이거나 취약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이유로는 거주 주택의 **방범장치**나 거주지역 **안심 인프라**의 부족을 주로 언급하였음. 다수의 1인가구가 안전 강화를 위해 **방범장치를 직접 설치**하거나 **보안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의 자구책을 실천에 옮겼음

- 올해 조사에서는 1인가구의 안전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과거보다 높아졌음. 여성의 경우 거주지 선택 시 안전 방법을 매우 고려한다는 응답이 80% 이상을 차지했으며, 남성은 여성보다는 안전에 대한 고려는 낮은 편이지만 앞선 문항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성 1인가구 또한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 현재 거주지의 안전·방범 수준에 대해 약 60%의 1인가구가 안전하다고 말하였으나, 약 35%는 보통, 4%는 취약하다고 응답하여 주거 안전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는 1인가구들이 여전히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주거지가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로는 “거주주택 자체의 방범장치가 부족”을 가장 많이 꼽아 상당수의 1인가구가 보안 수준이 높지 않은 주택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보임. 거주주택의 방범 수준은 특히 여성 40·50대에서 많이 지적하였음
- 그 외에 안전·방범에 대해 안심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CCTV 등이 부족”, “주변 이웃을 신뢰하기 어려움”, “인적이 드문 곳이어서”의 순으로 나타남
- 절반에 가까운 1인가구가 안전·방범을 강화하기 위해 집에 방범장치를 설치하였으며 여성의 경우는 가족 지인들에게 긴급 호출, 휴대용 호신·경호기기 구비, 비디오 폰 설치 등의 행동을 하였으며 20대 여성의 13%은 안심기가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음. 또한 20대는 안전과 관련된 앱을 사용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그림35 거주지가 안전에 취약한 이유, 안전시설 설치·이용 경험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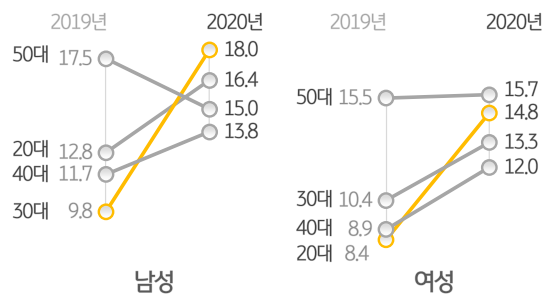
공간의 공유와 구분을 통해 1인 가구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주거 양식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세어하우스**(공유주택)는 본 조사에서는 주목도에 비해 이용 의향치가 많지 않은 편이었으나, 금년도는 **이용의향이 상승** 하였으며, 1인 가구는 공유주택에서 다양한 **생활편의를 제공받고 싶어함**

- 1인 가구 전체의 세어하우스(공유주택) 이용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전년도(12%)보다 상승한 15%, '없다'는 의견은 전년도(64%)보다 하락한 58%로 조사
- 그 동안 본 조사에서는 세어하우스 이용의향이 높지 않은 편이었는데, 올해는 50대 남성을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이용 의향치가 늘어났으며, 특히 기존에 이용 의향이 매우 낮은 편이었던 30대 남성과 20대 여성의 이용 의향차 증가가 두드러짐
- 전년도 조사에서 이용 의향이 없는 이유로는 대다수가 "함께 거주하는 자체가 불편"(84%) 하다고 말했는데 다양한 세어하우스들이 보급되고 서비스가 개선되면서 젊은 연령대를 중심으로 공유주거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
- 이용 의향 사유로는 가장 많은 이들이 "적정한 비용"을 들었으며, 이어서 생활편의 시설, 재미있을 것 같아서, 임시거처로 적당 등의 사유가 크게 거론되었음
- 공유해도 괜찮은 공간으로는 세탁실 외에 거실, 발코니 등 거주자 간의 소통이 가능한 공간들이 많았으며, 20대의 경우 '독서실'을 개인적 공간으로 인식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등 연령대별 공간 공유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음
- 희망 서비스로는 피트니스·청소·조식 등 생활 편의 관련이 많은 반면 '커뮤니티'는 특정 연령층 외에는 높지 않은 편으로 나타나는 등 1인가구의 개인화 성향이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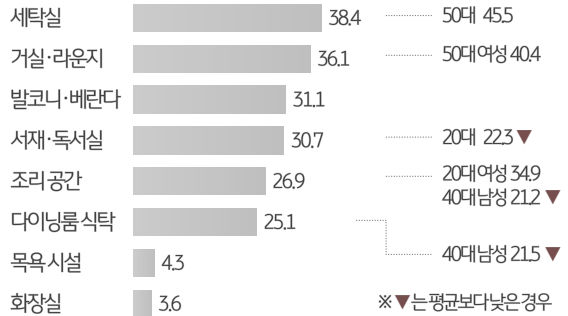
그림36 세어하우스 이용의향, 세어하우스에서 기대하는 서비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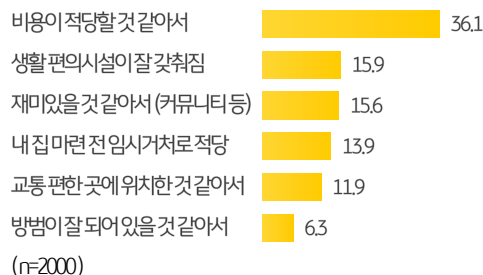
세어하우스 이용 의향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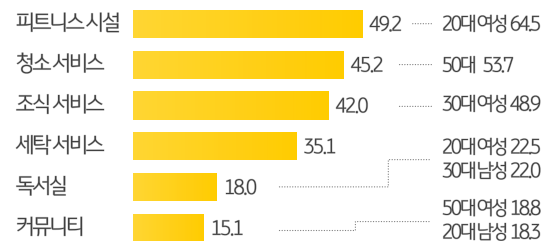
타인과 공유해도 괜찮은 공간



이용 의향 이유



제공 희망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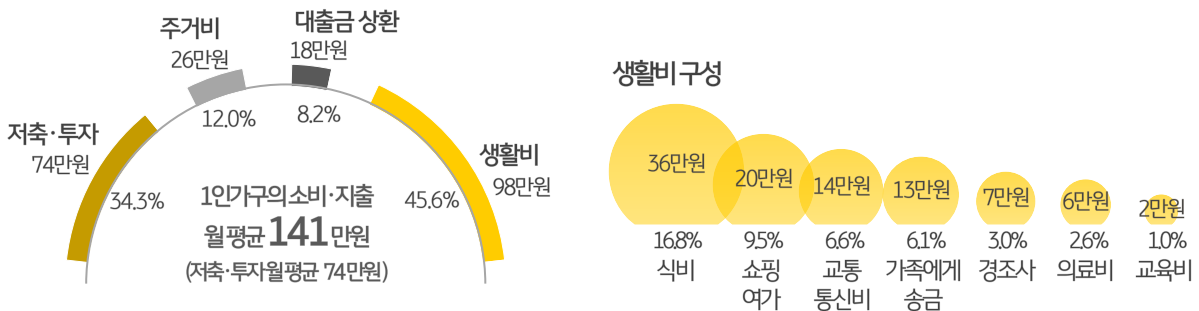
2. 1인가구의 소비 생활

1인가구는 월 평균 약 **141만원**을 소비·지출하고 있으며, 전체 소득의 **절반 정도를 생활비**로 쓰고 있음. 소비 항목별로는 **식비**와 **주거비**의 비중이 높은 편임. 코로나19 확산 이후 **소비**가 감소한 1인가구의 경우 식비, 여가·쇼핑, 저축·투자 등의 순으로 지출 규모를 줄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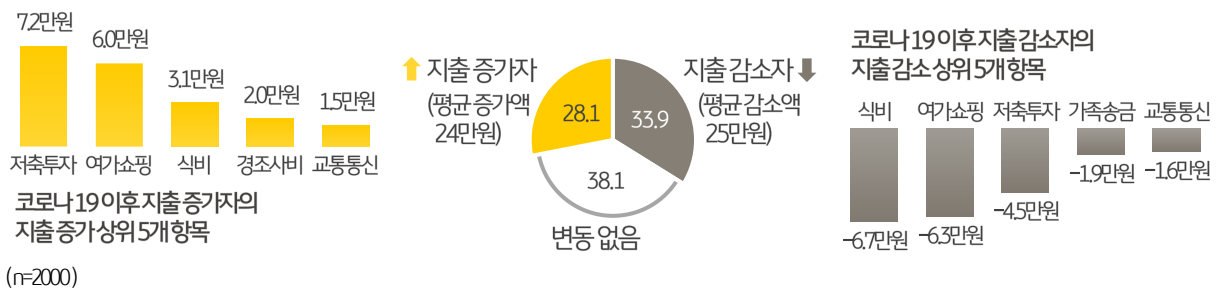
- 본 설문 조사대상 1인가구(연 소득 1200만원 이상, 25세~59세, 서울 경기 및 광역시 거주자)의 저축·투자(약 74만원)를 제외한 순수 소비·지출 금액은 월 141만원 수준이며, 월 소득의 절반 정도를 생활비로 쓰고 있음.
- 전체 소비·지출에서 각 항목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도 조사와 유사하나 생활비의 비중이 소폭 줄어들고(전년도 47.8%에서 2.2%p 하락) 저축·투자의 비중이 소폭 상승하였음(전년도 30.8%에서 3.5%p 상승)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1인가구는 다인가구보다 소비에서 식비·주거비의 비중이 높은 편으로 나타나는데, 본 조사에서도 '식비'는 약 36만원으로 생활비 중 가장 비중이 크며, 주거비용도 26만원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코로나19 확산 전후의 소비 규모를 비교하면 약 34%는 지출이 감소했으며 28%는 지출이 늘었다고 응답하여 전체적으로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소폭 지출이 감소
- 지출 감소자들은 소비를 약 25만원 줄였는데 항목별로는 '식비' '여가·쇼핑' '저축·투자'의 순으로 감소하였음. 반면 지출 증가자들은 24만원 지출이 늘었는데 가장 많이 늘어난 항목이 '저축·투자'로 재무상태가 상대적으로 호전된 것으로 나타남

그림37 1인가구의 월 소비·지출 및 코로나19 확산 전후 변동

(단위: %)



※ 코로나19 확산 전후 월 지출 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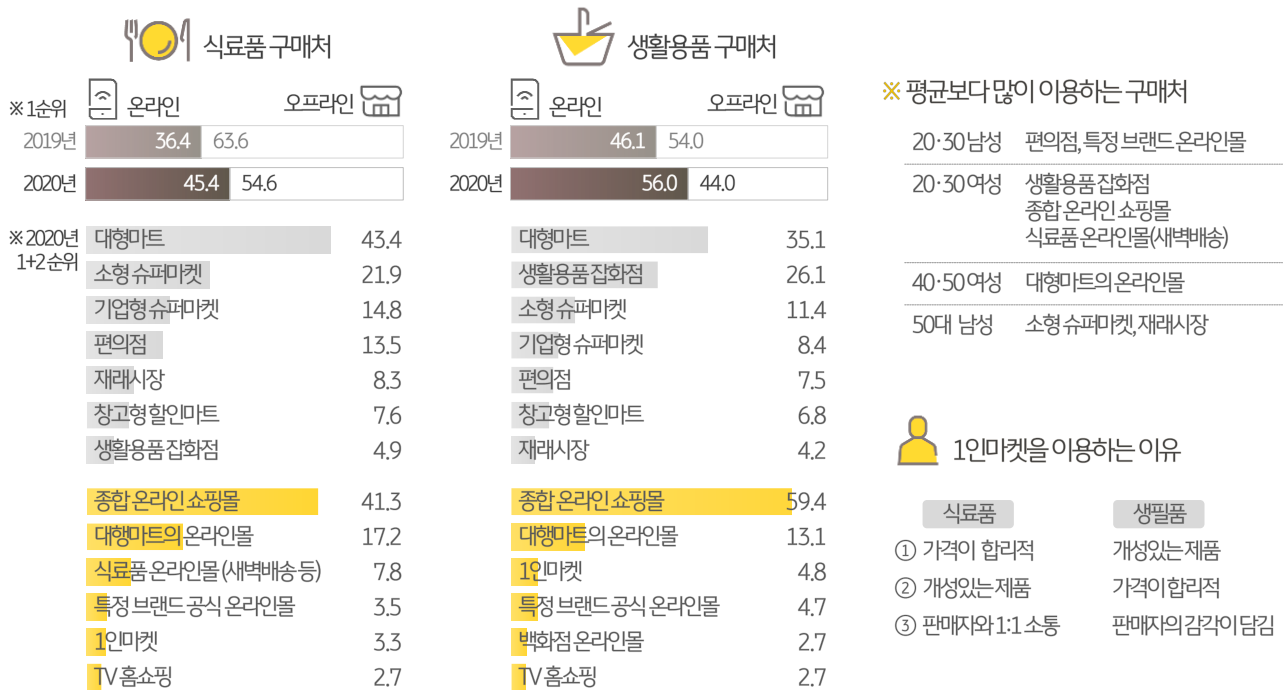
1인 가구는 **식료품**은 오프라인, 기타 **생활용품**은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경우가 많으며, 디지털화의 가속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년도에 비해 **온라인 구매가 크게 증가**하였음. 특히 **대형마트 온라인몰**이나 식료품 온라인몰 이용이 증가했음. **20·30대 남성**은 편의점을 많이 이용하는 등 연령대·성별로 주요 이용처는 분화

- 1인 가구가 생필품을 구매할 때 온라인을 이용하는 비중이 전년도에 비해 크게 상승하였음. 식료품과 생활용품을 구분하여 주요 구매처를 물어본 결과 전년도에는 식료품과 생활용품 모두 오프라인이 우세하였으나 올해는 생활용품은 온라인이 오프라인을 넘어섰으며 식료품도 온라인 구매자 비중이 9%p 증가하여 45%에 달함
- 식료품은 대형마트 및 슈퍼마켓 등 오프라인 선호도가 강했으나 올해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하는 경우가 대형마트와 동등한 수준으로 증가했으며 생활용품의 경우 온라인 쇼핑몰 이용자 비중이 압도적이었음
- 코로나19의 여파로 온라인 이용 경향이 강화되며 기존에 대형마트를 이용하던 1인 가구의 일부는 대형마트의 온라인몰로 옮겨간 것으로 보이며, 다양한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등장하면서 새벽배송이나 1인마켓에서 구매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한편 **성별·연령대**에 따라 구매처에 차이가 있었는데 20·30대 남성은 편의점 이용률이 높았으며 20·30대 여성은 저렴한 생활용품을 파는 잡화점과 새벽배송, 50대 남성은 슈퍼마켓과 재래시장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이용

그림38 온라인 구독서비스 유료이용 경험, 향후 유료이용 의향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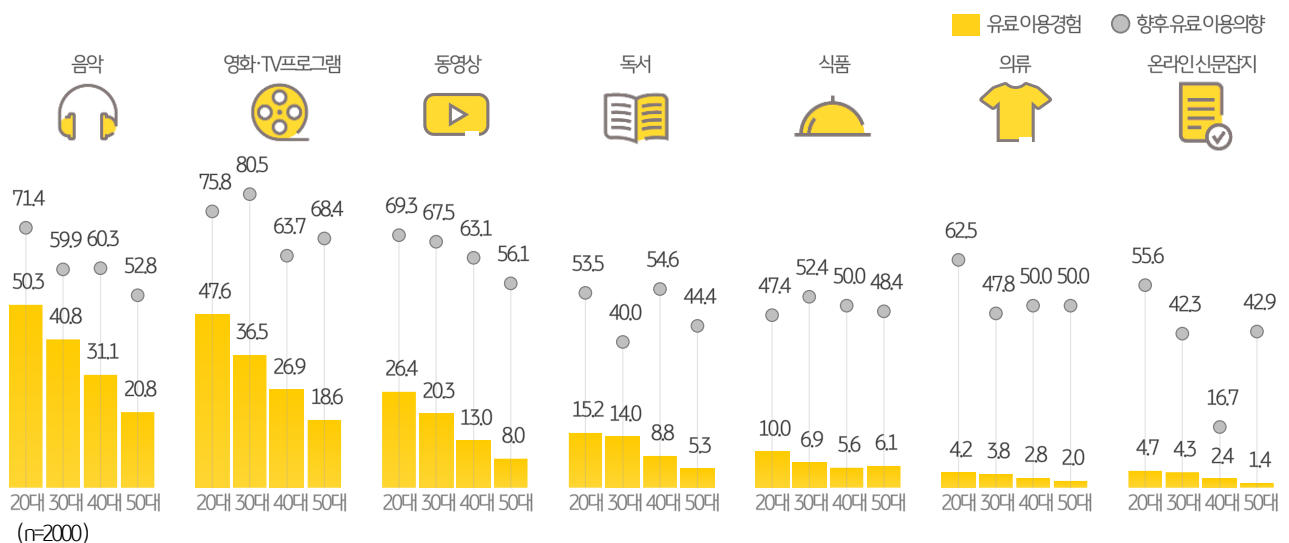
(n=2000)

직접 구매하여 소유하는 것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소비를 가능하게 하는 **구독서비스는 경험과 가성비**를 추구하는 1인가구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으며 코로나19 이후 일부 구독 서비스들은 이용자가 크게 증가하였음. 1인가구의 향후 구독서비스 이용 의향도 높은 편으로 나타남

- ‘구독’은 과거에도 신문이나 잡지 등을 중심으로 보급되어 있었으며 정기구독을 하면 금액을 할인해주는 것 또한 소비자들에게 이미 친숙한 방식이나, 최근의 구독서비스들은 디지털화에 힘입어 개별 상품을 구매했을 때보다 구독을 했을 때 약간의 금액 할인 정도가 아닌 훨씬 더 큰 효용을 누릴 수 있는 형태로 전개
- 최근 구독서비스들의 이러한 특징은 가성비를 추구하고 혼자만의 공간 속에서 별도로 소유하는 것보다 경험을 선호하는 1인가구의 특성과 잘 어울리는 면이 있으며 전년도 조사와 동일하게 상당수가 구독서비스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 업체들이 서비스의 일부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올해는 전년과는 달리 ‘유료 이용’에 초점을 맞추어 질문하였으나 여전히 해당 서비스 경험자들의 다수가 향후에도 유료로 이용하겠다고 답변
- 앞선 조사결과와 같이 여가시간에 영상을 보며 시간을 보내는 경향에 덧붙여 코로나19 확산 이후 실내 위주의 활동을 하게 되면서 영상·영화 구독서비스는 전년도와 달리 ‘유료’로 한정하였음에도 이용 경험자 비중이 전 연령대에서 상승함
- 음악 스트리밍, 동영상 서비스도 많은 이들이 사용하고 있으며 20대 1인가구의 경우 약 70%가 경험자가 향후에도 유료 의향이 있다고 답변하는 등 젊은 층을 중심으로 호응도가 높은 편

그림39 온라인 구독서비스 유료이용 경험, 향후 유료이용 의향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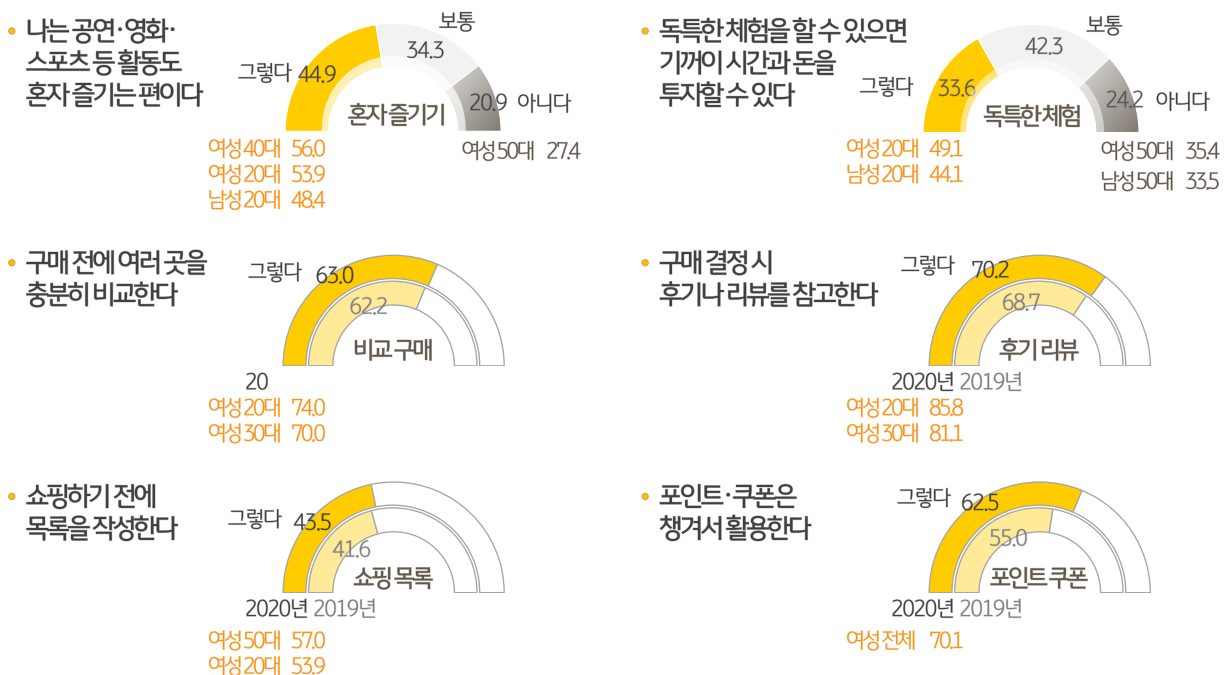
- 식품과 의류 구독서비스의 경우 이용 경험자가 많지는 않으나 지속 이용 의향은 높은 편으로, 콘텐츠 중심의 다른 무제한 이용모델보다는 전통적인 구독·배달 서비스에 좀 더 가까우면서도 디지털화를 통한 편리함을 추구하고 있어 향후 1인 가구 증가와 함께 성장에 주목

1인 가구는 공연·영화 관람 시 혼자 즐기는 경우가 많으며 20대 1인 가구는 소비를 통해 독특한 경험을 기대하고 있음. 구매 전에 충분히 비교하고 리뷰를 통해 신중히 결정하며, 목록을 작성해 계획적으로 구매하고 포인트나 쿠폰을 활용하는 등 1인 가구의 합리적 소비 지향성은 전년도보다 더욱 강화됨

- 전년도에 이어 본 조사에 나타난 1인 가구의 합리적·가성비 지향 소비 경향은 계속 심화되는 양상을 보여줌
- 1인 가구가 여가를 보내는 대표적인 방식인 영화·공연·스포츠 관람 시 혼자 즐기는 편이라는 응답이 많았는데, 문화생활을 누군가와 함께 하는 것에 더 의미를 두는 기존 일부의 경향과는 달리 1인 가구는 내용 자체에 좀 더 집중하고 싶어하여 누군가와 함께 하면서 추가로 발생하는 시간적·비용적 소비를 하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화생활에서도 '가성비'에 입각하여 행동하는 것이 아닐까 추측
- 다만 이러한 "가성비 문화 체합" 경향에도 연령대간 차이는 있는 것으로 나타남. 20대는 혼자 문화생활을 즐기며 독특한 경험에 대한 소비를 아끼워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반면 50대는 문화생활은 함께 즐기며 독특한 경험을 위한 소비에 긍정적이지 않은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40 1인 가구의 소비행태, 소비에 관한 인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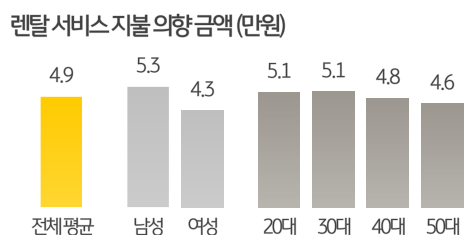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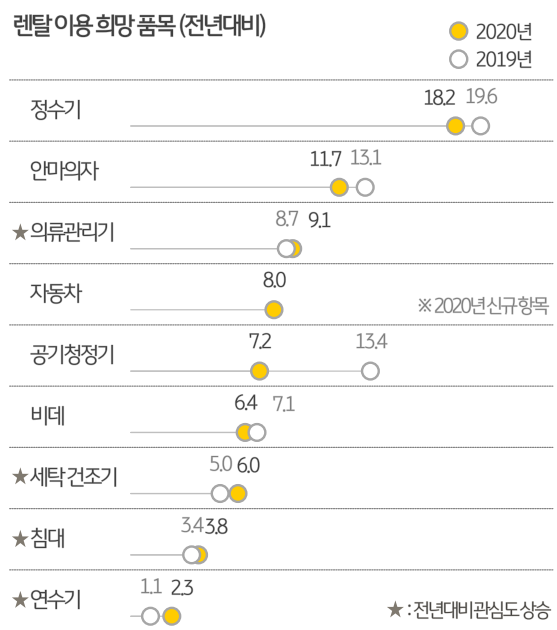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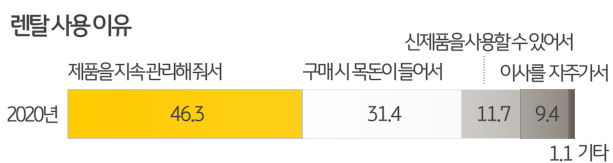
(n=2000)

- 전년도 소비성향에 대한 문항에서 1인가구는 구매전에 충분히 비교하고 리뷰 등을 참고하고 쇼핑 목록을 작성하는 등 신중하게 구입 물품을 정하며 포인트와 쿠폰도 알뜰하게 챙기는 등 합리적 소비 지향성을 강하게 보여주었는데, 올해는 이러한 경향들이 전 항목에서 모두 전년보다 더욱 심화됨
- 합리적인 소비 지향성은 남성보다는 여성 1인가구에서 좀 더 두드러짐. 여성 20·30대는 후기나 리뷰를 보는 비중이 80%를 넘고 있어 거의 대부분이 온라인 평판을 면밀하게 조사하고 있으며, 전년도에 비해 긍정 비중이 크게 증가한 항목인 ‘포인트 쿠폰 챙기기’ 또한 남성보다는 여성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1인가구의 21%가 렌탈 서비스를 이용 중으로 향후 이용의향도 40%를 초과함. 남성은 5만원대, 여성은 4만원대 금액을 렌탈 서비스에 지불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

- 렌탈 서비스 이용 및 의향은 전년도 조사와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조사되었으며, 렌탈 사용 이유로 절반에 가까운 1인가구들이 “제품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줘서”라고 응답. 다음으로는 “목돈이 들어서” “신제품 사용” 등의 순이었으며, 주거 이동성이 높은 1인가구의 특성을 반영하듯 “이사를 자주가서” 렌탈을 한다는 응답도 있었음
- 렌탈 서비스에 지불할 의향이 있는 금액은 평균 4.9만원이며 남성은 5.3만원 여성은 4.3만원으로 1만원 차이가 나고 있음.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렌탈 지불 의향 금액이 높아지는 경향도 관찰

그림41 1인가구의 렌탈 사용 현황, 향후 렌탈 이용희망 품목 (단위: %)



(n=2000)

1인 라이프를 겨냥한 **상품·서비스** 이용 경험과 관심도가 함께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인 가구의 성별·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다양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음. 현재 이용률에 비해 관심도가 높은 상품들의 향후 시장 확대를 기대

- 렌탈 희망 항목은 전년도와 거의 유사한 결과가 나왔으나 유일하게 공기청정기는 전년도에 비해 하락폭이 컸음. 다만 이는 전년도 조사시점에 미세먼지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였던 반면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미세먼지 이슈는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의 영향이 아닐까 추측
- 1인가구가 증가하면서 1인 라이프를 겨냥한 상품과 서비스들도 과거보다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 가운데 1인가구가 가장 많이 이용한 상품·서비스는 소형 실내환경 가전, 1인용 소량 패키징 상품, 1인용 반찬 배달 서비스 등이었으며, 여성의 경우는 식기세척기와 싱글족 여행상품 이용 경험도 비교적 다수인 것으로 나타남
- 남성 1인가구는 1인용 반찬 배달, 1인 특화 식당, 1인용 소량 패키징 상품 등의 순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여성은 식기세척기, 무인 세탁 배달, 1인여성 안심귀가, 실내환경 관리가전, 창문형 에어컨 등 다수의 항목에 관심도가 고루 높은 편임
- 다만 일부 가전과 소량 패키징류 상품들에 비해 전반적으로 아직은 대부분의 상품에서 현재 이용률이 관심도에 미치지 못하며 격차가 상대적으로 큰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 1인 특화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1인 생활의 특성을 좀 더 고려한 상품성 및 서비스 개선 필요성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그림42 1인 특화 서비스·제품 이용 현황 및 관심 여부 (단위: %)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의 활성화와 1인가구의 합리적 소비 성향이 결합하면서 절반 가량의 1인가구가 온라인으로 중고거래를 하였음

-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들이 활성화되면서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가운데, 1인가구의 합리적 소비성향과 코로나19 이후 근거리 위주 행동의 영향으로 온라인 중고거래를 경험한 1인가구의 비중이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남(48%)
- 연령대별로 보면 20·30대는 절반 이상이 온라인 중고거래 경험이 있으며 특히 20대 여성의 이용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40대의 이용률도 적지 않은 편이나 50대, 특히 여성의 경우 온라인 중고거래 이용자가 상대적으로 소규모에 머무름

1인가구들은 1일 2.2끼를 먹으며 전년보다 혼자 밥을 먹는 경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식사는 1인가구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이자 소비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높은 편임. 금년도 조사대상 1인가구들은 일주일에 총 15.5끼(하루 2.2끼)를 먹었는데 이는 전년(15.8끼)에 비해 소폭 하락한 것

그림43 1인가구의 온라인 중고거래 경험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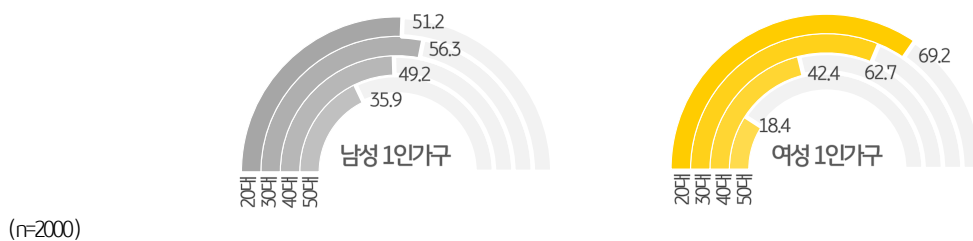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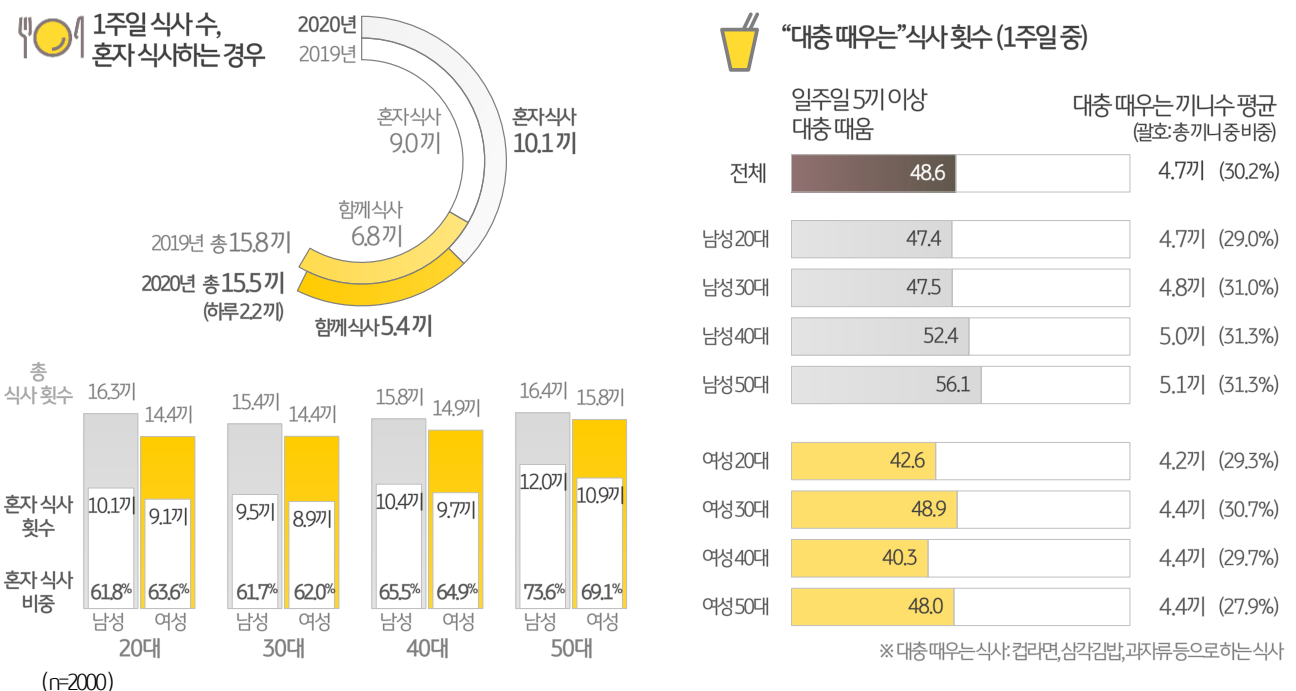


그림44 혼자 식사하는 경우, 대충 때우는 식사 횟수

(단위: %)



식사의 질 측면에서 볼 때 1인가구의 상당수가 총 끼니 중 약 30%를 대충 때우는 식사를 하고 있음

혼자 밥을 먹을 때 HMR 등 가정간편식 이용이 증가했으며, 코로나19 위협을 크게 체감하는 경우 직접 밥을 하는 경우가 절반을 넘음

식당에 갈 때 고려사항으로 1인 고객을 위한 배려 외에도 “손님이 많지 않은 곳” “청결·위생”이 우선시 되는 등 코로나19는 1인가구의 식사 방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전년도 조사 대비 끼니 수는 줄어들었으나 혼자 먹는 경우는 오히려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전체 끼니 수에서 혼자 먹는 식사의 비중이 높아졌는데 특히 50대의 경우 끼니를 상대적으로 많이 챙기기는 하나 이중 약 70%를 혼자 먹고 있음
- 끼니 수 외에 식사의 질을 알아보기 위해 “대충 때우는” 식사의 수를 물어본 결과 전체 끼니의 약 30%를 컵라면이나 과자 등으로 때우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일주일에 5끼 이상을 대충 때우는 1인가구가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남
- 대충 때우는 식사를 하는 경우는 여성보다는 남성이 많았으며, 남성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대충 때우는 끼니수가 증가하고 있음. 다만 끼니 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연령대에서도 약 30% 정도를 유지
- 혼자 식사할 때는 직접 밥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HMR(가정간편식)을 이용하는 경우가 전년도보다 증가하였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식당 방문 식사는 줄어들었으며 특히 코로나의 위협 체감도가 높은 경우 직접 밥을 하는 비중이 높았음
- 음식점 방문 시 고려사항으로 20대는 가격을, 50대는 위생을 우선시하는 응답이 많았으며, 1인을 위한 자리·심적 배려 등의 응답도 고루 나왔으나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손님이 많지 않은 곳”을 고른 응답자가 급증했으며 “청결·위생적인 곳” 응답 비중도 전년도보다 상승했음

그림45 혼자하는 식사 방법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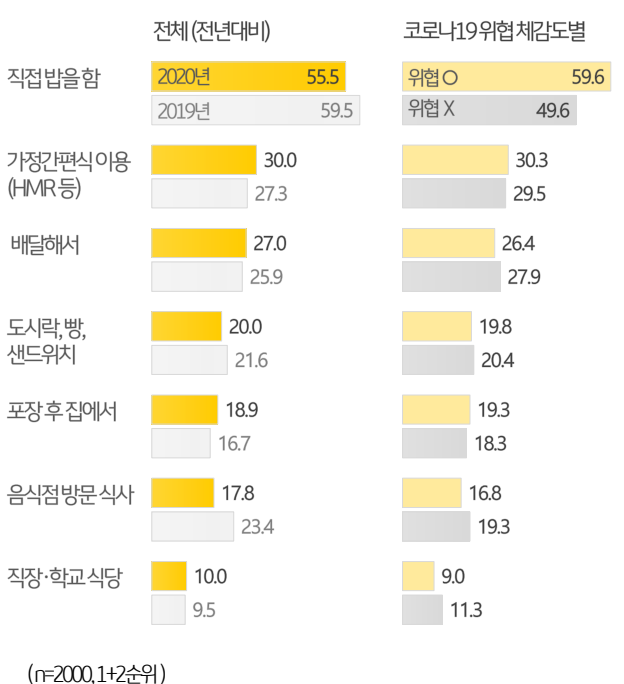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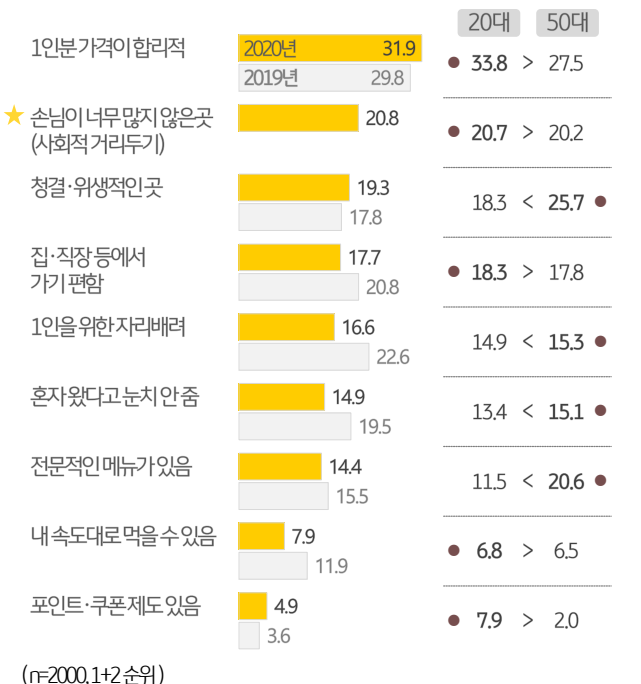


그림46 음식점 방문시 고려사항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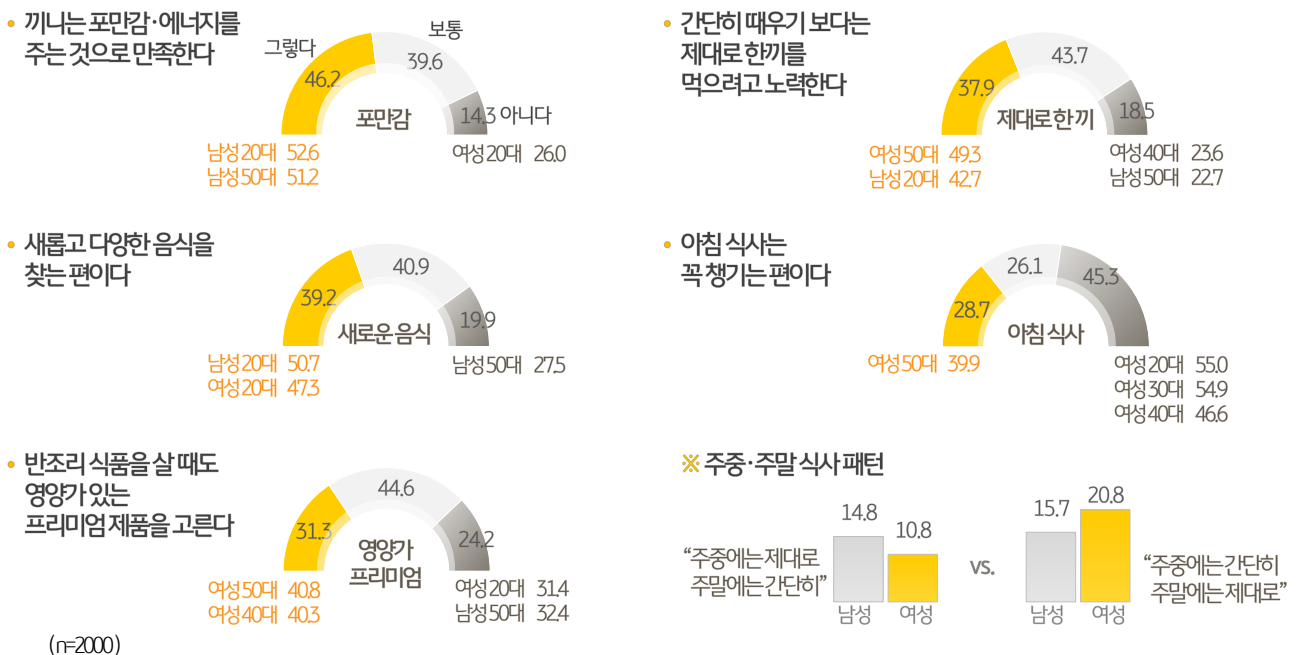


1인가구의 다수가 식사는 **포만감**을 주는 것에 만족하고 있으며 50대 여성을 제외하고는 **아침식사**를 꼭 챙기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었음. 여성 40·50대는 영양가 있는 **프리미엄 제품** 선호도가 높았으며 남녀 간 **주중·주말 식사**에 대한 인식에 일부 차이가 발견됨

- 절반에 가까운 1인가구가 끼니를 “포만감·에너지를 주는 것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특히 남성들에게서 그러한 경향이 많이 발견된 반면 20대 여성은 식사라는 행동에 좀 더 의미를 두는 모습도 관찰됨. 여성 50대와 남성 20대는 “제대로 한 끼”를 챙기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다수였음
- “새롭고 다양한 음식”을 찾는 경향은 젊은 연령층에서 높았으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익숙함을 선호하는 쪽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남. “아침 식사에” 관한 의견은 남성은 연령대별로 큰 차이가 없었으나 여성은 20~40대까지는 아침식사를 굳이 챙기지는 않는 쪽에 가깝다면 50대는 아침을 챙기는 비중이 더 많이 나타났음
- 반조리 식품을 고를 때도 “영양가 있는 프리미엄 제품”을 고른다는 문항에는 여성 40·50대의 다수가 동의했음. 반면 여성 20대와 남성 50대는 상대적으로 식품의 영양가가 주요 선택요인에서 밀리는 모습을 보여줌
- 주중·주말의 식사패턴에 대해 다수는 특별히 의식하지 않거나 언제나 잘 먹으려고 노력한다고 응답했지만 주중 주말을 구분하는 경우 여성은 주말 식사를 좀 더 특별하게 생각하는 응답자 비중이 높았던 반면 남성은 주말에는 간단하게 먹는다는 응답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일부 대조를 이루기도 함

그림47 1인가구의 식사·끼니에 대한 인식

(단위: %)



05 1인가구의 금융 니즈 및 행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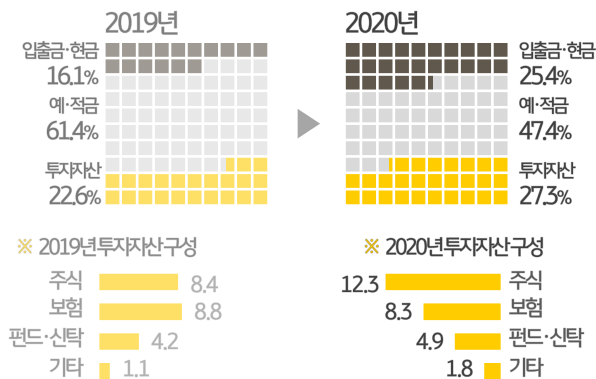
1. 금융자산·대출 보유 현황

1인가구의 금융자산에서 예·적금의 비중이 하락하고 **입출금·현금**과 **투자자산**의 비중이 상승하는 등 전년도와 비교할 때 **자산구성**에 상당한 변화가 발생하였는데, 코로나19로 인한 현금성 자산 수요 증가와 함께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이 자산구성상의 변화를 주도

- 금년도 조사에서 1인가구의 자산별 구성비는 입출금·현금(MMF·CMA 포함)이 약 25%, 예·적금이 47%, 투자자산이 2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자산 구성비는 전년도와 크게 달라진 것으로, 전년도에 60%를 초과하던 예·적금 자산의 일부가 현금과 투자자산, 특히 주식 투자로 옮겨간 것으로 보임. 주식 외에 다른 투자자산들의 비중은 전년 수준에서 소폭 오르내림
- 연령대별 자산 중 입출금·현금의 비중 또한 구성비가 판이하게 달라졌음을 확인할 수 있음. 전년도에는 연령대별로 큰 차이 없이 15~17% 사이로 보유하던 현금성 자산이 올해는 전 연령대에서 모두 20%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증가했으며, 50대는 30%를 기록하는 등 현금성 자산 보유비중은 연령대가 올라갈 수록 높아지는 모습
- 주식 자산 비중도 전 연령대에서 증가하였음. 단 현금성 자산과는 반대로 연령대가 낮을수록 보유비중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최근의 주식 열풍을 20·30대가 주도하고 있음을 보여줌. 반면 40대는 전년도와 주식 자산 비중 차이가 거의 없음
- 이러한 자산 구성 변화는 저금리로 인해 예·적금의 상품성은 하락한 반면 코로나 19 확산 이후 생활비 등 현금 수요가 늘어나고 주식투자 및 투자 대기자금이 증가한 것이 원인으로 추정

그림48 1인가구의 금융자산 종류별 보유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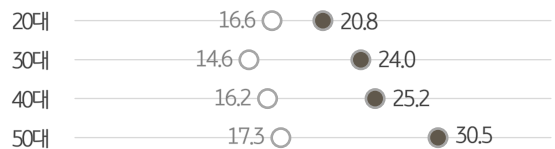
(단위: %)



(n=1857, 입출금·현금에는 MMF, CMA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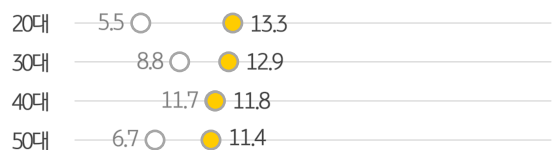
입출금·현금 자산 비중

○ 2019년 ● 2020년



주식 투자 자산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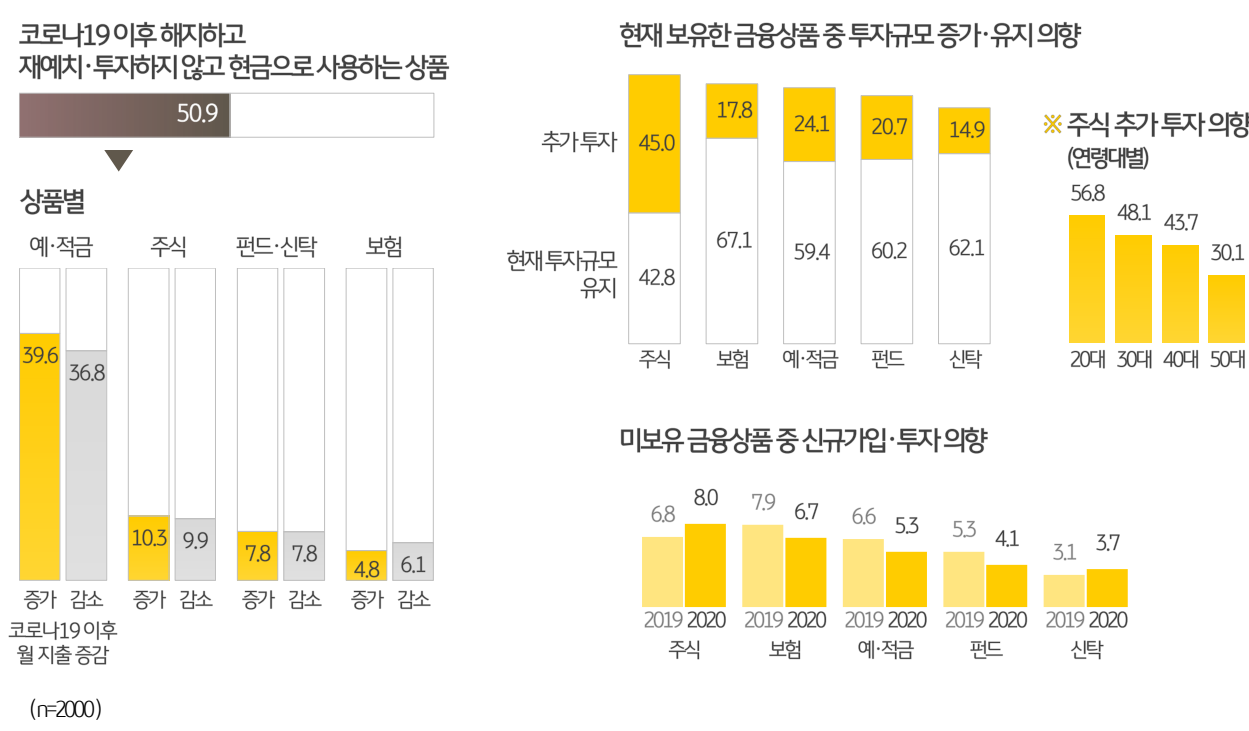
○ 2019년 ● 2020년



코로나19의 확산 이후 금융상품을 **해지하고 현금으로 사용하는** 1인 가구 절반을 넘었으며 대다수가 예·적금을 해지하고 현금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주식은 신규 및 추가 투자 의향이 다른 상품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젊은 연령대** 1인가구의 **투자 의향**이 높았음

- 앞서 살펴본 자산 구성상의 변화 원인 중 일부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해지하고 재예치·투자하지 않고 현금으로 사용하는 상품” 항목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음.
- 1인가구 중 기존에 보유한 금융상품을 해지한 후 현금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50%를 넘었는데 주식이나 펀드·신탁, 보험을 현금으로 사용하고 있는 1인가구의 비중은 10% 이하 수준이지만 예·적금의 경우 약 30~40%에 달하고 있음
- 특히 “코로나19 확산 이후 월 지출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그룹에서 예·적금을 해지하고 현금으로 쓰는 경우가 많았음. 예·적금이 가계가 가장 일반적으로 보유한 상품이며 다른 금융상품보다 해지가 쉬운 편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다른 상품에 비해 해지 후 현금으로 사용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것도 사실
- 보유 상품 중 투자규모를 증가·유지하겠다는 의향 또한 주식이 가장 높았음. 특히 다른 투자 상품들은 증가보다는 유지 의향이 압도적으로 높은 반면 주식은 추가 투자 의향이 유지 의향을 앞지름. 주식 추가투자 의향 또한 앞서 본 자산 중 주식의 비중에서 나타난 바와 마찬가지로 연령대가 낮을수록 투자 의향이 높게 나타남
- 미보유 상품 중 신규가입·투자 의향도 주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특히 주식은 다른 금융상품과는 달리 신탁과 함께 전년도보다 신규 의향이 늘어났음. 다만 상품간 신규 의향의 격차는 비교적 크지 않은 편

그림 49 코로나19 이후 생활비로 쓰는 금융상품, 금융자산 유지·신규투자 의향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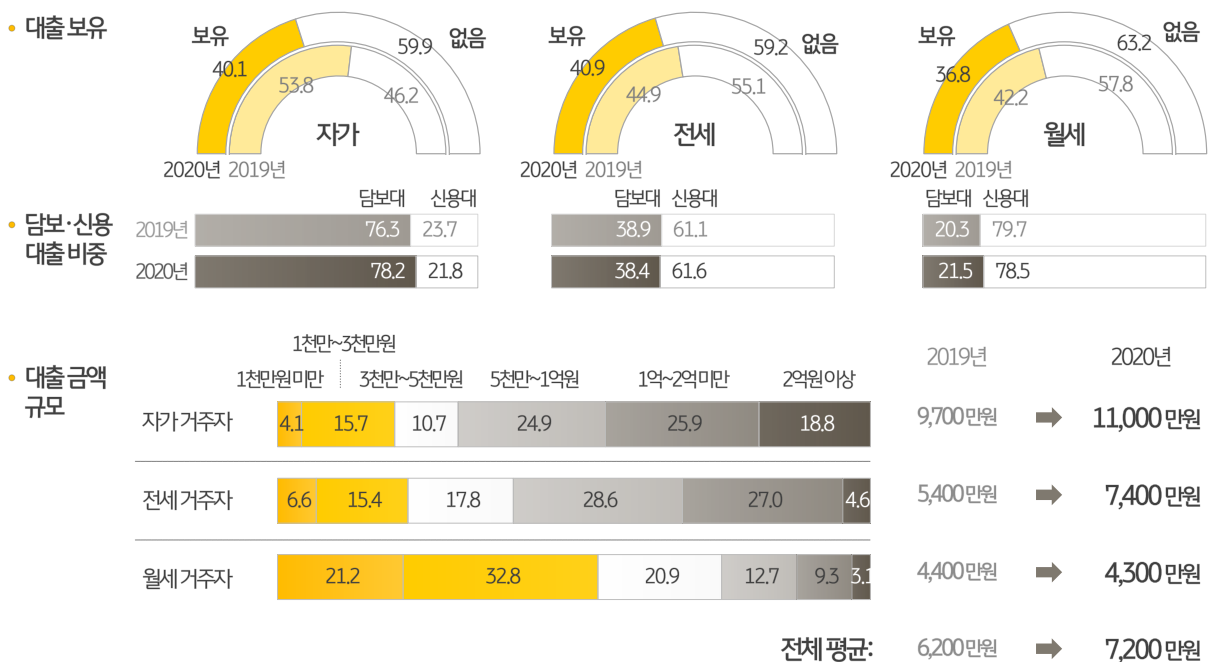


조사 대상 1인가구의 40%가 대출을 받았으며 주택 소유 형태에 따라 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비중은 크게 다르게 나타남. 전년도 대비 1인가구 중 대출자 비율은 하락한 반면 1인당 대출 금액은 증가하였음

- 1인가구는 대출 담보물로 주로 이용되는 주택의 소유율이 다인가구에 비해 낮으며 이에 따라 대출 보유율과 담보대출 활용 또한 다인가구보다는 낮은 편임. 올해 조사에서는 대출을 가지고 있다는 응답자가 약 40%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전년도(약 45%)에 비해 하락한 것
- 주택 소유형태 간에 대출 보유율 자체는 큰 차이가 없었음. 다만 전년도와 비교하면 전세 거주자보다는 자가 및 월세 거주자의 대출 보유율 하락이 컸는데 특히 전년도에 절반 이상이 대출을 보유하고 있었던 자가 거주자의 대출 비율 하락폭이 큰 편
- 자가 거주자는 대출 시 담보를 활용한 경우가 80%에 가까운 반면 월세 거주자는 신용대출 비중이 압도적으로 1인가구 전체적으로는 신용대출의 활용도가 더 높은 편임. 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간의 보유 비중 차이는 전년도와 거의 동일하였음
- 대출 금액 규모는 전년도에 비해 전반적으로 상승하였음. 조사 대상 1인가구들은 평균 7200만원의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전년도에 비해 약 1천만원 상승한 것이며, 1억원 이상 대출을 받은 경우도 약 28% (전년도 약 20%)에 달함
- 거주 형태별로 보면 전세 거주 1인가구 중 대출 보유자는 약 7,400만원의 대출을 보유하고 있으며, 월세 거주자는 대출 규모도 3천만원 미만의 상대적으로 소액인 경우가 절반을 넘으며 전년도보다 대출금액도 1백만원 하락하였음

그림50 1인가구의 대출 보유 구성 및 대출금액 규모

(단위: %)



(대출 보유자 중 자가 n=197, 전세 n=259, 월세 n=2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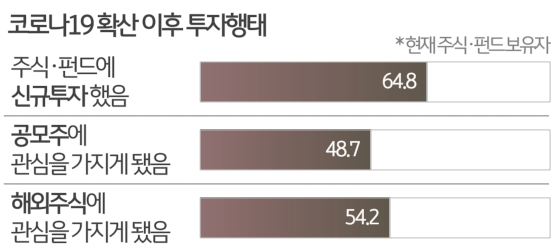
2. 투자·결제수단 이용 현황

올해에는 주식·펀드에 **신규 투자**하고 **공모주**나 **해외주식**에 관심을 보이는 등 1인가구의 투자에 대한 관심도가 전반적으로 높아졌으며 **코로나 19**로 인한 주식시장의 변화를 **기회**로 생각한 경우도 많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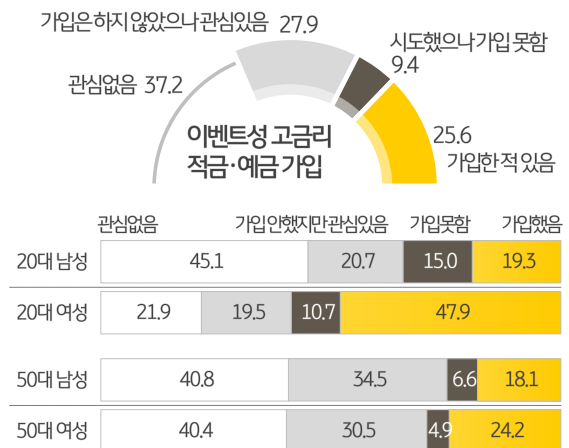
이벤트성 고금리 예·적금은 20대 여성 1인가구가 많이 가입했으며, **금융회사 소셜미디어** 구독·팔로우는 40대가 가장 많이 하고 있음

- 코로나19 확산 이후 1인가구들의 투자 태도에도 변화가 있었음. 주식이나 펀드를 보유한 1인가구 10명 중 6명이 올해에 신규로 투자를 하였으며, 절반에 가까운 이들이 공모주와 해외주식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응답
- 주식 펀드에 신규 투자한 이유로는 “원래 투자계획이 있었음”이 가장 많았으나 최근 주식 투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 고조와 코로나19의 영향도 확인할 수 있었음. “주변에서 많이 해서” “수익을 본 사람이 있어서” “주가 일시적으로 하락 판단”이라는 응답도 고르게 나왔으며 약 10%는 코로나19 관련 유망 업종에 투자했다고 응답
- 투자에 대한 관심 고조 이면에는 저금리 기조의 고착화로 1년 정기예금 금리가 1%대 또는 그 이하로 하락하는 현상이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고금리의 예·적금이 이벤트 성격으로 판매되며 관심을 유도하고 있음. 1인가구의 4분의 1이 이런 상품을 가입한 적이 있으며 특히 20대 여성은 약 절반이 가입 경험이 있음
-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벤트성으로 일시에 소량 한정 판매하면서 시도는 했으나 가입하지 못했거나 가입 규모가 소액이어서 관심이 없다는 의견도 상당수 있었음

그림51 투자 행태의 변화, 고금리 예·적금 가입 경험, 금융회사 소셜미디어 구독 여부 (단위: %)



(전체 n=2000, 코로나19 이후 투자 n=7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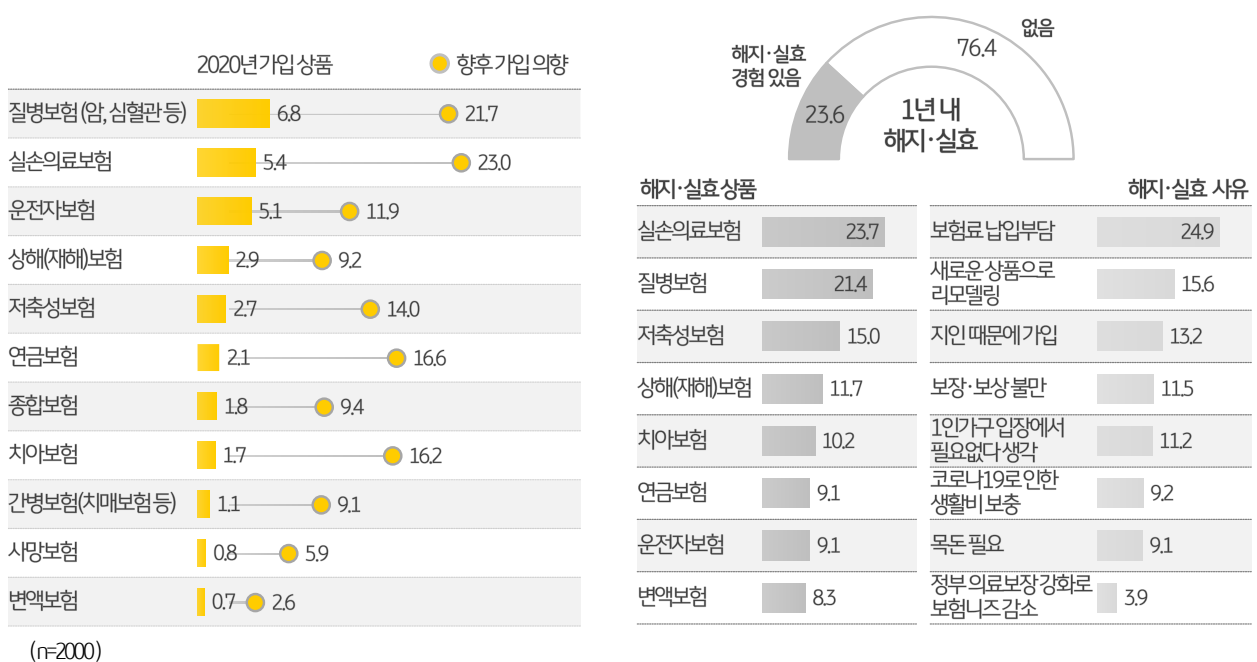


건강과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1인 가구들은 올해 **질병보험과 실손의료보험** 등을 많이 가입했으며 향후 가입의향은 질병·실손보험 외에 **연금보험과 치아보험**이 높았음. 약 24%는 1년 내 보험을 **해지·실효** 한 경험이 있으며, 주요 사유로는 **보험료 납입 부담**을 들었음

- 한편 금융회사들이 디지털 매체를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면서 소셜 미디어 채널에서 이벤트·상품 홍보를 하고 있는데, 조사 대상 1인 가구 중에서는 20·30대보다는 40대가 더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1인 가구들이 올해 가입한 보험상품의 종류는 ‘질병보험’ ‘실손의료보험’ ‘운전자보험’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상품들은 가입률은 높지 않지만 비교적 고르게 다양한 상품을 가입한 것으로 나타남
- 향후 가입 의향은 ‘실손의료보험’ ‘질병보험’ ‘연금보험’ ‘치아보험’ ‘저축보험’ 순으로 높게 나왔으며 연금보험과 치아보험은 실제 가입률에 비해 가입의향이 높은 편임. 1인가구의 건강·안전에 대한 관심도 증가 및 1인가구의 가장 큰 경제적 걱정거리가 “은퇴후 자금준비”로 나온 결과 등이 관심 상품으로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 1년내 보험을 해지·실효한 경험은 약 24%가 있다고 응답하였음. 해지·실효 상품은 실손의료보험과 질병보험, 저축보험의 순으로 나옴. 해지 실효 사유로는 네 명 중 한 명이 “보험료 납입 부담”을 들었으며, 기타 코로나19로 인한 생활비 보충, 목돈 필요 등 경제적 사유가 주요 이유로 꼽힘
- 한편 다른 보험상품으로 바꾸거나 “1인 가구 입장에 필요 없다고 생각”한 경우도 일부 있어 보험 설계 시 1인가구의 삶을 좀 더 고려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그림52 보험상품 가입 의향, 1년 내 해지·실효한 보험상품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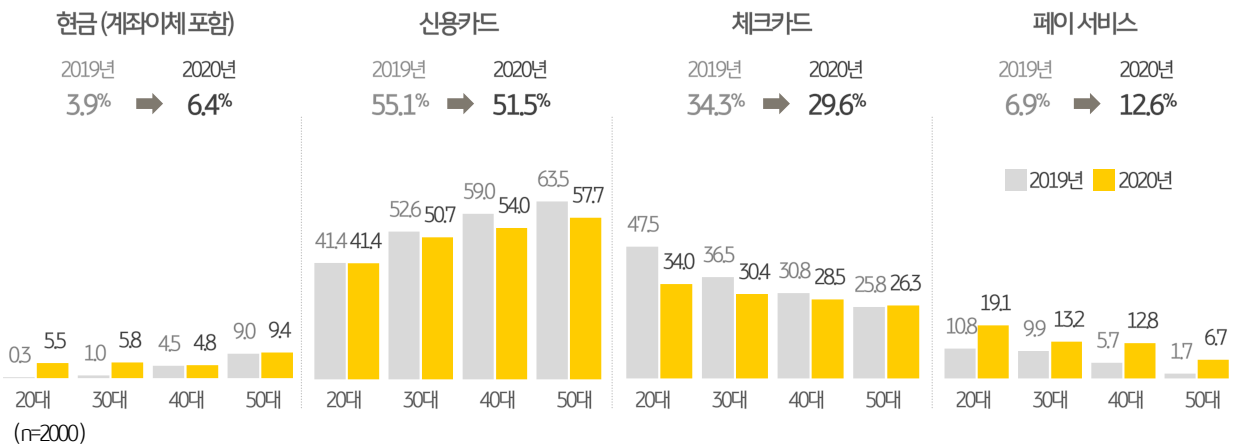


1인가구가 생활비·여가비 지출에 사용하는 **결제수단은 신용카드**가 절반을 넘고 있으나, 본 조사 실시 이래 신용카드의 사용 비중은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페이 서비스**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체크카드를 많이 쓰던 20대의 다수가 페이 서비스로 옮김, 이와 함께 **계좌이체**를 포함한 현금 지불도 소폭 늘어남

- 생활의 주요 결제수단으로서 신용카드는 50%가 넘는 1인가구들이 이용하고 있으나, 이용 비중은 다른 결제수단에 비해 눈에 띄게 하락하고 있음. 특히 전년도에는 주로 젊은 연령층에서 신용카드 사용률이 내려갔다면 올해는 50대의 하락폭이 가장 크게 나타나 다른 결제수단으로의 전환이 점차 고연령층으로 확대되고 있는 현상이 관찰됨
- 전년도까지 계속 상승하던 체크카드 사용률도 올해는 감소로 돌아섰음. 체크카드의 주 이용층인 20대부터 시작된 감소세는 올해 30·40대까지 확대되었으며 20대의 사용률 하락폭이 크게 나타나면서 연령대간 체크카드 사용률 차이가 미미해짐
-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률 하락은 페이서비스로 옮겨갔기 때문으로 보임. 페이서비스는 연령대가 낮을수록 높은 사용률을 보여주고 있으며 모든 연령대에서 전년 대비 상승폭도 높게 나타나는 등 빠르게 받아들여지고 있음
- 현금은 이용률이 가장 낮으며 과거 조사에서는 점차 이용률이 하락하는 추세였으나 올해는 계좌이체로 현금 결제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이용률이 상승하였음
- 다만 이는 현금 자체의 결제수단으로서 장점으로 인한 증가보다는 스마트폰 및 모바일뱅킹이 일반화되면서 송금과 확인 절차가 간편해지고 현금 결제에 혜택을 주는 자영업자가 늘어나면서 가성비를 추구하는 1인가구들이 이를 활용했기 때문이 아닐까 추정

그림53 1인가구의 생활·여가 지급결제수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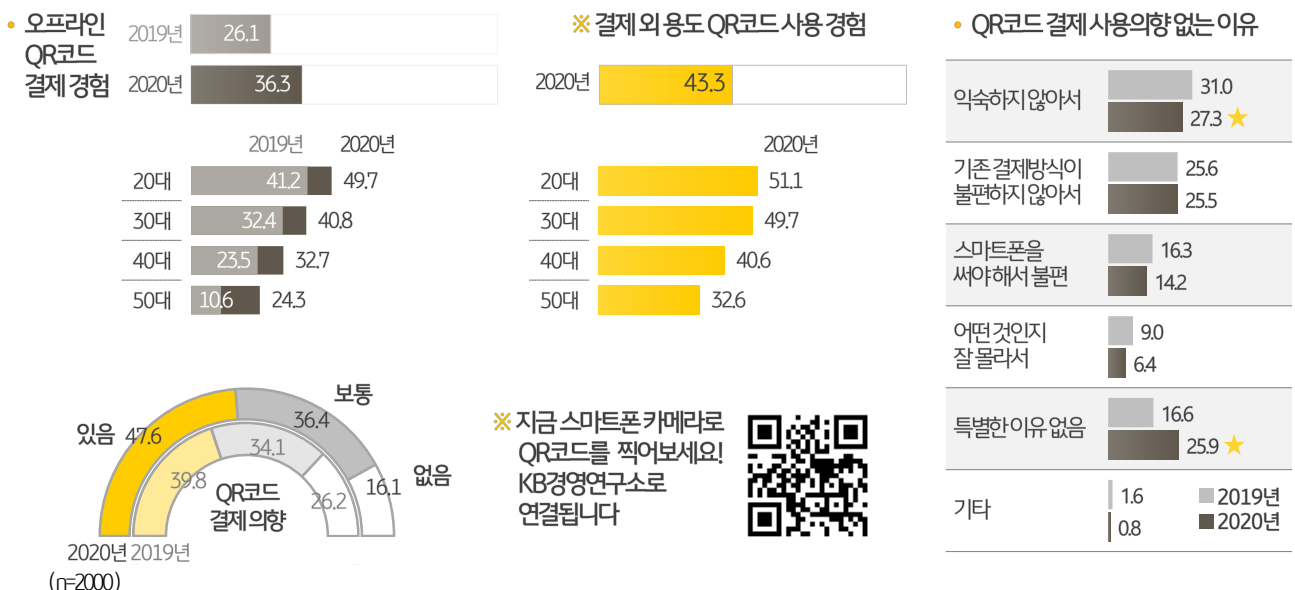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QR코드로 결제한 경험이 있는 1인가구가 전년도보다 증가하였음. 특히 코로나19 확산 이후 결제 외에도 입장·등록을 QR코드로 하는 등 활용처 증가로 익숙하지 않은 이들도 사용법을 익히는 계기로 작용하면서 QR코드 활용 확산의 토대가 마련된 것으로 판단

- 오프라인 점포에서 QR코드로 결제해 본 경험이 있는 경우가 약 36%로 전년도보다 약 10%p 상승하였으며 조사 대상 전 연령층에서 결제 경험이 늘었음. 20대는 절반에 가까운 이들이 결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는 등 젊은 층일수록 많이 이용하였으며, 50대는 비교적 결제 경험은 적으나 전년도보다 이용 증가폭은 가장 컸음
- 또한 절반 가까운 응답자들이 QR코드 결제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밝힘. 반대로 QR코드 결제를 이용할 의향이 없다는 응답자 비중은 전년도에 비해 10%p 하락하여 전반적인 이용 의향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임
- QR코드 결제 이용 의향자들은 스마트폰으로 결제할 수 있어 카드·현금을 지참하지 않아도 된다는 편의성을 가장 많이 꼽았음. 사용의향이 없는 이유로는 “익숙하지 않아서”가 가장 많았으나 전년도보다는 비중이 하락하였으며, “특별한 이유 없음”도 많아 다른 계기가 생긴다면 QR코드 결제를 이용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임
- 결제 외의 용도로 QR코드를 사용한 경험은 결제 경험보다 더 높은 약 43%에 달했음. 코로나19 확산 이후 공연장·음식점 입장 시 QR코드로 인증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그 동안 QR코드 사용이 “익숙하지 않아서”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향후에는 더욱 줄어들고 QR코드 결제 또한 좀 더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
- 특히 대면 절차를 생략하고 QR코드로 인증하는 방식은 개인화된 행동양식을 추구하는 1인가구의 성향과도 어울리는 면이 있어, 코로나19 상황은 QR코드 사용의 편의성이 좀 더 잘 알려지는 계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그림54 1인가구의 QR코드 결제 경험 및 사용의향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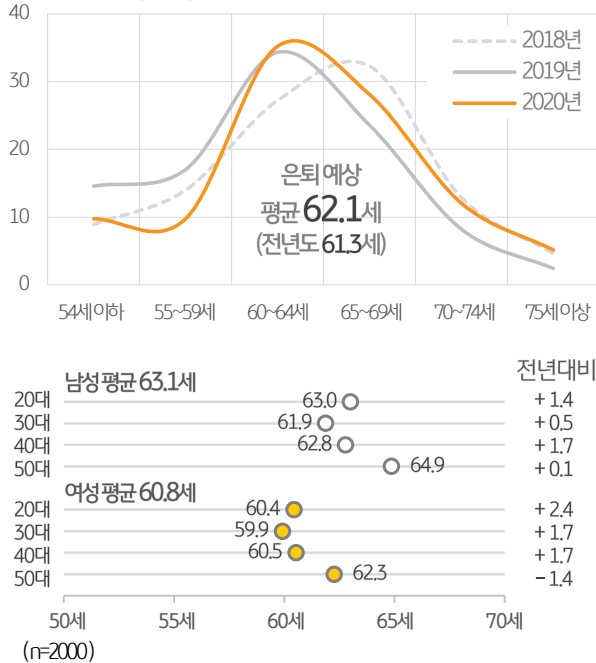
3. 은퇴 및 미래준비 성향

1인가구는 평균 62세에 은퇴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여성은 남성보다 약 23년 빠른 은퇴를 예상하여 상대적으로 노후 준비기간이 짧을 것으로 예상. 은퇴 준비·계획 수준은 전년대와 유사하여 1인가구의 전반적 노후 준비도가 향상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30대는 준비를 시작한 경우가 전년대보다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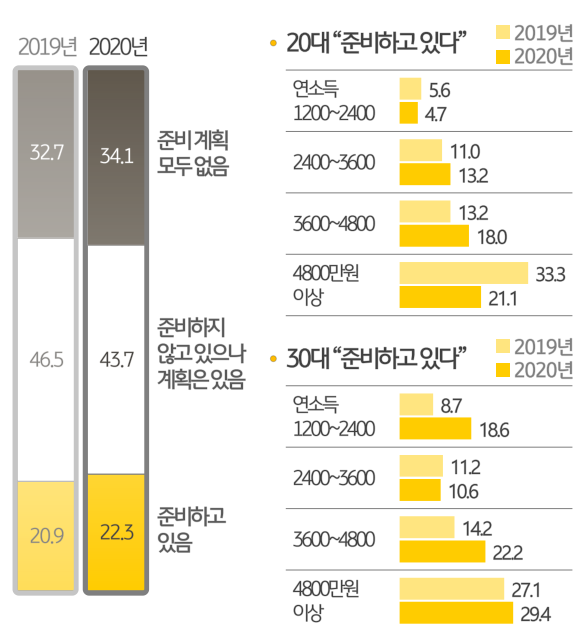
- 올해 조사대상 1인가구들은 평균 62.1세에 은퇴할 것으로 예상하였음. 이는 전년도 조사(61.3세)보다 소폭 늘어난 것이나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한 2018년 KB골드라이프 보고서의 은퇴 예상 연령(64.9세)에 비해 2.8년 빠른 시점으로, 다인가구에 비해 빠른 은퇴를 예상하는 1인가구의 성향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연령대별로 보면 은퇴 시점이 좀 더 가까이 다가온 50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은퇴 시점을 좀 더 늦게 잡는 경향은 과거와 유사함. 한편 전년도에 비해 20대와 40대의 예상 은퇴 연령이 좀 더 늦춰진 것으로 나타나 이들 연령대에서 경제력을 좀 더 오래 유지하고자 하는 의향이 강해진 것을 볼 수 있음
- 여성의 은퇴 예상 나이(60.8세)는 남성(63.1세)보다 23년 빠른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장수하는 경향이 있는 여성들이 충분한 노후준비 기간을 가지는 데 좀 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임
- 현재 은퇴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1인가구가 약 22%로 전년대보다 소폭 늘어났으나, 준비와 계획 모두 없는 경우 또한 소폭 증가하였고 계획은 있으나 준비를 시작하지는 않은 경우가 44%를 차지하여 전반적인 노후 준비도는 향상되지 않음

그림55 은퇴 예상 연령, 은퇴 후 삶을 위한 준비·계획 (단위: %)

• 은퇴 예상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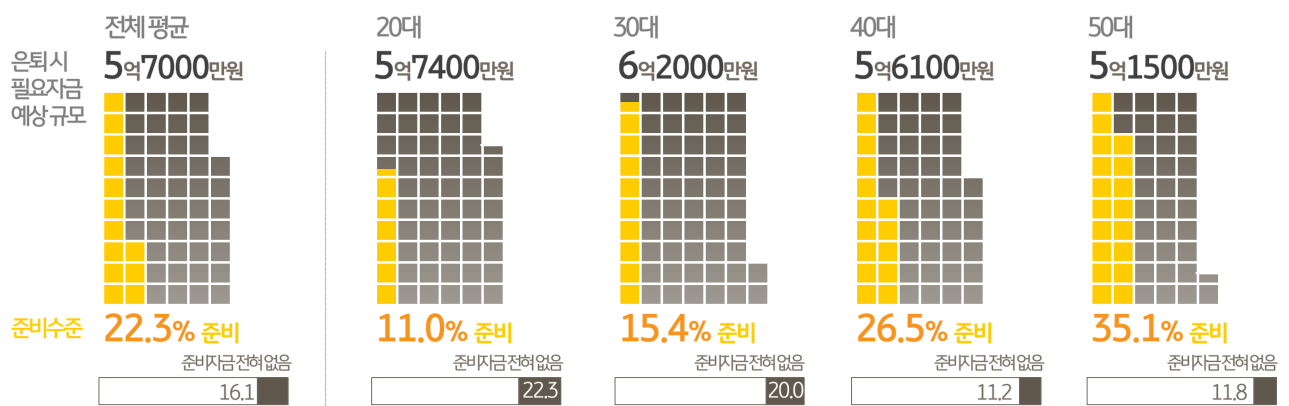
• 은퇴 후 삶을 위한 준비·계획



1인 가구는 은퇴를 위해 **5억 7천만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현재 약 **22.3%**를 준비한 상태라고 응답하였음. 반면 **준비자금이 없다**는 응답자도 **16%**에 달함. **30대 1인 가구**의 경우 은퇴 예상자금 규모 대비 준비수준이 높지 않아 은퇴에 대한 **경제적 불안감**이 큰 편

- 한편 20·30대에서는 은퇴 준비를 일찍 시작하려는 경향이 관찰되는 등 가능한 빨리 행동에 옮길수록 유리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은퇴 준비·계획 여부는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함께 증가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30대는 대부분의 소득 구간에서 전년도보다 은퇴 준비를 시작한 경우가 증가함
- 1인 가구가 예상하는 은퇴할 때 필요한 자금 규모는 평균 5억 7천만원으로 나타남. 이는 과거 조사 때보다 상승한 것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생활을 유지하면서 1인 가구로 살아가기 위한 현실적 예측과, 저금리·저성장 환경의 지속 및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던 조사 시기 상의 불안 심리가 함께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추측
- 연령대 별 은퇴자금 예상 규모는 30대가 가장 높은 6억 2천만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경제적 위기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대 5억 7400만원, 40대 5억 6100만원으로 예상하였음. 반면 은퇴 시기가 가장 가까운 50대는 5억 1500만원으로 30대가 예상하는 금액과 약 1억원의 차이가 있었음
- 예상 은퇴자금 대비 현재 어느정도 준비했는지를 묻는 문항에는 22.3%가 준비되었다고 응답함. 은퇴 예상자금에 적용하면 1인 가구들은 평균 1억 2700만원 정도는 준비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추정됨
- 현재 준비수준은 경제활동 기간을 감안할 때 연령대와 함께 높아지는 것이 자연스러우나, 30대의 경우 예상 은퇴자금 규모는 가장 큰 반면 현재 준비 수준과의 격차는 다른 연령대보다 두드러져 상대적으로 불안감이 큰 것으로 추정
- 한편 20·30대의 20% 정도는 현재 은퇴 준비자금이 “전혀 없다”고 답변하는 등 은퇴를 위한 재정적 준비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56 은퇴 시 필요한 예상자금, 현재 준비수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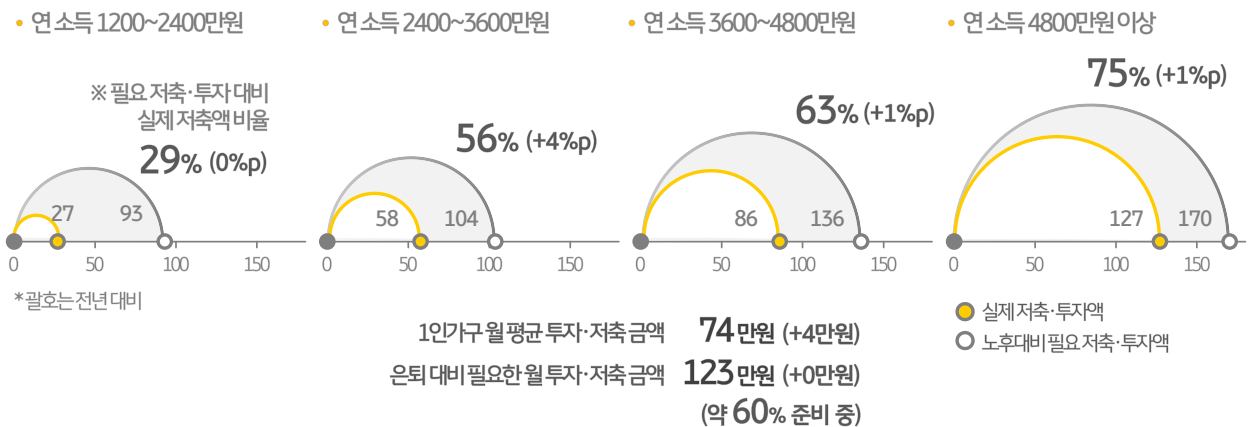


(n=2000)

1인가구는 은퇴 후를 대비하기 위해 **매월 123만원**의 투자·저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실제 투자·저축 금액은 약 **74만원**으로 **60% 정도만** 준비하고 있음. 다만 투자·저축 금액 규모는 전년 대비 **4만원 상승**하는 등 소폭 개선됨

- 조사 대상 1인가구들이 은퇴 후를 대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매월 투자·저축 금액은 평균 123만원으로 전년도 조사와 동일한 금액이 산출됨
- 소득 규모별로는 연 소득 2400만원 미만인 경우는 매월 95만원, 연 소득 4800만원 이상은 170만원 투자·저축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소득별 금액 차이는 크나 소득의 40% 정도는 은퇴를 위해 모아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
- 반면 실제 투자·저축금액은 이에 크게 못 미치고 있으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금액과의 격차도 큰 편인데, 소득 규모별로 그 차이는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음
- 올해 설문 대상 1인가구의 평균 월 평균 투자·저축 금액은 전년도보다 4만원 상승한 74만원으로 조사됨. 이는 은퇴 대비 필요 투자·저축 금액(123만원)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전년도 조사보다는 3%p 개선되었음
- 다만 연 소득 2400만원 미만인 경우 매월 27만원을 투자·저축하고 있어 필요 금액 대비 비율(이하 “비율 지수”)은 29%에 불과. 이 비율 지수는 전년도 동일하나, 해당 소득 구간의 경우 필요 금액과 실제 저축액이 모두 줄어들면서 동일하게 유지된 것
- 연 소득 2400만원 이상에서는 전년도보다 비율 지수가 모두 소폭 상승하였음. 연 소득 4800만원 이상은 필요 금액의 약 4분의 3을 투자·저축하고 있어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으나 저소득 구간보다는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
- 필요 금액과 실제 투자·저축액의 절대금액 차이도 저소득 구간이 고소득 구간보다 높은 현상 또한 전년도 동일하여 여전히 저소득 구간은 생계 비용 충당 후 저축 여력 부족이 심각한 상태이나 절대금액 상의 차이는 전년도보다 소폭 축소됨

그림 57 은퇴 대비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저축·투자액과 실제 저축·투자액 (단위: %)



(n=2000)

은퇴자금 준비의 장애요인으로 1인 가구는 **소득 부족**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생활비 충당 후 여유가 없다**는 응답자도 많았으나, 소득 구간별 차이가 컸음. **은퇴자금 준비** 방법은 예·적금과 공적·개인연금의 순이며 전년도보다 예·적금 의존도는 낮아지고 **투자상품·보험**으로 준비한다는 응답이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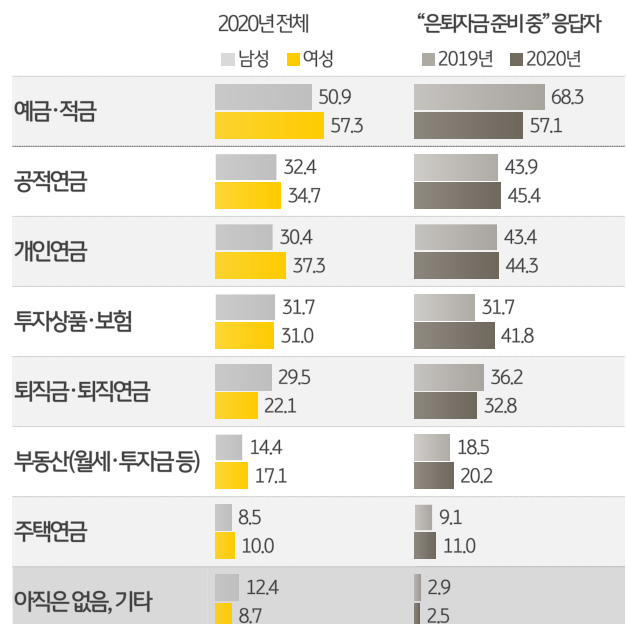
- 은퇴자금 준비에서 가장 장애가 되는 요인으로 가장 많은 1인가구가 ‘소득부족’(37.8%)을 들었고 다음으로 ‘생활비 충당 후 여유가 없음’(15.8%)을 언급. 부채상환 및 교육비 등 그 외 항목들은 10% 미만의 고른 응답율을 보였으며, ‘장애요인이 없다’는 응답도 10.6%를 차지
- ‘소득 부족’이 가장 큰 이유로 지목되면서 현재 소득 구간별 응답도 함께 살펴보면 연소득 24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가 ‘소득 부족’을 은퇴 준비의 장애물로 지적한 반면, 연소득 4800만원 이상에서는 해당 응답자가 30% 미만으로 감소. ‘생활비 충당 후 여유가 없다’는 응답 또한 양 소득구간의 응답율이 2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음
- 은퇴자금 준비 방법으로는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예·적금을 기본적으로 언급하였으며 공적연금과 개인연금, 보험 및 투자상품으로 준비하고 있는 경우가 30%대를 차지함. 남성의 경우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준비하는 경우가 여성보다 높은 편이며, 여성은 예·적금, 개인연금, 부동산 등으로 준비하는 비중이 남성보다 높은 편임
- “현재 은퇴자금을 준비하고 있는”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준비 방법을 보면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예·적금으로 준비하는 비중이 감소하고 투자상품·보험의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이 눈에 띈. 또한 전체 평균보다 개인연금·퇴직연금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 은퇴 대비를 위해 “연금 상품”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

그림58 은퇴자금 준비의 장애요인 (단위: %)



(n=1966, 1순위)

그림59 은퇴자금 준비방법 (단위: %)



(n=1319,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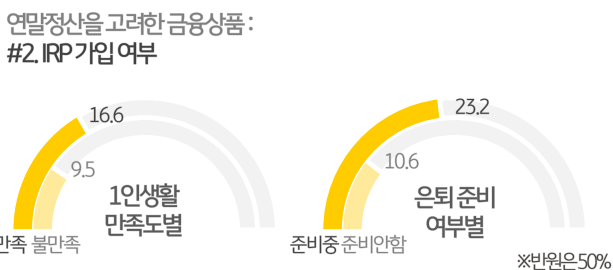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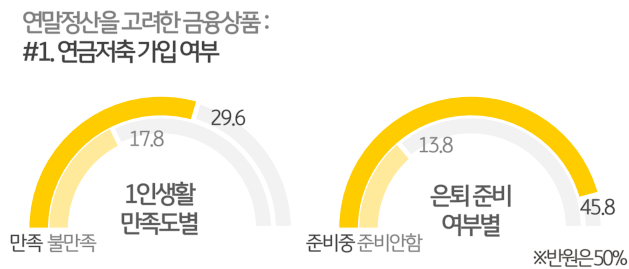
1인 가구 근로자는 다인가구에 비해 **연말정산** 공제 해당 항목이 적은 경우가 많은데, 은퇴를 준비하거나 1인 생활 만족도가 높은 1인 가구들은 **연금저축**이나 **IRP**를 활용하여 공제 혜택을 받고 있음

- 1인 가구 근로자들은 특성상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많이 받기 어렵고 소비 규모가 다인가구에 비해 작은 편이 많으며 일부 해당자가 주택 자금 공제를 받는 정도여서 은퇴 준비 및 연말정산을 위해 연금저축과 IRP 가입을 추천하는 경우가 많음
- 본 조사 대상 1인가구의 열 명중 네 명이 연금저축과 IRP를 가입한 상태로, 1인 생활 만족도가 높은 응답자들은 1인 생활 불만족자에 비해 가입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금융을 포함한 구체적 방식으로 1인 생활을 설계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은퇴준비를 하고 있는 1인가구들의 가입률은 더 높은 편으로, 연금저축의 경우 은퇴준비를 하고 있는 1인가구의 절반 가량이 가입하고 있어 은퇴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 그룹과 큰 대조를 보여줌

1인 가구 중 **결혼 미의향자**는 재산을 **쓰고 싶은 곳에 최대한 사용**하려는 경우가 많으며, 향후 재산 처리방법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경우도 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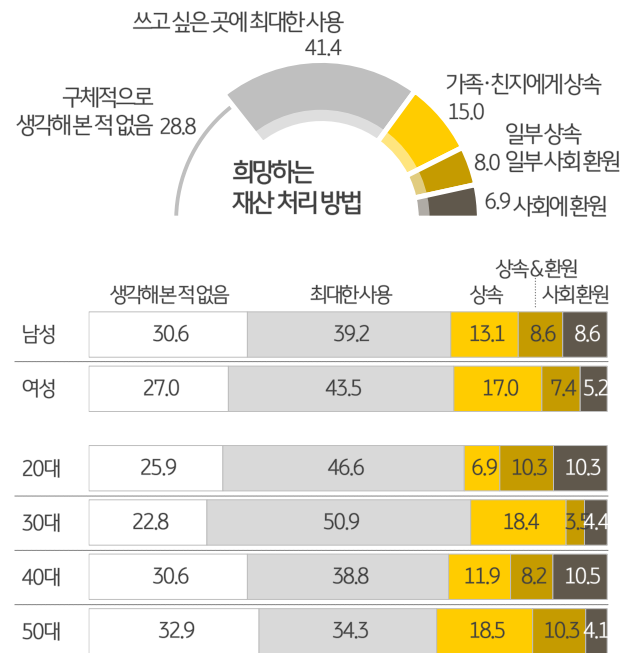
- 한편 결혼 의향이 없는 1인가구들은 현재의 재산을 향후에 어떻게 처리하고 활용할 지에 대해 “상속”을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기혼 다인가구들과 다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쓰고 싶은 곳에 최대한 사용한다”는 응답이 41.4%로 가장 다수를 차지했으며,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응답자도 약 30%에 달함
- 연령대별로는 30대는 최대한 사용한다는 의견이 절반을 넘었으며, “사회에 환원”한다는 의견은 20대와 40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옴

그림60 은퇴대비·연말정산 관련 상품 가입현황 (단위: %)



(n=2000)

그림61 희망하는 재산처리 방법(결혼 미의향자) (단위: %)



(n=2000)

연구방법·설문조사 개요

- 조사방법 Online Survey + FTF (면대면 설문)

- 조사지역 서울, 경기 및 6대 광역시, 세종시

- 조사대상 만 25~59세 1인가구
연소득 1200만원 이상, 본인 스스로 금융 관련 의사결정, 1인가구 생활 3개월 이상

- 표본수 랜덤 2,000명

- 표본추출 성·연령·지역별 인구수 비례 할당 추출

	만25~29세	만30~39세	만40~49세	만50~59세	소계
남성	213	373	311	257	1184
여성	169	233	191	223	816
소계	382	606	502	510	2000

지역	서울	경기	인천	대전	광주
인원	676	612	150	101	95

지역	대구	부산	울산	세종	소계
인원	131	160	57	18	2000

- 조사기간 2020.8.21~2020.9.8

* 본 보고서에 제시된 한국 1인가구 관련 조사는 시장조사 전문기관의 설문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보고서 세부 내용은 KB금융그룹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발행처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26)

연구자 1인가구 연구센터 센터장 정인 (paisley@kbfmg.com) 연구원 오상엽 (osy1220@kbfmg.com)

본 보고서는 KB금융그룹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KB금융그룹의 승인 없이 본 보고서의 내용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